

박사학위논문

격대교육의 논리와
유로(幼老)복합시설 개발 연구

A Xlogical study of Grandparent Involvement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Elderly Complex Facility
Development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교차학 협동과정 문화예술학전공

정 숙 희

2018

격대교육의 논리와 유로(幼老)복합시설 개발 연구

A Xlogical study of Grandparent Involvement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Elderly Complex Facility
Development

지도교수 조 중 빈

지도교수 성 동 권

이 論文을 文化學博士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함

2018년 10월 25일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교차학 협동과정 문화예술학전공

정 숙 희

2018

鄭淑姬의

文化學 博士學位 請求論文을 認准함

2019년 1월 10일

審査委員長 안 현 상 (인)

審査委員 이 의 용 (인)

審査委員 제 갈 윤 (인)

審査委員 오 정 근 (인)

審査委員 성 동 권 (인)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목 차

국문 요약	vi
제1장 서론(序論)	1
제1절 연구 동기 및 연구 목적	1
1. 연구 동기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3
1. 연구의 내용	13
2. 연구의 방법	15
제2장 ‘격대교육’의 사상적 토대	17
제1절 사서 안의 격대교육의 논리	17
1. “잘하고 있는 거야.”	17
2. “기분 좋은 날”	22
3. “행복합니다.”	25
4. “걱정말아요.”	28
5. “뿌리 깊은 나무”	31
제2절 성학십도 안에서 격대교육의 논리	34
1. “순수지선의 아이들”	34
2. “사랑해요.”	37
3. “고맙습니다.”	42
4. “다 좋은 세상”	45
5. “괜찮아요”	50
6. “마음은 청춘”	53

제3절 ‘안도에게 보낸다.’ 문헌연구를 통해 본 격대교육	58
1. 퇴계 선생의 교육철학과 가학전통	58
2. 퇴계 선생과 안도의 격대교육 핵심 내용	64
3. 퇴계 선생의 격대교육과 내가 체험한 격대교육	69
제4절 격대교육의 논리 분석	72
1. 현행 교육과 격대교육의 비교 방식	72
2. 교육의 유형별 분석	75
3. 격대교육의 장점	78
4. 시니어 선생을 위한 문화교차학적 감정교육	80
 제3장 한국사회의 현실과 격대교육의 필요성	83
제1절 새로운 대안, 격대교육	83
1. 교육환경의 변화	83
2. 현대적 격대교육의 필요성	85
제2절 인구·환경적 변화	88
1. 출생 인구와 취원 아동	88
2. 노인 인구의 변화	90
3. 노인의 경제활동	93
제3절 노인복지시설 현황	97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97
2. 노인복지시설 현황	99
3. 노인복지관 운영현황	100
제4절 노인관련 공공정책	106
1. 노인관련 예산 및 지원 사업	106
2. 노인복지사업의 내용	107
3. 노인 공공정책의 개선방향	109

제4장	격대교육을 위한 유로(幼老) 복합시설	110
제1절	해외 유로(幼老) 복합시설 및 격대교육	110
1.	일본의 유로(幼老)복합 프로그램	110
2.	미국의 Neighbors Growing Together	113
3.	호주 Kids Interacting with The Elderly	115
제2절	국내 세대 간 협력 프로그램	116
1.	서울노인복지센터 ‘이상(理想)한 실험실의 상상 II’	116
2.	신평 사랑채 노인복지관	121
3.	서대문구 “1·3세대와 함께하는 숲 체험 마당”	123
제3절	격대교육과 유로(幼老) 복합시설 수용방안	128
1.	내가 원하는 격대교육과 유로(幼老) 복합시설	128
2.	유아 및 노인시설의 통합 공동체 적용	134
제5장	결론(結論)	138
1.	감정이 기분 좋은 다 좋은 세상.	138
2.	격대교육(隔代教育)과 유로(幼老) 복합시설에 대한 제언	140
참고 문헌	143
<Abstract>	147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동기	4
[그림 2] 연구의 필요성	8
[그림 3] 연구의 목적	10
[그림 4] 유아교육의 4가지 유형	15
[그림 5] 제1 태극도	35
[그림 6] 제2 서명도	38
[그림 7] 제4 대학도	43
[그림 8] 제5 백록동규도	47
[그림 9] 제6 심통성정도	51
[그림 10] 제3소학도	54
[그림 11] 제8 심학도	56
[그림 12] 유형별 분석표	75
[그림 13] 국내 출산아 수 및 합계출산율 변화	88
[그림 14] 고령화 지수의 변화	91
[그림 15] 주요국 고령화 속도 비교	92
[그림 16] 취업의사 및 취업희망 이유	93
[그림 17] 고령자의 일자리 선택기준	94
[그림 18] 노인과 비동거 자녀 및 손자녀와의 연락 빈도	95
[그림 19] 노인과 비동거 자녀 및 손자녀와의 왕래 빈도	96
[그림 20] 일본 고토엔	112
[그림 21] 고토엔의 프로그램 사진	113
[그림 22] 1·3세대와 함께하는 숲 체험 마당	124
[그림 23] 숲 체험 마당 만족도 조사 결과	124

〈표 목차〉

[표 1] 유형별 장단점	78
[표 2] 공·사립 유치원 원아 수	89
[표 3] 어린이집 운영 형태별 이용률	89
[표 4] 인구고령화 추이	90
[표 5] 고령자 가구 추이	92
[표 6]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98
[표 7] 전국 노인복지시설 연도별 시설 수 및 입소정원	99
[표 8] 노인종합복지관의 미션, 비전 및 서비스 전략 체계	102
[표 9]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의 기본사업	104
[표 10] 노인복지관 기능평가 및 향후 필요 기능	105
[표 11] 보건복지부 노인관련 예산 현황	107
[표 12] 도쿄 노인·아동 복합시설의 개요	111
[표 13] 이상(理想)한 실험실의 상상 II 프로그램	118
[표 14] 느끼고 나누고 소통하고 프로그램	121
[표 15] 1·3세대와 함께하는 숲 체험 마당	124

격대교육의 논리와 유로(幼老) 복합시설 개발 연구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예술학전공
정 숙 희

본 연구는 격대교육의 필요성과 논리를 밝히고, 유로(幼老) 복합시설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성과 중심의 교육과 전통정신 계승의 단절, 정신문화 위기의 문제와 세대 간 갈등이 현행교육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격대교육의 논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상적 토대는 고전 사서와 성학십도 그리고 퇴계 선생이 손자 안도에 게 보낸 서찰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격대교육의 바탕은 감정의 자기 이해이며, 다 좋은 세상 안에서 즐겁게 배우고 가꾸어 나가는 것임을 안다(知). 격대교육은 조부모 자신의 체험으로 감정의 자기 이해의 공효(功效)인 다 좋은 세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혜와 절제의 자기감정 뿐만 아니라 아이들 감정에 대한 이해가 체험적으로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는 바인 욕(欲)을 올바른 사랑(仁)과 덕(德)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 더하여 아이들이 본성(性)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며, 자신이 완전한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닫게 도와준다. 그리고 배움(學)을 통해 아이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다 좋은 세상 확인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육이다. 조부모 또한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자신의 성찰을 통해 지혜의 근원이 감정의 자기 이해에 있음을 확인하며 삶이 무르익는다. 이러한 올바른 교육이 문화교차학적 감정교육인 격대교육이다.

격대교육에 대한 기존의 연구나 논의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격대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격대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들보다 인지능력과 정서적인 안정 그리고 학업성적이 높게 나타났다. 격대교육이 실제로 아이들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과 실제 교육적 측면에서의 결과도 좋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효과는 격대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통해 공유와 소통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 복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격대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구·환경적 변화와 노인복지시설 현황 그리고 국내 세대 간 협력 프로그램을 비롯한 해외 유로복합시설 운영 사례를 소개하였다. 앞으로 격대교육을 전개해 나가기 위하여 시니어 선생님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하였으며, 연구자가 바라는 격대교육이 유로(幼老) 복합시설을 통해 확산하여 감으로써 통합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연구자는 유아교육 현장의 오랜 체험을 바탕으로 분석 틀을 만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격대교육의 필요성과 논리를 밝히기 위하여 4가지 교육의 유형을 개발하였다. 4가지 유형의 각각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 I ‘채움형’은 조부모 교육과 현행 교육이 중심이 된 유형이다.
- II ‘현실형’은 부모교육과 현행 교육이 중심이 된 유형이다.
- III ‘미래형’은 부모교육과 문화교차학적 감정교육이 중심이 된 유형이다.
- IV ‘안심형’은 조부모 교육과 문화교차학적 감정교육이 중심이 된 유형이며, 연구자가 격대교육의 유형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를 분석한 결과, IV ‘안심형’이 격대교육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안심형’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첫째, 아이들 자신이 완전한 사랑(仁)임을 알고 받은 사랑을 나눌 수(情) 있도록 한다. 둘째, 아이들 감정을 잘 이해하며 여유롭게 기다리니 자신의 본성을 바탕으로 하고 싶은 대로 자

유롭게 한다. 셋째, 아이들은 다양한 세대와 함께 체험하며 다른 사람과 공유의 순서와 소통을 배운다. 넷째, 스스로 교육을 통해 본래 자신이 가진 것이 다 좋은 줄 확인하게 되어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시니어 선생님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실천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되어 긍정의 노년의 삶을 살 수 있다.

본 논문은 격대교육의 논리와 유로(幼老) 복합시설의 모형을 제안했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더욱 구체적인 유로(幼老) 복합시설의 구성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시니어 선생님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지속해서 개발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갖춰졌으면 좋겠다. 연구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것에 대한 후속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나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노인과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야말로 곧 우리나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라고 본다. 격대교육을 통하여 다 좋은 세상 안에서 대립이 아닌 교차로 인하여 함께 정(情)을 나누며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 교차논리¹⁾, 격대교육²⁾, 시니어 선생님³⁾, 유로(幼老) 복합시설⁴⁾, 안심형

1) 영문 제목의 'Xlogic'은 신조어로 교차 논리의 번역어이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논리는 '형식논리'인데 이에 대응하는 교차논리는 '사실논리'라 이름할 수 있다. 여기서 교차란, 불변의 사실(理)과 가변의 사실(氣)이 '나'의 존재와 당위와 인식, 즉 내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교차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두 사실이 교차하는 가운데 리(理)가 기(氣)의 뿌리가 됨, 즉 리가 기에 앞선다는 필연적 순서 챙기기를 논리라고 한다. 그래서 교차 논리, 'Xlogic'이다.

2) 연구자가 분석한 결과 격대교육은 '문화교차학적 감정교육'이라고 칭한다.

3) 연구자는 본 논문에서 격대교육에 참여하는 조부모 세대를 '시니어 선생님'으로 칭한다.

4) 연구자는 유치원 시설과 노인 복지시설을 융합하여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고 서로 협업하는 운영체계를 가진 시설의 명칭을 '유로(幼老) 복합시설'이라고 칭한다.

제1장 서론(序論)

제1절 연구 동기 및 연구 목적

1. 연구 동기 및 필요성

1) 연구 동기

싱그러운 봄바람이 불어오는 4월이면 서대문구에 위치한 안산은 흐드러지게 핀 벚꽃으로 인해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반긴다. 우리 유치원 아이들과 안산에 들어서는 순간 때마침 바람이 불어오니 꽃비가 하늘 가득 내린다. “멋있어요.” “예뻐요.” 아이들이 좋아 펄쩍 뛰며 하는 감탄사이다. 꽃비를 맞으며 벚꽃 길을 살포시 걸어본다. 우리 유치원 아이들과 교사들은 손바닥을 펼쳐 꽃비를 맞는다. 나는 유치원장으로 우리 유치원 아이들과 맞이하는 이런 순간이 매번 참 행복하다. 꽃과 나비, 곧게 쭉 뻗은 나무 등 모양은 각기 다르지만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로 태어나 억지로 하는 것 없이 순리를 따르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기다린 자동의 결과이다.⁵⁾

해를 거듭할수록 느껴지는 나의 감정 확인은, 소중한 귀한 자녀를 믿고 맡겨주신 학부모와 아이들을 위해 유치원장으로서 ‘나 잘하고 있나?’ 스스로 질문을 자주 해보는 것이다. 우리 유치원을 잘 선택했음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노력을 우선하지는 않았는지 나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곤 했는데, 문화교차학과에 입학하여 공부하면서 『논어』 「학이」 군자 부중즉불위 학즉불고(君子 不重則不威 學則不固)⁶⁾가 눈에 들어왔다. ‘군자는 무게 잡지 않는 사람이라 거드름 피우지 않고, 배우는 사람이라 고집스럽지 않다.’는 말로써, 고집이 세면 아직 배움이 부족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5) 『성학십도』, 「제3 소학도」: 是曰秉彝 有順無彊.

6) 『논어』, 「학이」: 君子 不重則不威 學則不固.

나는 아이들을 위한다는 나만의 생각으로 고집을 부리지는 않았는지, 무엇이든 많이 가르쳐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아이들을 채근하지는 않았는지 나를 되돌아보았다.

『맹자』 「공손추 上」 제2장에 보면 ‘어떤 농사꾼이 밭의 싹이 빨리 자라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잘 자라나도록 돕고자 한 뽕씩 당겨 뽑았다고 한다. 과연 그 싹은 어떻게 되었을까? 맹자는 이것이 ‘조장(助長)’⁷⁾이라고 했다. 또한 “조장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롭다(助長非徒無益 而又害之).”⁸⁾라고 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시기가 되면 부모들은 조바심을 낸다. 아이들에게 뭐든 빨리 배우기를 조장(助長)하는 것이다. 부모들은 유치원 통학 차량을 기다리면서 또래 엄마들과 정보를 나누고 배워야 할 목록들을 하나둘씩 챙긴다. 특히나 첫 아이를 둔 부모는 마음이 급해진다. 배워야 할 목록 순서대로 답습하고 자신의 아이가 이왕이면 옆집 아이보다 뭐든 빨리 배우게 하고 싶어 서두른다. 남들보다 아이가 뒤처지게 하면 마치 무능한 부모가 된 것처럼 생각한다. 이러한 부모도 둘째 아이부터는 첫째 아이 육아 체험을 통하여 적기 교육이 있다는 것을 새삼 깨우치고 조금은 느리게 배우게 한다. 셋째 아이가 있는 경우는 확연히 달라진다.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다 시켜봤는데 소용없더라고요. 다 때가 되면 하더라고요.’라고 한다. 이미 부모교육 시간을 통해 누누이 강조한 ‘아이들은 생김 그대로 행동하며 자라고, 때가 되면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해마다 우리 유치원에 오시는 ‘이야기 할머니’가 계신다. 유치원에 파견되는 이야기 할머니 수업은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학진흥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치신 50~70대 할머니들을 통해 ‘무릎 교육’의 전통을 되살리고 아이들에게 밝은 인성을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조성된 사업이다. 이야기 할머니가 우리 유치원에 오신 첫날이었다. ‘어, 할머니가 우리 유

7) 『맹자』, 「공손추 上」: 必有事焉而勿正 心勿忘 勿助長.

8) 『맹자』, 「공손추 上」: 非徒無益 而又害之.

치원에 왜 오셨지?’ 의아해하던 아이들이 이야기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재미있는 동화 이야기에 신이 나서 ‘재미있어요. 또 해주세요.’를 연발하니 이야기 할머니께서 기분이 더 좋아지셔서 신명 나게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 이야기에 경청과 공감을 말이 아닌 몸으로 표현을 해 주시니 이야기 할머니에 대한 아이들의 호감이 높아지면서 매주 수요일에 오시는 이야기 할머니를 손꼽아 기다렸다. 그 후 아이들은 스스로 다가가기도 하고 이런저런 궁금한 질문을 쏟아내기도 한다. 마치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인 산티아고와 인정 많은 소년 마놀린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아이들은 이야기 할머니의 자애롭고 훈훈한 이미지와 친근함 그리고 손자·손녀를 돌본다는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는 이야기를 통한 교감에서 마치 외할머니 혹은 친할머니의 훈훈한 정을 느끼는 것 같다.

이야기 할머니께서는 ‘정작 내 아이 기를 때에는 먹고 사느라 짬이 없어서 아이들 예쁜 줄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지금은 내 손자녀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마치 내 친손자녀처럼 예쁘고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며 박꽃처럼 환하게 웃으신다.

‘젊어서는 잘 몰랐는데 일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주변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늙으나 젊으나 일이 있어야지, 적당히 긴장감도 있고 좋아요.’라고 하신다. 유치원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집중해서 잘 들어주고 정말 즐거워하니까 용기도 생기고 아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든다고 하시면서 ‘아이들로 인해 오히려 배우고 가요.’라고도 한다. 배움도 챙기시고 정(情)도 함께 나누시니 이야기 할머니의 얼굴은 늘 밝았다.

나는 어릴 적 옛날이야기를 해주시던 외할머니 생각이 문득 났다. 조용조용 나직하게 이야기를 시작하시면 우리 남매는 외할머니 옆으로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 귀 기울여 숨을 죽이고 들었던 기억이 새롭다. 그래서 인지 시골에 살고 계시는 외할머니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날에는 빨리 만날 생각에 학교를 마치자마자 집으로 서둘러 왔다. 우리 유치원 아이들도 나와 같은 기분을 느끼는 걸까, 이야기 할머니의 옛날이야기를 듣는 내

내 좋은 감정이 아이들의 표정에서 살아나니 우리 유치원에서는 함께 한 교사들도, 덩달아 학부모들도 이야기 할머니를 좋아한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대가족 안에서는 손자녀의 육아와 교육은 조부모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다. 손자는 할아버지와 함께 기거하면서 각종 심부름을 통해 실질적인 가르침을 받았고 이것을 ‘건문 교육’이라 하였다.⁹⁾ 할머니는 손자, 손녀의 배변 습관에서부터 옷 입기, 밥 먹기, 말버릇, 놀이, 동요 등을 가르치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규범을 습득하게끔 교사의 역할을 담당하였다.¹⁰⁾

[그림 1] 연구동기



대부분이 핵가족화로 변모한 현대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보았다.

첫째는 부모가 양육하는 가정이고, 둘째는 조부모가 맡아주시는 가정이며,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기도 한다. 셋째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의 종일반을 이용하는 가정이다. 맞벌이 가정인 경우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인 상황에 해당하는데, 둘째인 조부모가 맡아주시는 경우에는 오전

9) 김미영, “조손 관계의 전통과 격대교육”, 『실천 민속학 연구』 제16호, 69~72쪽.

10) 임재해, ‘한국 전통 육아 왜 잊혔는가?’ 생태 유아교육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 원고, 2012, 6쪽.

유치원 정규반 과정을 마치고, 오후 시간에는 조부모의 보살핌을 받게 된다. 셋째의 경우에는 기관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나서 종일반에서 오후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런 경우 기관에 온종일 맡겨야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종일반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도 되고,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면서, 혹시 다른 아이들에 비해 덜 배우게 하는 건 아닌지 조바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부모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녀를 위해 무엇인가 더 해주고 싶은 조금 한 마음에 정보를 수집하고 소위 뜨는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때로는 이웃의 자녀들과 팀을 구성하여 미술학원, 태권도 학원, 영어 학원 등 학원을 보내 무엇이든 빨리 배울 수 있도록 조장(助長)¹¹⁾을 한다.

나는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취학 전 아이들에게 많이 배우게 하기보다는 ‘사랑받기’와 ‘사랑하기’¹²⁾를 통해 자유롭게 자신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교육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전통사회에 행해졌던 ‘무릎 학교’와 ‘견문 교육’ 제도는 이 시대에 안성맞춤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들이 부모 세대일 때에는 열심히 일하느라고 정작 내 자녀가 예쁜 줄 모르고 그 세대를 지나쳐 왔다. 결국 내 아이에게 조장(助長) 밖에는 할 수 없이 바쁘게 그 세대를 살아왔다. 그 부모 세대가 한 세대를 건너오면서, 비로소 나를 볼 수 있는 시점의 노인이 되었다. 어르신들이 과거 당신의 자식들에게 못했던 아쉬움을 이제는 손자녀를 통해서 정성을 보일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다.

나는 순수지선인 아이들은 본래 있는 그대로를 보는 천자(天子)이므로 경륜과 지혜가 있는 노인과 아이들을 접목할 수 있는 격대교육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초등학교의 방과 후 교실,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격대교육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다양

11) 『맹자』, 「공손추 上」: 必有事焉而勿正 心勿忘 勿助長.

12) 조중빈 역설, 『안심 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7), 13쪽~14쪽.

한 분야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다. 할머니, 할아버지 시니어 선생님들을 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다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는 안심이 되고, 아이들은 어르신들이 제공하는 편안하고 성숙한 분위기 속에서 더욱 행복한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자녀들을 키워본 체험을 통해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부모 세대와 다르게 결과보다는 애정과 관용으로 아이들을 이해하는 경향이 크다. 또한,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하나씩 삶을 챙기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교육을 한다. 또한 인생을 살아오시며 터득하신 지혜로 인하여 더 넓은 시각에서 부모보다 좀 더 인내하고 아이들을 사랑과 칭찬으로 가르치신다. 새로운 체험이나 낯선 도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아이들의 흥미를 유도하며,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결과와 상관없이 아이들의 도전에 의미를 두고 격려와 칭찬으로 기분을 북돋아 준다. 내가 보기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교육 방법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과 가깝다고 생각한다.

『논어』 「학이」의 ‘학이시습지 불역여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¹³⁾에서 익힐 습(習)은 '날개'의 뜻인 '우(羽)'와 '희다'는 뜻인 '白'의 합자로, 어린 새가 날개(羽)를 퍼드덕거리 스스로(自→白) 날기를 연습한다고 하여 '익힌다'라는 뜻이다.¹⁴⁾ 또한, 시습(時習)은 여기가 천국임을 확인하는 나의 날갯짓으로, 한 날갯짓이 두 날갯짓이 되고 두 날갯짓이 세 날갯짓이 되며, 늘 새롭지만(時), 한결같이(習) 기쁨에 요동치는 나의 몸짓이 시습(時習)이다.¹⁵⁾ 즉, 무엇이든 되풀이하여 연습(習)을 통해 몸에 익히는 것을 습이라고 본다. 열(說)은 나중에 기뻐한다는 뜻으로, 체험을 통해 논리에 대한 자명한 사실을 내 몸으로 확인하고 알게 되니 기뻐할 수밖에 없어서 배우기를 그만둘 수 없다는 뜻이다. 뒤늦은 나이에 문화교차학과에 입학하여 동학들과 고전 읽기에 재미를 느끼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13) 『논어』, 「학이」, 1장 :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14) 한자 사전 (<http://m.hanja.naver.com>).

15) 『논어』, 「학이」, 1장 :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이 나이에 배워서 뭐 한다고 이러는 걸까’라고 질문하고는 했었다. 그런데 나는 문화 교차 학의 배움을 통해서 논리를 챙기고, 있는 것 확인하는 그것이 학(學)인 줄 알게 되니, 생긴 그대로 있는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어 위안도 되고 용기도 생겼다.

2) 연구 필요성

어느 날 인가 문득, 정년이 되어 유치원을 그만두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노년을 보람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으며 내가 원하는 노년의 보람과 행복은 무엇일까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평생 일을 손에서 놓아본 적이 없는 나는 노년이 된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낸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다. 시니어 유치원을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고 격대교육에 필요한 시니어 교사들을 양성하는 평생교육원을 운영해 볼까도 생각해 보았다. 나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 늘어만 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연령 분포의 변화로 인한 노인과 육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안으로 노인시설과 유치원을 하나로 묶는 ‘유로(幼老)’복합시설을 건립하여 그곳에서 격대교육을 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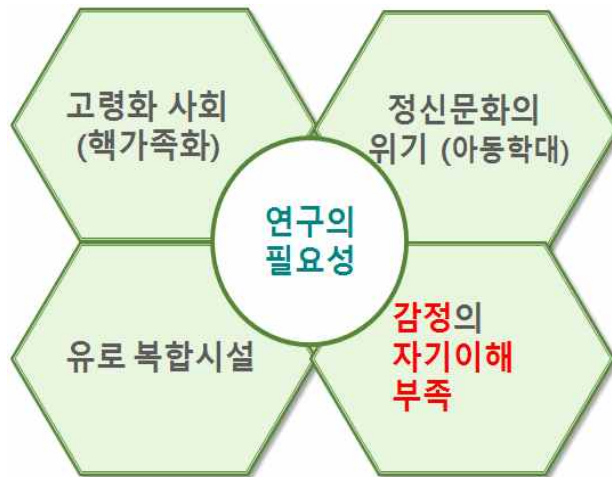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출산율은 낮아지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의 비중이 2020년에는 15.1%에 이르고, 2030년에는 23.1%, 2040년에는 30.1%, 2050년에는 34.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를 14세 미만의 인구와 비교 분석한 결과 2050년에 노령화 지수는 328.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¹⁶⁾ 이대로 가면 내 나이 70세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 분포도가

16) 홍승표, 『노인 혁명』, (예문서원, 2007), 68쪽.

역삼각형 모양이 된다고 한다. 즉, 경제활동 인구보다 노령인구가 훨씬 많아진다는 이야기이다. 게다가 복지정책과 의학의 선진화로 인하여 사람의 생존 연령은 점점 늘어난다고 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노인 복지 문제가 심각하고, 역시나 맞벌이 부모가 많다 보니 육아 문제 또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우리나라의 한 방송에서 일본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로(幼老)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대처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나는 유로(幼老)복합시설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그림 2]연구의 필요성



일본은 이런 점에서 우리보다 한발 앞서는 것 같다. 우리나라도 현시점에 국가가 나서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국공립유치원과 노인복지기관을 하나로 하는 ‘유로(幼老)’복합시설로 운영체계를 변화시키거나 건립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노인에게는 일하는 즐거움을 통해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보람 있는 삶을 살게 하고, 유아들에게는 자녀 양육의 풍부한 체험을 토대로 지혜로운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시니어 선생님께서부터 받는 격대교육이 안성맞춤이라고 본다. 나는 아이들이 ‘세 살 적 버릇 여든까

지 간다.’는 말처럼 유아기부터 서로를 존중하고 남을 배려하는 올곧은 품성을 발현하며 성장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바람을 유로복합시설과 시니어 선생님의 교육을 통해서 한 층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나는 문화교차학과에 입학했을 때 처음 접하는 고전이 어렵게만 느껴졌다. 그렇지만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좋은 것이라는 가르침에 문화교차학과 안에서는 무언지 모를 안도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았지만, 열심히 고전 공부를 한 결과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고전 수업을 통해 격대교육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내게 정말 큰 자신감과 용기가 생겨났다. 나의 고전에 대한 해석과 이해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다. 더구나 내 마음속 논리를 챙기면 겁날 것이 없는 세상이라는 가르침에, 다 좋은 세상에 대한 나의 깨우침과 믿음은 점점 커져만 갔다. 이렇게 나는 다 좋은 마을의 동민으로서 격대교육에 관한 연구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첫째, 격대교육 필요성

둘째, 격대교육 활성화 방안

셋째, 시니어 선생님 활동 사례 연구

넷째, 격대교육 제도화 방안과 유로(幼老)복합시설 건립 제안

[그림 3] 연구의 목적



연구에서는 시니어 교육을 통한 격대교육의 필요성과 장단점을 밝히고 이를 통해서 격대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사례분석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로(幼老)복합시설 건립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란 말처럼 아이들에게 가정 내에서 보이는 부모의 모습은 매우 중요하다. 양육자의 지속적인 확인과 격려는 아이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느끼게 해주며 가정 내에서의 가르침은 정서함양에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부모들에게 ‘아이들과 소통하는 법’, ‘100점 부모 되지 말자.’ ‘감정 수업’ 등 아이들 감정을 읽어 주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로 부모교육이 선행되어야 함

은 매우 중요하다.

요즈음 우리 유치원에 두드러지는 현상은 아이들의 등·하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연수, 그리고 참여 수업에 외할머니나 친할머니가 엄마를 대신하여 참석하는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어느새 바쁜 부모를 대신해 조부모가 손자녀 교육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이전에는 맞벌이하는 부모를 대신해 가정에서 영유아 손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연령이 확대되고 있으며, 손자녀의 교육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현장 체험도 시켜주는 등 조부모에 의한 손자녀의 격대교육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제는 부모교육과 함께 조부모의 교육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핵가족화로 인한 맞벌이 가정의 현실은 자녀를 온종일 기관에 맡겨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녁 시간에 가정으로 돌아간다 해도 늘 시간에 쫓기는 엄마는 밀린 가사 일을 하느라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며 정을 나누는 일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부모와의 소통이 원활한 아이들은 사회관계 영역에서 대부분 어려움 없이 소통하며 사교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분리 불안을 겪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내 가족 중심의 격대교육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넓게 가족 해체기의 대안으로 격대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고민을 할 때 마침 TV에서도 ‘신 노년 시대’¹⁷⁾, ‘그들에겐 특별한 것이 있다.’¹⁸⁾라는 격대교육을 주제로 한 방송을 앞다투어 내보내고 있었는데, 현장에 있는 나로서는 매우 공감 가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최근에 격대교육이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은, 아이들의 교육에 부모들은 주로 주변 정보에 의존하여 선택하지만, 조부모들은 아이의 감정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관찰하여 아이가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본 후에 이를 극복하는 동안 시간을 함께한다는 것이다. 물론

17) KBS, 신 노년 시대 4부작,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상징 '58년 개띠'들의 은퇴와 2막을 준비하는 모습을 돌아보고 '신(新) 노년 시대'의 대안을 모색해보는 프로그램

18) SBS 스페셜, 307회 -그들에겐 특별한 것이 있다 - 격대교육(隔代教育)

부모 세대보다 조부모 세대의 교육적 처방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나의 바람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국가가 관심을 두고 격대교육을 바람직한 제도로 안착시킨다면, 함께 살아갈 사회 안에서 필요한 덕목인 도덕성이나 윤리 의식을 갖춘 인재로 성장시키는데 한 발짝 가깝게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전 읽기를 통한 문화 교차적 사상을 바탕으로 퇴계 선생의 ‘안도에게 보낸다.’라는 서책을 통해 격대교육에 관한 문헌 연구를 하고 이에 대한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는 탐구를 하고자 한다. 또한 격대교육에 참여하는 시니어 선생님을 위한 문화교차학적 감정교육의 재교육 방안으로 연구자는 ‘나를 사랑하기’, ‘나와 달라요’, ‘할 수 있어요.’라는 3편의 교안을 구성하였다. 앞으로 시니어 선생님뿐만 아니라 부모세대에게도 감정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격대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을 도출해보고 유로(幼老)복합시설의 건립과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나의 당면한 문제를 고전 속의 논리로 생각해 보면 나도 돕고 남도 도울 수 있다.”라고 조중빈 교수는 주장하였다. 이러한 가르침에 바탕을 두고 나의 체험과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격대교육에 대한 이해의 실마리를 고전 속에서 찾고 그 당위성을 교육 현실과 접목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이 논문은 『안심 논어』와 『성학십도』를 학문적 배경으로 삼아서, 격대교육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소중한 자료로 퇴계(退溪) 선생¹⁹⁾이 손자 안도에게 보낸 125여 통 편지를 수록한 『안도에게 보낸다.』²⁰⁾라는 서책을 통해 퇴계 선생의 교육철학과 조선 시대 격대교육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안심 논어』와 『성학십도』를 중심으로 격대교육의 활성화와 제도화를 연구한다. 더하여 『안도에게 보낸다.』라는 서책을 참고하여 퇴계 선생의 교육철학과 조선 시대 격대교육의 문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유로(幼老) 복합시설의 기본 개념과 그것이 나아갈 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나는 문화교차학과에서 성학십도를 공부하면서 퇴계 선생의 가르침에 깊이 공감하고 마음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 깨달음으로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바뀔 부분이 있다면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 슬플 때나 기뻐할 때, 부모님이 주신 내 몸 귀한 줄 알고, 내 배꼽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 꼭 잡고 내 몸 상하지 않도록 잘 돌보며 나를, 너를 공경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이다. 퇴계 선생의 가르침처럼 나 자신을 기(氣)로 챙기지 않고 리(理)로 챙기니 자명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논리를 알고 챙기려고 하니 내 마음에 평정심이 생기는 것 같다. 조중빈 교수는 학(學)으로 인한 논리를 나 스스로 확인하게 되면, 스르륵 빗장이 풀어지고 자유를 얻은 듯 자신의 마음은 평화를 찾게 된다고 한다.

나의 마음을 두루두루 행복하게 해주는 『안심 논어』와 『성학십도』 그리고 『안도에게 보낸다.』를 본 연구에서는 주요 참고 자료로 삼고자 한다. 특히 『안도에게 보낸다.』라는 책은 논문을 준비하면서 격대교육

19)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7 ~ 1570).

20) 『안도에게 보낸다.』 : 퇴계 선생이 손자에게 보낸 편지.

과 관련된 퇴계 선생의 글을 찾던 중 발견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서 나는 퇴계 선생의 격대교육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공부하게 되었다. 책의 내용은 퇴계 선생이 편지글을 통해서 손자인 안도를 챙기는 내용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예의범절에서부터 학문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언급되고 있다. 손주를 생각하는 할아버지 퇴계 선생의 마음이 글 속에 정(情)으로 드러나는 것을 나는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할아버지와 손자 안도와의 관계가 서로에 대한 깊은 공경심이 배어있음을 느낄 수 있어서 나는 책을 읽는 내내 기분이 좋았다.

퇴계 선생의 가르침은 모든 것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그리고 안도의 의견을 경청하고 편견 없이 애정과 관용으로 대하고, 칭찬으로 의지를 북돋아 주었다. 이러한 퇴계 선생의 가르침은 연구자가 찾던 이 시대에 필요한 격대교육의 장점이 라고 본다.

2. 연구의 방법

연구의 방법은 먼저 『안심 논어』와 『성학십도』 그리고 『안도에게 보낸다.』를 중심으로 한 문헌 연구이다. 그리고 부모세대교육과 조부모 세대 교육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유아교육에 있어서 누리과정 중심의 현행 교육과정과 문화교차학적 감정교육의 차이점에 대해서 연구해 보았다. 더하여 현재의 부모세대교육과 전통적이었던 조부모 세대교육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는 것이다. 또한 현행 유치원 누리과정 중심의 교육과정에 연구자가 문화교차학을 공부하면서 깨우친 감정에 대한 자기 이해를 접목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는 부모세대와 조부모 세대 그리고 현재의 유치원 누리과정과 문화교차학적 감정교육 과정으로 구분해 보았다. 유아교육의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접근해 보는 것이다. 4가지 유형을 활용한 본 연구에서의 분석 틀은 아래와 같다.

[그림 4] 유아교육의 4가지 유형



본 연구에서는 격대교육과 관련한 유치원 교육을 연구하기 위해 크게 4가지 유형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가로축은 부모 세대 교육과 조부모 세대 교육으로 구분하였다. 세로축은 현행 유아교육 방식인 누리과정과 문화교차학적 감정교육으로 나누어보았다. 이를 통해서 연구자는 격대교육과 관련한 유치원 교육을 4가지 유형을 나누어서 유형별로 이름을 만들어 보았다. 유형별로 I은 채움형이고, II는 현실형, III은 미래형, IV는 안심형이다.

I ‘채움형’은 조부모교육과 현행교육이 중심이 된 유형이다.

II ‘현실형’은 부모교육과 현행교육이 중심이 된 유형이다.

III ‘미래형’은 부모교육과 문화교차학적 감정교육이 중심이 된 유형이다.

IV ‘안심형’은 조부모교육과 문화교차학적 감정교육이 중심이 된 유형이다.

제1장에서는 서론으로 연구 동기 및 연구 목적과 연구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 논하였다.

제2장에서는 고전 사서(四書)와 『성학십도』 그리고 『안도에게 보낸다.』를 통해서 격대교육의 사상적 토대를 추론하였다.

제3장에서는 현행교육과 격대교육을 설명하고 격대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문화교차학적 감정교육의 논리적 당위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격대교육의 사례와 유로(幼老)복합시설 건립 제안에 대한 연구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논의에 대한 결론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제2장 ‘격대교육’의 사상적 토대

제1절 사서(四書) 안의 격대교육의 논리

1. “잘하고 있는 거야.”

유아교육의 기본 순서는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으로의 반복과 심화 학습을 통한 아이들 스스로 체험학습이다. 즉, 아이들의 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운 것이 발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다려주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원리를 공자는 『논어』 「학이편」에서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 라고 하였다.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²¹⁾

‘마냥 배우며 사니까 기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²²⁾ 여기서 시습(時習)이란 여기가 천국임을 확인하는 나의 날갯짓으로, 한 날갯짓이 두 날갯짓이 되고 두 날갯짓이 세 날갯짓이 되며 늘 새롭지만(時), 한결같이(習) 기쁨에 요동치는 나의 몸짓을 말한다. 그러므로 유아교육에서도 되풀이하여 연습(習)을 통해 아이들 스스로 몸에 익히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교육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유아교육의 특징 중 하나가 반복 학습을 통해 몸으로 배움을 익히는 것으로 이것이 하나씩 앎을 쌓기는 방식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논어의 학이시습(學而時習)과 현대의 유아교육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유치원의 2018학년도를 잘 준비하기 위해 원장인 나는 교사교육을 하였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유치원은 교육과정과 학사일정, 관찰일지 등등 많은 기본 업무와 함께 소소하게 챙겨야 할 일이 많다. 교육은 두

21) 『논어』, 「학이」, 1장 :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22) 조중빈 역설, 『안심 논어』 (국민대학교출판부, 2017), 25쪽.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교육의 내용은 학부모와의 소통방식, 전화상담 방법, 통학버스 등·하원 예절, 문제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신속 대응 당부, 어려운 질문을 받았을 때는 사실관계 확인 후 신중히 응대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교육이 진행될수록 나와 교사들과의 대화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보다는 학부모와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었다. ‘아이들에게 즐겁고 신나는 유치원 만들자’라는 논의에 더 많은 토의와 시간을 할애해야 함에도 나는 학부모와의 문제 상황이 발생할까 봐 더 걱정하고 있었다.

나와 우리 유치원의 교사들은 신학기가 되면 매년 설렘이 가득해진다. ‘이번에 어떤 아이들이 우리 반이 될까!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비 소집일에 만나 보니까 아이들이 엄청 귀엽던데.....’ 하며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미소가 넘친다. 아이들과 학부모와의 소통에 대한 걱정과 새로운 아이들을 만난다는 기대감이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교차한다.

신학기 초 유치원 신입생 학부모가 원장 면담을 요청해왔다. 입학 상담할 때 나는 아이의 아빠와 상담을 했다. 그리고 예비소집일과 입학식 때 아이의 엄마도 만났다. 그때마다 나는 아이 엄마의 표정에서 ‘참 무뚝뚝하다.’라는 인상을 받았다. 그 부부가 나란히 유치원을 방문하셔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이가 하나라서 그런지, 어떻게 해야 부모 노릇을 잘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혼자서인지 고집도 세고, 뭔가 본인 뜻대로 안 되면 울음으로 표현을 해요.’ ‘저희가 부모 노릇을 잘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신학기가 되면 매년 이런 고민을 한 부모들을 만난다. 대상만 다를 뿐 고민은 거의 같다. 처음 하는 부모 노릇이 안심이 안 되어 ‘잘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부족해서 아이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이 태산이다. 원장으로서 나의 첫마디는 매년 같다.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

요.’ 이 자명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만으로도, 새내기 부모들은 나의 그 한마디에 걱정에서 안심으로 표정이 바뀌게 된다. 그리고 그간의 마음고생을 말해주듯이 두 뺨에는 눈물이 흐른다. 이렇게 오늘도 나는 새내기 부모를 품에 안고 잘하고 있다며 토닥토닥 위로를 건넨다.

‘세 살 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²³⁾라는 속담이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러한 속담들은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의 프뢰벨(F.Froebel, 1782~1852)은 목사의 아들로 한적한 숲속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린이의 본질을 신적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아동관에 더하여 추종적이고 수동적인 교육을 펼쳐나갔다. 그는 페스탈로치의 인격에 감명을 받아 교육에 대한 이념을 키워나갔다. 프뢰벨의 대표적인 저서 『인간의 교육』에서는 교육학 정신은 바로 ‘인간성 교육’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원사가 식물의 본성에 맞추어 비료를 주고 햇빛과 온도를 고려하며 물을 주고 가지치기를 해주게 되면 자연의 내적 법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성장하듯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의 본질에 따라 교육자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²⁴⁾ 그러나 아이들은 환경을 만들어주어야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완전체인 아이들은 본성의 빛을 발하고 있다. 집 안팎을 깨끗이 거두고 웃어른의 부름이나 물음에 응대한다는 쇄소응대(灑掃應對)의 논리로 아이를 챙겨보는 것이 모든 공부의 시작이 될 수 있다.

‘킨더가르텐’²⁵⁾도 이러한 프뢰벨의 교육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는 본래부터 인간은 본래 선하므로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미 순수지선의 아이들에게 어떤 특수한 소질만을 조장하거나 자유로운 활동을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프뢰벨은 어린이의 감정 이해와 그것에 기초하는 교육을 지지하였고 조기교육에는 반대하

23) ‘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어릴 때 몸에 밴 버릇은 어른이 되어서도 고치기 힘들다는 뜻의 속담

24) 프리드리히 프뢰벨(Friedrich Fröebel) 2005, 『인간의 교육』, 양서원.

25) 독일어: Kindergarten→어린이들의 뜰→유치원

였다. 인간교육은 자연의 섭리와 하나가 되도록 자연스럽게 그 본성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이유이다. 그는 불합리하게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하였다. 그래서 그는 교육 방법에서도 어린이가 자기 활동적인 본성에 따르도록 놀이와 작업을 중시하였다.

프뢰벨은 스스로 그러한 자연(自然)의 변화처럼 이미 인간이 가진 보편과 특수성의 완전한 사랑을 알고 있었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일상의 생활교육 안에서 인간교육의 기초를 세우고자 하였다. 인간의 성장 과정과 자연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이치가 같음을 확신하였다.

프뢰벨 교육사상의 공적은 페스탈로치의 교육이념을 형이상학적으로 정화하여 이를 유아교육에 구현한 점에 있다고 본다. 또한 그는 직관적인 페스탈로치의 교육 수단을 예감과 상징을 통하여 대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구성적인 작업을 통하여 직접 아이들 교구를 개발하였다. 즉, 구체적으로 은물과 작업을 통해 그의 교육이념을 유아교육에 실현했다.²⁶⁾ 프뢰벨은 ‘킨더가르텐’ 즉, 세계 최초로 유치원을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은물, 작업, 정원 활동 등 교구와 교육과정을 개발하였기에 그를 유치원의 아버지라고 부른다.²⁷⁾

교육의 성자라고 불리는 페스탈로치(Johann Heinrich Pestalozzi, 1746-1827)는 어린 시절 가난한 사람에게도 친절과 봉사를 베푸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랐다. 의사였던 그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페스탈로치는 평생을 빈민구제와 가난한 아동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더욱 효과적인 아동 교육 방법을 탐구하였다. 그가 추구한 교육 목적은 조화로운 인간성의 발달이었으며, 인간은 사랑을 통해서 본래 자신이 가진 다양한 능력을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을 지지하였다.

루소는 아이의 자연적인 필요에는 부모가 정성껏 반응하되, 아이 스스로 살아갈 힘과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즉, 사람

26) 광노의(1996), 『프뢰벨 생애와 교육』, 양서원

27) 광노의(1996), 『프뢰벨 생애와 교육』, 양서원

을 사랑할 줄 아는 교육,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교육,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전인적 교육관을²⁸⁾ 중시하였다. 인간성의 발달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 교육에 의해 발달될 수 있다고 보았다. 루소의 견해는 쉬운 것부터 완전하게 학습된 이후에 배운 것을 조금씩 덧붙여 가는 학습법으로서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을 배우는 단계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소학(小學)의 쇄소응대(灑掃應對)에서 말하는 논리와 같다고 본다. 결국 인간의 성(性)이란 본래부터 스스로 갖고 있기에 빛을 발하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감정의 이해를 통해 스스로 앎(知)을 챙겨본다는 애기와 같다.

페스탈로치는 자연 속에서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 공동으로 학습할 때야말로 공감과 신뢰에 기초한 아름다운 인간애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교육을 받지 못하던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 학교를 세웠다. 그는 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함께 일하며 서로 배움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하였다.²⁹⁾ 페스탈로치는 어떻게 하면 어린이의 본성 속에서 아이가 본래 가진 다양한 능력을 꽃피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였다. 마치 정원사가 식물을 키우듯이 그는 어린이의 순수한 감정을 자연스럽게 발현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는 어린이의 본연적인 힘은 자연의 법칙처럼 자동으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아이들은 서로 모아서 놓아두면 각자가 원하는 활동을 하고 하는 모습이 관찰되는데 이는 아이 스스로가 교육을 통해 발전하고자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보았다. 이것이 페스탈로치의 ‘자기 활동 원리’이다.³⁰⁾ 또한 그는 어머니와 자녀의 사이에 사랑의 대화를 통한 교육이야말로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어머니를 통한 교육이 인격을 만드는 터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부모와 같은 주양육자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페스탈로치의 교육은 맹자의 사상에서도 발견이 된다. 『맹자』 「공손

28)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2003, 『에밀』, 연암사

29) 광노의(2015), 『유아교육 사조』, 문음사

30) 광노의(2015), 『유아교육 사조』, 문음사

추 上」의 “조장 비도무익 이우해지(助長 非徒無益 而又害之)”³¹⁾라는 글귀가 그것이다. ‘조장 비도무익 이우해지’란 본래 좋은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배움(學)이니 인위적으로 조장하지 말라는 뜻이다. 자연스러움을 강조 하였던 페스탈로치의 어린이 교육 사상을 맹자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가르쳐왔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던 프뢰벨과 페스탈로치의 교육 사상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체험교육을 강조하며 아이들의 발달단계와 연령에 따른 적기교육을 주장하였고 교구와 교육과정을 직접 개발하였다. 그들의 교육이념은 실천을 통하여 유아교육에 실현이 되었다.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프뢰벨은 최초로 유치원을 만들었고 페스탈로치는 노작 교육을 중시하였다. 이점은 현재에도 매우 큰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살펴본 것처럼 동양과 서양의 모든 교육 사상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체험을 통한 자연스러운 터득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2. “기분 좋은 날”

격대교육을 통하여 손자녀와 조부모의 양극(兩極)이 각각이 아니라 서로 교차함으로써 아이들은 뿌리 깊은 나무라 할 수 있는 조부모의 그늘에서 자유롭게 느낌(情) 따라 본성(本性)대로 욕망(欲)을 채기며 성장할 수 있다. 조부모와의 격대교육을 통하여 자기감정을 잘 챙겨 정(情) 따라 산다는 것은 내가 천자(天子)임을 확인하며 다 좋은 세상임을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

31) 『맹자』, 「공손추 上」: 助長 非徒無益 而又害之

‘하늘 몸이 내 몸(性)이며, 그 몸 따라 내가 살 길(道)이라서 살아가는 길을 돌보는 깨우침(敎)이다. 성도교(性道教)는 즉, 몸 따라 산다.’³²⁾ 라는 의미이다. 하늘의 귀한 자로 필연과 자유 안에서 교차함으로 살면서, 사는 세월만큼이나 내 삶을 성찰하고 깨우침을 얻으니, 진정한 자유가 내 안에 있음을 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내 몸을 확인한다는 고전을 통해서도 격대교육의 필요성을 알 수 있게 된다.

격대교육에 관하여 연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인의 문화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우리나라 노령인구는 일본보다 7배나 빠르게 노령화 사회로 진입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의 노령인구에 대한 인식과 변화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비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그나마 노인복지 제도로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유일하며 대표적인 사례일 뿐이다.

어르신들 대부분은 지역의 노인복지회관에서 주로 일과를 보내고 있다. 지역을 벗어나려는 노인들의 나들이 장소로 서울에서는 종로3가 일대가 인기가 있다고 한다. 탑골공원과 주변의 옛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근처의 다방이나 몇몇 여흥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노인들이 몰려들고 있다. 나는 방송을 통해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마음이 무거워졌다.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은 팬스레 눈치가 보여 영화관에 가는 것도, 카페에 드나드는 것도 불편하신가 보다. 세대 간 교류가 적다보니 어르신들만 끼리끼리 모이는 익숙한 그곳이 마음이 편하신 듯하다. 나는 영화 <은교>의 대사가 생각났다.

‘너의 젊음이 너희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이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케이블 방송의 tvN ‘꽃보다 할배’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영되었다. 나영석 PD의 뛰어난 연출력과 각 나라의 대표적인 명소 탐방과 아름다운

32) 조중빈 역설, 『자동 증용』 (부크크, 2018), 17쪽~18쪽.

영상, 그리고 개성이 제각기 다른 노(老)배우들의 여행 체험을 통해 시청자들은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세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문화에서 사람들 각자가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솔직한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었다. 세대 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서로 존중해주며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부러웠다.

우리나라는 많은 부분에서 눈부신 발전을 하였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아쉬운 점이 많다. 세대 간의 정서를 교류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이는 세대 간의 생활과 문화의 분리 현상으로 나타나며, 많은 주류세대 문화에서 어르신들이 배제되고 있음을 뜻한다.

요즘 TV 프로그램에서조차 방송은 젊은 세대 일색으로 편성되어 있고, 출연자들 또한 아이돌 가수들을 비롯한 신세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화면을 통해 원로 배우들을 비롯한 어르신들을 보기가 드문 실정이다. 어떻게 보면 대중문화를 선도해야 하는 미디어에서 오히려 세대 간 분리로 인한 양극화를 더욱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게다가 핵가족화로 인하여 가정 내에서도 조부모와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젊은이들이 어르신을 어렵게 생각하거나 불편해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결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꽃보다 할배’ 시리즈는 가뭄에 단비처럼 세대 간의 조화(和)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방송이었다. 젊은 세대들이 즐겨 보는 프로그램으로도 9주 연속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무엇보다도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바로 어르신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방송에서는 세대가 다른 6명 출연자의 조화(和)가 돋보인다. 소위 나이를 먹어서 잔소리만 늘어놓는 ‘꼰대’로서의 어르신 모습이 아니다. 젊은 사람의 질문이 있을 때마다 어르신들의 체험과 지혜가 돋보인다. 체험과 지혜를 가진 어르신으로서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이 색다른 접근의 방식은 다양한 세대의 공감을 얻게 되어 속칭 ‘꽃할배’는 시청률 1위의 결과로 나타났다. 어르신들은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었다. 그동안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지

해를 묻지 않았다.

나는 격대교육 안에서 시니어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서로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다고 본다. 시니어 선생님들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준다면 공감을 넘어선 감동을 주게 된다. 나는 내 감정이 느낀 대로, 보고 배운 대로 표현하는 ‘감정 배움’이 곧 격대교육의 핵심이라고 본다. 이처럼 각자가 서로 대립이 아닌 교차함으로 살맛 난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다 좋은 세상은 서로 본성대로 살아가는 세상이니 이것은 만물을 살어나도록 돕는 마음 즉, 천지생물지심(天地生物之心)이다.

3. “행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재의 사회는 쉽 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나의 옆 사람과 뒷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조차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자의 편리와 요구대로 삶을 좇아가며 살다 보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없고 배려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각박하기만 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를 들여다보아야 한다.’라는 깨달음이 필요하다. 공자는 『논어』의 「위정편」에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였다.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

‘원하는 바가 법도에 어긋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이다.³³⁾ 공자는 나이와 삶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15세는 학문에 뜻을 둔다는 “지학(志學)”

33) 조중빈 역설, 『자동 중용』 (부크크, 2018), 63쪽.

20세는 젊은 나이기에 “약관(弱冠)”

30세는 비로소 뜻을 세우는 나이 “이립(而立)”

40세는 사물의 이치를 깨우치고 논리를 챙기니

흔들거리지 않을 나이라 하여 “불혹(不惑)”

50세는 하늘의 이치를 챙겨보니 “지천명(知天命)”

60세는 천지 만물의 이치를 깨우치고 관통하니 듣는 대로

모두 이해함이니 “이순(耳順)”

70세는 흔히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

공자의 종심소욕불유구는 좇을 중(從), 마음 심(心), 바 소(所), 하고자 할 욕(欲), 아닐 불(不), 넘을 유(踰), 곱자 구(矩)로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불유구(不踰矩), 법도를 어기지 않았다.’³⁴⁾라는 것이다. 즉 생각이 감정에 솔직하고, 마음이 몸을 따르니 자동으로 이치에 맞는 행동을 하며, 욕심이 앞서더라도 알고 있는 것 챙기게 되어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또한 힘쓰지 않아도 중용을 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중용을 하게 되니, 어느 곳에 가서도 갈등하지 않고 ‘북극성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 못 별들이 그와 함께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돌아가는 것’³⁵⁾처럼 조화(和)롭게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의 나이는 70세라는 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종심(從心)은 마음이 몸을 자동으로 따르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70세가 된다고 욕심이 없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나는 91세의 노모를 모시고 산다. 어머니와 나는 나이가 많다고 욕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자명한 사실을 매일매일 체험으로 확인하게 된다. 다만 욕심으로 인해 일을 그르치거나, 위태롭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욕심이 앞서서 갈등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제는 곧 앓을 챙기고 나면 욕심은 자동으로 수그러들게 됨을 알게 된 것이니 그 결과로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안심이 찾아왔다.

34) 『논어』, 「위정」: 從心所欲不踰矩

35) 조중빈 역설, 『안심 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61쪽.

나는 이처럼 고전을 공부하면서 ‘나를 내려놓다’라는 말의 참뜻을 어느 날 이해하게 되었다. 자포자기가 아닌 긍정의 의미로, 욕심을 내려놓으니, 나 자신이 또렷이 보였다. 마음속 욕심이 사라질 때 진정으로 ‘나를 지킬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나를 지키는 사람이 남을 지킨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공자의 종심소욕불유구는 아이들에게 고전의 진리를 몸소 체험시켜주는 격대교육의 장점이기도 하다.

격대교육을 담당하게 되는 60~80세의 시니어 선생님들은 타고난 능력(德)에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체험한 삶을 아시는 분들이다. 공자의 말처럼 저마다 마음먹은 대로 행동하셔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으실 시니어 선생님이다. 이처럼 살아온 체험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며 지혜를 통한 삶의 태도를 갖추고 계신 시니어 선생님들이다. 이분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격대교육을 제도화한다면,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육아·노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심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시니어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 문화는 노인에 대한 공경과 3세대 이상의 대가족이 함께 사는 것에 매우 큰 가치를 두고 있다. 출산은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증가하여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다세대 콘셉트’ 복합시설물이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시설은 나이가 많은 어르신과 나이 어린아이를 돌봐야 하는 두 가지 필요성을 통합하여 만들어졌다. 두 세대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일본 사회는 ‘세대 간의 결합’을 통하여 현재의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였다. 즉 노소(老少)의 대립이 아닌 교차함(交)으로 한 공간 안에서 어르신과 아이가 함께 나누며 세상을 그대로 살아간다는 이치이다. 또한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것, 못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이러한 복합 시설물 안에서는 새로운 질

서가 생겨난다.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내 아이를 걱정 없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안심 공간이 제공되고, 노인들에게는 아이 돌보는 ‘일거리’가 제공이 되는 효과적인 복지모델이 되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사회인 일본의 다세대 콘셉트 시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도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나는 우리나라도 격대교육을 적용하는 유로(幼老)복합시설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린이와 노인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그 역할을 더하고 힘을 보태고자 한다.

4. “걱정말아요.”

맹자는 호연지기를 기르는 방법으로써 ‘반드시 일삼음이 있되 기필하지 말고, 마음속에 잊지도 말고, 조장하지도 말라’고 주장한다.³⁶⁾ 호연지기(浩然之氣)란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넓고 큰 원기를 의미한다.³⁷⁾

필유사언이물정 심물망 물조장(必有事焉而勿正 心勿忘 勿助長)

공손추가 ‘선생님의 장점은 무엇입니까?’라고 맹자에게 묻자 ‘나는 말을 알며, 나의 호연지기(浩然之氣)를 잘 기른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말을 안다.’는 것은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안다는 뜻이고, 그 말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때 공손추도 ‘말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를 하였다. 그러나 ‘호연지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던 모양이다. 다시 공손추가 ‘호연지기관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맹자는 대답하였다. ‘호연지기는 지극히 크고 굳센 기운으로서 도(道)와 의(義)에 짝하는 기운이다. 이것은 의(義)가 모여 만들어내는 것이니. 행실이 하나

36) 『맹자』, 「공손추 上」: 必有事焉而勿正 心勿忘 勿助長.

3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8.

라도 마음에 만족하지, 아니하면 호연지기가 부족하게 된다.’³⁸⁾라고 하였다. 결국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크고 굳센 기운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부모들은 자식 사랑이 지나친 나머지 ‘나는 우리 아이 재능을 키워줄 거야. 그래서 반드시 성공시킬 거야!’라는 목표를 설정하고(期必) 오로지 자식에게만 몰입한 나머지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집착으로 인해 결국은 아이와 부모가 도리어 상처를 입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부모는 이때 실망을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녀에게 조장(助長)하게 된다. 그러나 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여 자녀와 부모가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한다. 만약 부모의 성장 과정에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내 아이에게만큼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아이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과잉보호가 이루어진다. 이로 인하여 아이가 제때 체험해야 할 것들을 부모가 대신해주거나 그냥 지나쳐버려 오히려 아이의 성장 과정에 걸림돌을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농사꾼이 논의 싹이 빨리 자라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잘 자라나도록 돕고자 한 뽕싹 당겨 뽑았다고 한다. 맹자는 이것이 ‘조장(助長)’이라고 했다. 맹자는 ‘조장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롭다(助長非徒無益 而又害之)’고 하였다.³⁹⁾ 오늘날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수많은 학부모는 이러한 조장에 대한 유혹을 매일매일 받고 있다.

정도를 지나침을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다. 지나치면 부족한 만 못하다는 이야기이다. 자연의 순리를 무시한 채 억지로 아이를 돕는다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씨를 뿌리고 싹이 터서 잎이 생기고 꽃을 피우듯, 이러한 자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연의 순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의 교육 현장에서 나는 학부모들에게 ‘기필(期必)하지 마세요.’라고 당부한다. 그때마다 부모들은 간섭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는 아이

38) 『맹자』, 「공손추 上」: 浩然之氣

39) 『맹자』, 「공손추 上」: 助長 非徒無益 而又害之.

를 방치하기도 한다. 간섭하지 않는 것과 방치하는 것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학부모들에게 ‘잊지 말라(心勿忘)’고 하면 아이들은 ‘조장(助長)’을 받게 된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챙기겠다고 하면서 조장을 시작한다.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보아주고 ‘다 때가 되면 하겠지’라고 믿어주면 될 일인데, 자녀에게만큼은 부모의 욕심이 앞서게 된다.

‘조장(期必)’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자라남을 돕는다’는 말이지만, 이것은 ‘순리에 어긋나게 억지로 돕는 것’을 의미한다. 태어나면서부터 천자(天子)인 아이들이 자기 몸 소중한 줄 알고, 자기감정을 잘 챙겨 느낌(情) 따라 자유롭게 사는 것이 본성(本性)대로 잘사는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진정으로 내 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음이 조급하여 조장하게 되는 부모보다는 조부모의 여유로운 삶의 연륜과 체험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미 오랜 삶을 통하여 지혜를 체험하신 조부모들은 젊은 부모보다 조바심이나 편견 없이 아이들을 대할 수 있다. 시간의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아이들의 천성(天性)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스스로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격려해 줄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맹자의 말처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순리대로 꾸준히 부모로서 노력하고 아이에게 집착하지 말고, 방관하지도 않는 ‘중용(中庸)’의 자세가 필요하다.

5. “뿌리 깊은 나무”

『예기(禮記)』, 곡례(曲禮) 上편에 보면 ‘군자는 손자는 안아주지만 아들은 안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있다.⁴⁰⁾

군자포손불포자 차언손가이위왕부시 자불가이위부시
(君子抱孫不抱子 此言孫可以為王父尸 子不可以為父尸)

손자는 할아버지의 시동이 될 수 있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시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며, 위와 같은 말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조부모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한 내용이다.

공자는 슬하에 공리(孔鯉)라는 아들과 딸 하나를 두었다. 어느 날 제자 진항(陳亢)이 공리에게 ‘그대는 특별한 가르침을 받는지요?’라고 물었다. 백어는 ‘특별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공리가 뜰을 지나가고 있는데, 공자가 ‘시를 배웠느냐?’고 물으셔서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랬더니 공자가 ‘시를 배우지 않으면 대화에 제대로 응할 수 없다’고 일러주셔서 공리는 시를 공부했다고 답하였다. 또 다른 날 공리가 뜰을 지나가고 있는데, ‘예(禮)를 배웠느냐?’고 공자가 물어서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더니, ‘예를 배우지 않으면 제대로 처신할 수 없다’고 일러주셔서 ‘예를 공부했습니다’라고 공리가 대답하였다고 한다. 이를 들은 진항은 혹시나 공리에게만 특별한 가르침을 주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으나, ‘시(詩)와 예(禮)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군자가 자기 자식과 거리를 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君子之遠其子)’라고 말하였다. 이것이 한 가지를 묻고 세 가지를 알게 되었다는 문일득삼(問一得三)의 이야기이다.⁴¹⁾

정원을 종종걸음으로 지나가다가 아버지 공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이

40) 『예기(禮記)』, 「곡례(曲禮)」 上 88쪽.

41) 『논어』, 「계씨(季氏)」 13장.

야기를 그대로 묘사한 고사성어가 ‘과정지훈(過庭之訓)’이다. 부모가 자연스러운 기회를 틈타 자식을 교육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맹자는 ‘아버지와 아들은 세(勢)가 통하지 않는 까닭에 올바른 가르침을 통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이로써 서로 해치게 된다.’는 이유로 아들을 바꿔서 가르치게 되었다고 한다. 이를 역자교지(易子教之)라고 한다.⁴²⁾

경상북도는 이와 같은 인식으로 '할매할배의 날'을 지정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 간의 소통과 관계 맺음을 장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의 종교 및 여성단체를 비롯하여 다양한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교육부의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성품과 역량을 갖춘 할머니와 할아버지들 간의 격대교육을 장려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실천을 바탕으로 새롭게 전통교육의 장을 열고 있다.

우리 교육은 늘 사람다운 사람이 우선이었다. 올바른 인성을 기반으로 창의성과 지식, 기술 등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교육의 변하지 않는 목표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인성교육이 입시 경쟁에 밀려 등한시 되었고 개인의 성과만을 중시하였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폭력이나 자살과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들은 늘어만 가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다시 인간 중심의 전통교육을 부활시켜야 한다. 나는 더하여 문화교차학적 감정에 대한 배움을 접목하여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본다. 자기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이해만이 다른 이의 감정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이라는 문화교차학적 사상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미래사회의 인재는 협업이나 의사소통 능력 등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인성교육으로부터 만들어진다. 즉 전인적 교육을 통한 인성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 미래 교육의 핵심이다.⁴³⁾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출산 후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42) 『맹자』, 「이루 上」, 제18장.

43) 『매일신문』, 2018. 7. 5.

아이를 유기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자식의 앞날을 책임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앞으로 겪어야 할 수많은 경쟁 속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으로 자녀들과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모두가 나는 혼자라는 소통의 부재가 낳은 비극이다.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가정 내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격대교육이 이루어졌다. 다자녀 가정이 많았던 전통사회는 손자녀의 교육을 대부분 조부모가 담당했었다. 손자녀는 조부모 무릎 가까이에서 생활하며 일상생활에서 몸소 실천하는 조부모의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세상을 살아가는 예의범절과 지혜, 어른 공경과 가문의 전통을 배우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은 올곧은 성품을 지닌 아이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 가정에 어른이 계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든든한 마음을 갖게 하는데, 조부모가 지원군으로써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 주시니,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잘 기를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조부모가 아이를 가르치는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부모들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배우고 깨우치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부모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된다. 이처럼 부모와 손자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지혜까지 가르치게 되는 격대교육은 단순한 전통교육의 계승에 머무르지 않는다.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 구조와 핵가족화의 현상 속에서 격대교육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밑바탕이 된다. 아울러 전통적 교육을 통해 그동안 등한시되었던 인성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이 형성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현 실정에 맞는 격대교육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제도화하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격대교육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4장에 이러한 각 분야에서의 격대교육 활용의 문제가 다루어진다.

제2절 성학십도 안에서 격대교육의 논리

1. “순수지선의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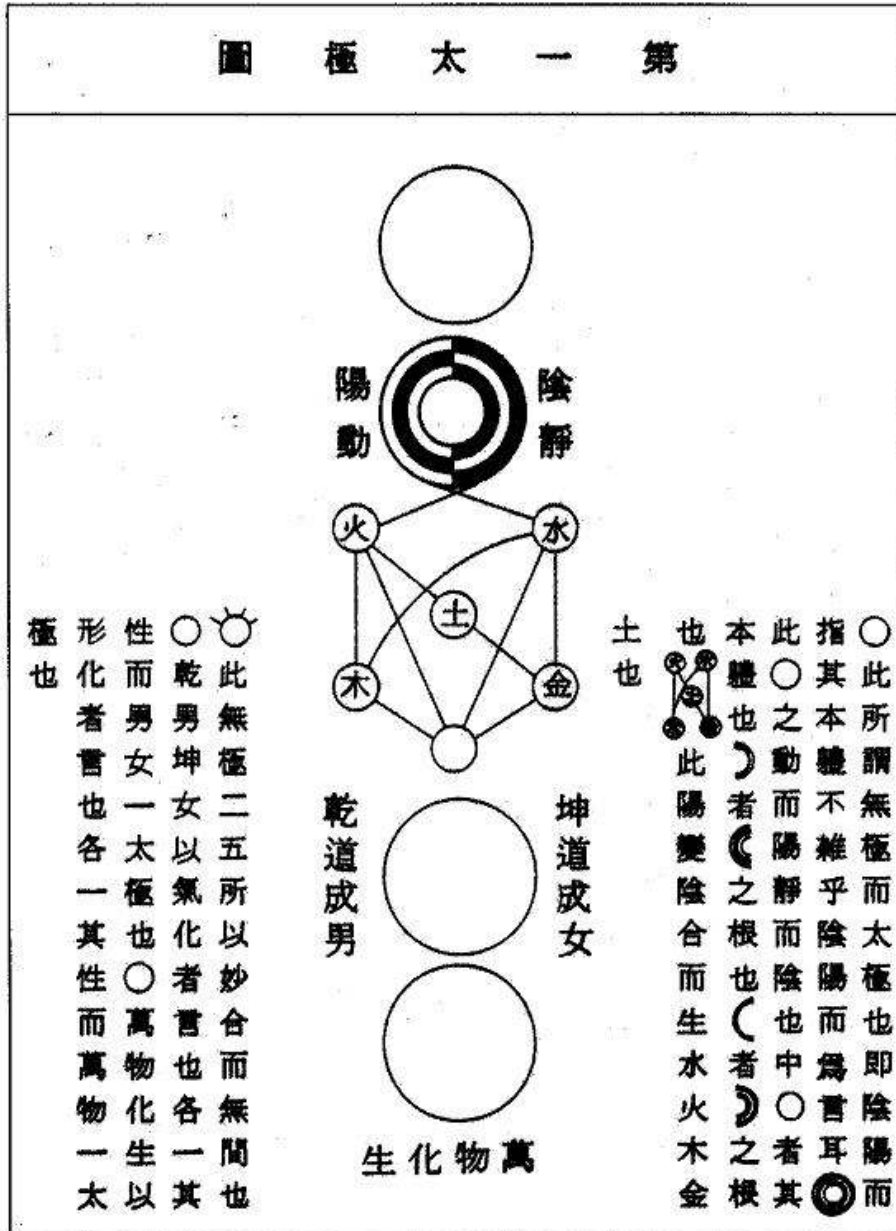
태극도는 생(生)에 대한 이야기이며, 우주가 순수지선지성(純粹至善之性)으로 낳는 꼭 찬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무극이면서 태극이 움직여 천지창조가 생(生)하니, 오직 사람만이 음양오행 가운데 빼어난 기를 받아 영묘하여 순수하고 지선 한 본성이다. 태극도에서 위대한 인류 탄생의 서막과 함께 순수지선인 사람이 곧 태극이며 나와 우리 그리고 우주의 삼라만상이 존재 원리가 같음을 알게 되었다.

매주 목요일이면 우리 유치원의 아이들과 숲에 간다. 처음에는 곤충들과 지렁이, 거미줄을 무서워하고, 숲에서의 놀이를 불편해했던 아이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를 체험하는 동안 어느덧 흙과 자연물, 야생식물들, 곤충들과 친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나무에 올라가거나 밧줄 놀이, 소꿉놀이, 그네 타기 등 숲에서의 활동이 친숙해지며, 자연물을 이용한 창의적인 조형 활동을 하며 아이들은 숲에서의 놀이를 즐거워한다. 특히나 비나 눈이 내리는 날이며,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더욱더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낯은날에는 대부분의 아이는 부모님과 집 안에서 놀이를 하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숲 활동을 통해 얻은 큰 변화는 자연과 인간과의 순환 속에서 자연이 주는 고마운 것들을 지속해서 누리기 위해 인간이 자연보호를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자연에 대한 아이들의 이러한 이해는 삶의 커다란 수확이 된다. 어느 날, 아이들이 알록달록 예쁜 바람개비를 만들었다.

“바람개비를 어떻게 돌아가게 할까요?”

“바람이 불어야 해요.”

[그림 5] 제1 태극도



출처: 성학십도 제1~제10의 그림은 유영관(국민대학교 문화교차학 박사과정)이 정리하
여 제시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바람이 있어야 돌아가는 바람개비를 통해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자연과 조화로움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체험은 아이들에게 인간과 자연이 하나임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우리는 귀한 존재이며, 나 아닌 다른 사람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가게 한다.

우리가 모두 경(敬)하면, 이치가 밝아지고 평온하게 되어 길(吉)하다. 보통의 나는 다른 사람을 불편해하고, 굳이 가까워지고 싶지 않았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어 즐거운 삶이었다. ‘틀리다’와 ‘다르다’는 뜻은 엄연히 다름에도 두 개의 동사를 혼동해서 쓰는 것처럼, 나와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한다고 해서 적대시까지는 아니더라도 타인을 멀리했던 나 자신이 소인(小人)이었음을 반성하게 된다.

늘 웃고 살면 웃을 일이 생기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면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한다. 나는 유치원의 월요 조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길 바란다면, 남의 말을 먼저 잘 들어 주어야 해요.” “또 내가 즐겁게 놀이를 하고 싶다면 친구를 배려할 줄 알아야 해요.” “내가 칭찬받기를 좋아한다면, 늘 고마워요, 감사해요를 말할 줄 알아야 해요.” “예, 원장 선생님.” “이번 주도 많이 웃는 한 주 되세요.”

우리 아이들이 성인(聖人)이다. 순수지선의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완전한 사랑과 본성 안에서 빛을 발하고, 친구들과 정(情)을 나누며 자기감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시니어 선생님은 다양한 체험과 감정 배움으로 누구보다도 아이들의 감정을 잘 이해해줄 수 있으니 이런 점에서도 격대교육은 안심되는 제도이다.

2. “사랑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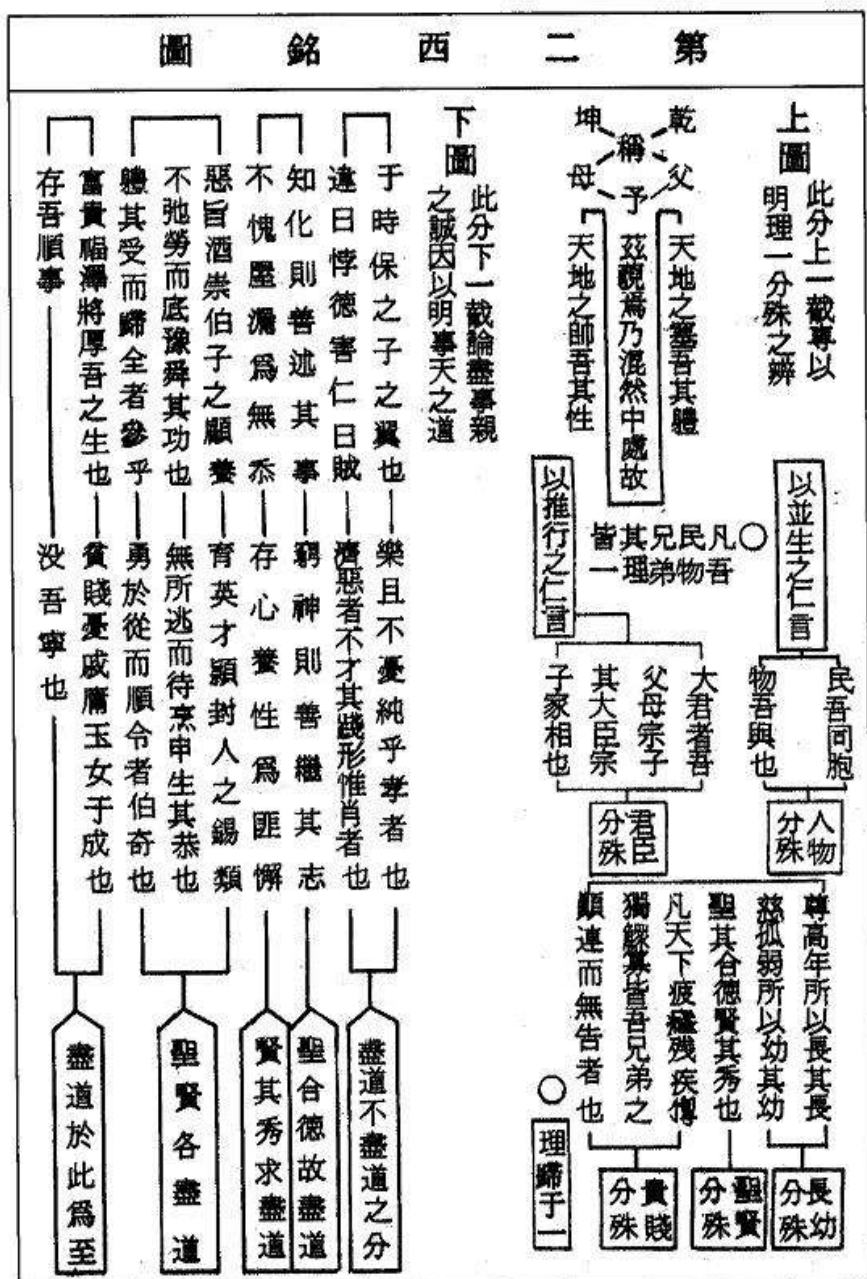
성학십도의 서명도(西銘圖)를 공부하면서 리일분수(理一分殊)⁴⁴⁾의 원리와 월인천강(月印千江)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리일분수란 마치 달은 하나이지만 그달이 호수와 강과 시냇물에 담겨 무수한 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내 안에도 리(理)가 있다. 이는 성즉리(性卽理)이며, 인간의 본성은 리(理)이고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이치는 하나라는 자명한 사실을 나 스스로 확인하니 즐거워지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어느 것 하나 헛것이 없이 소중하고 귀한 사랑을 받고 태어난 순수지선임을 서명도는 다시금 알게 해준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첫째 날 어둠 속에 밝은 빛을 주시고
둘째 날 하나님이 푸른 하늘 만드시고
셋째 날은 풀과 채소 맛있는 과일 주셨죠
넷째 날 하나님이 해와 달과 빛난 별들을
다섯째 날 새들과 물고기를 주시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다스리며 관리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요즘 미투 운동이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다. 이미 있는 사실들이 하나둘씩 허물을 벗고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다. ‘죄는 미우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 ‘내 죄를 회개(是非之情)하면 용서’ 해주신다고 하나님도 말씀하신다. 그러나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믿는다.

44) 『성학십도』, 「제2 서명도」: 理一分殊.

[그림 6] 제2 서명도



용서(容恕)에서 용(容)은 얼굴용, 받아들일 용, 용서할 서(恕)는 같을 여(如), 마음 심(心)으로, 너와 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순수지선이며 천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서(恕)라고 생각한다. 공자께서도 평생 가슴에 담고 실천해야 할 덕목으로 서(恕)를 말씀하셨다.⁴⁵⁾

이치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됨은 길(吉)하고, 모르면 흉(凶)하다고 했다,⁴⁶⁾ 영생의 이치를 안다면 삶을 중단하지 않고 힘들을 극복하고자 한다. 사람은 모두가 소중하기에 하늘(父母)에서 주신 형상대로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신생의 공손함(恭)⁴⁷⁾이나 부모님이 주신 몸 그대로 온전히 지켜 돌아간 증삼⁴⁸⁾ 고사에서 보듯이 그들은 모두 효자였다.

나의 생명의 원리와 영생의 구조(理一)만 알면(仁) 내가 사는 것이라서 각자 사는 대로 살면 되는 것(分殊 = 義)이니, 인(仁)을 알고 의(義)를 행(行)하면 인지 체(仁之體)이며 성인이라고 했다. 이제는 인간의 기대수명이 100세도 훌쩍 넘어 120세를 살 수도 있다고 하는 세상이다. 어쩌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주장도 곧 나올 것 같다.

나는 교회에 다닌다. 목사님께서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첫째는 하나님(父母)이 주신 형상대로 사는 것이라고 하셨다. 신생과 증삼의 고사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둘째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형상인 것처럼 이웃도 그러하기 때문에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⁴⁹⁾고 하신다. 내가 단 하나밖에 없는 귀하고 소중한 것처럼 이웃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중용』 12장의 군자지도 비이은(君子之道 費而隱)에서는 ‘군자의 도는 부부에서 시작하지만, 천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⁵⁰⁾ 한다. 군자가 세상 살아가는 도(道)는 세상만사에 없는 곳이 없지만 숨어있어서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⁵¹⁾ 이는 리일분수(理一分殊)의 이야기와 맥락을 같이

45) 『논어』, 「위령공」: 其恕乎 己所不欲 勿施於人.

46) 『성학십도』, 「제1 태극도」: 無極而太極 「제2도 서명」: 理一分殊.

47) 『성학십도』, 「제2 서명도」: 無所逃而待烹, 申生其恭也.

48) 『성학십도』, 「제2 서명도」: 體其受而歸全者, 參乎.

49) 마태복음 22장 39절.

50) 『중용』, 12장: 君子之道는 費而隱

51) 조중빈 역설, 『자동 중용』 (부크크, 2018), 91쪽.

한다.

서명도는 건칭부(乾稱父), 곤칭모(坤稱母) 여자막언내혼연중처(予茲藐焉乃混然中處)⁵²⁾로 아버지인 천(天)과 어머니인 지(地)의 사랑 결과로 내가 있으니 나는 곧 하늘 몸이다. 그러므로 나와 우주와의 존재론적 이치가 하나임을 알게 된다. 맥락을 같이하여 서명도는 인간의 인의예지(仁義禮智)와 천지(天地)의 원형이정(元亨利貞) 또한 근본 이치가 같음을 이야기한다. 즉 인(仁)과 원(元)은 모든 생명의 바탕이며 만물을 낳는 마음자리이다. 예(禮)와 형(亨)은 논리(순서)를 뜻하며, 의(義)와 이(利)는 시시비비(是是非非)를 잘 가려서 이로움을 준다는 뜻이다. 지(智)와 정(貞)은 지혜이고 곧음을 말한다.

한겨울의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파에 봄이 올까 싶지만, 입춘이라는 절기가 오면 며칠이 지나면 날씨가 바뀌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던 나무들은 봄(元)의 시작과 함께 새 옷을 입는다.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천지의 삼라만상과 더불어 나의 옷차림새도 같이 바뀌어 간다. 조장(助長)하지 않아도 계절은 바뀌고 계속된 한파에 움츠려있던 몸과 마음도 따스한 햇볕과 포근해진 날씨 덕분에 한결 가볍고 여유로(幼老)운 마음을 갖는다. 원형이정(元亨利貞)의 자동 순환이 주는 행복감이다. 이처럼 사랑의 이치(愛之理)로 태어난 몸(仁之體)으로 순수지선인(仁=天地生物之心)⁵³⁾ 아이들에게 부모는 언제 커서 제 몫을 할까 싶어 조바심으로 서둘러 이것저것 배우게 하고 조장을 한다. 하지만 때가 되면 다양한 몸짓으로 자동으로 알아서 스스로 다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조부모는 아이들을 닦달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하고 칭찬하며 지금 잘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자신감을 심어준다.

또한 자신을 잘 챙기고 잘 돌보는(仁之用)⁵⁴⁾ 사람이 남도 잘 돌본다는 사실과 내가 소중하면 남도 소중하고 자신에게 어질게 대해야 남에게도

52) 『성학십도』, 「제2 서명도」: 乾稱父 坤稱母 予茲焉乃混然中處

53) 『성학십도』, 「제7 인설도」: 所謂生之性, 愛之理, 仁之體也

54) 『성학십도』, 「제7 인설도」: 所謂性之情, 愛之發, 仁之用也

어질게 대하는 恕(관용)의 마음이 생기게 된다.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생각을 챙기면 갈등도 미움도 없다. 나와 다름을 틀림이라고 잘못 생각하게 되면 삶이 참 복잡해진다.

내가 좋아하는 남산 순환도로에서 나는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한다. 매일 만나는 남산 순환도로이지만, 하루하루가 기대되고 새롭다. 사계절의 변화를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기도 하고, 늘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설레게 하는 그런 곳이다. 노란 개나리와 꽃분홍색 진달래가 봄을 알리면 머지않아 형형색색의 갖가지 예쁜 꽃들과 초록의 나무들이 어우러져 숲을 이룬다. 조깅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싱그러운 아침을 여는 여름이면 그늘을 찾아 더위를 피하는 사람들의 수다가 정겨운 곳이다. 붉게 물든 단풍들이 온 산을 뒤덮고 떨어진 낙엽 사이로 보이는 쪽 뺨은 오솔길의 풍경에 탄성이 절로 나오는 것은 가을의 풍경이다. 사람들의 인적이 드물어지고, 눈 덮인 남산이 눈이 부서 새 눈을 뜨고 엉금엉금 기어가기도 하는 남산 순환도로는 겨울의 모습이다. 남산의 사계절 모두는 사랑스러운 자태를 가진다. 남산은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 동네이다. 다양한 한국의 시민들과 많은 외교관이 함께 남산에 살고 있다. 각국의 대사관들이 밀집되어 있어 세계인이 함께 있는 세계화한 곳이다.

경리단 길을 따라가다 보면 있는 그대로의 전통가옥을 그대로 살려 재미있는 가게들로 변신한 곳이 즐비하다. 이곳은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발걸음이 넘쳐난다. 조금 더 발걸음을 옮기면 세계 여러 나라 음식점들과 그들의 문화 등을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이태원이 있다. 이곳은 내가 늘 이방인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이색적인 곳이다. 이처럼 다양한 특색과 아름다운 스토리를 품고 있는 남산 순환도로를 나는 좋아한다.

아름다운 남산의 자연은 국적은 각기 다르지만 다양한 사람 모두를 더없이 귀한 존재로 품어주고 있다. 자연과 사람, 어린이와 노인 모두 멋진 하모니를 이룰 수 있으니 남산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두루두루 느끼게 해준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자연은 자연대로의 규칙(元亨利貞)을 잘 지켜냈기 때문에 이루어낸 결과이다. 사람도 인

의예지(仁義禮智)를 품고 배움을 통해 앎과 깨달음을 실천한 결과일 것이다. 자연이나 사람 모두 서로 공경하는 남산이 주는 삶의 행복이다.

남산의 자연처럼 위와 같은 이치를 체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조부모는 손자녀가 있는 그대로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자동으로 인정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격대교육에서도 조부모는 조급함이나 불안감이 없이 여유로운 가운데 손자녀를 돌볼 수 있다.

3.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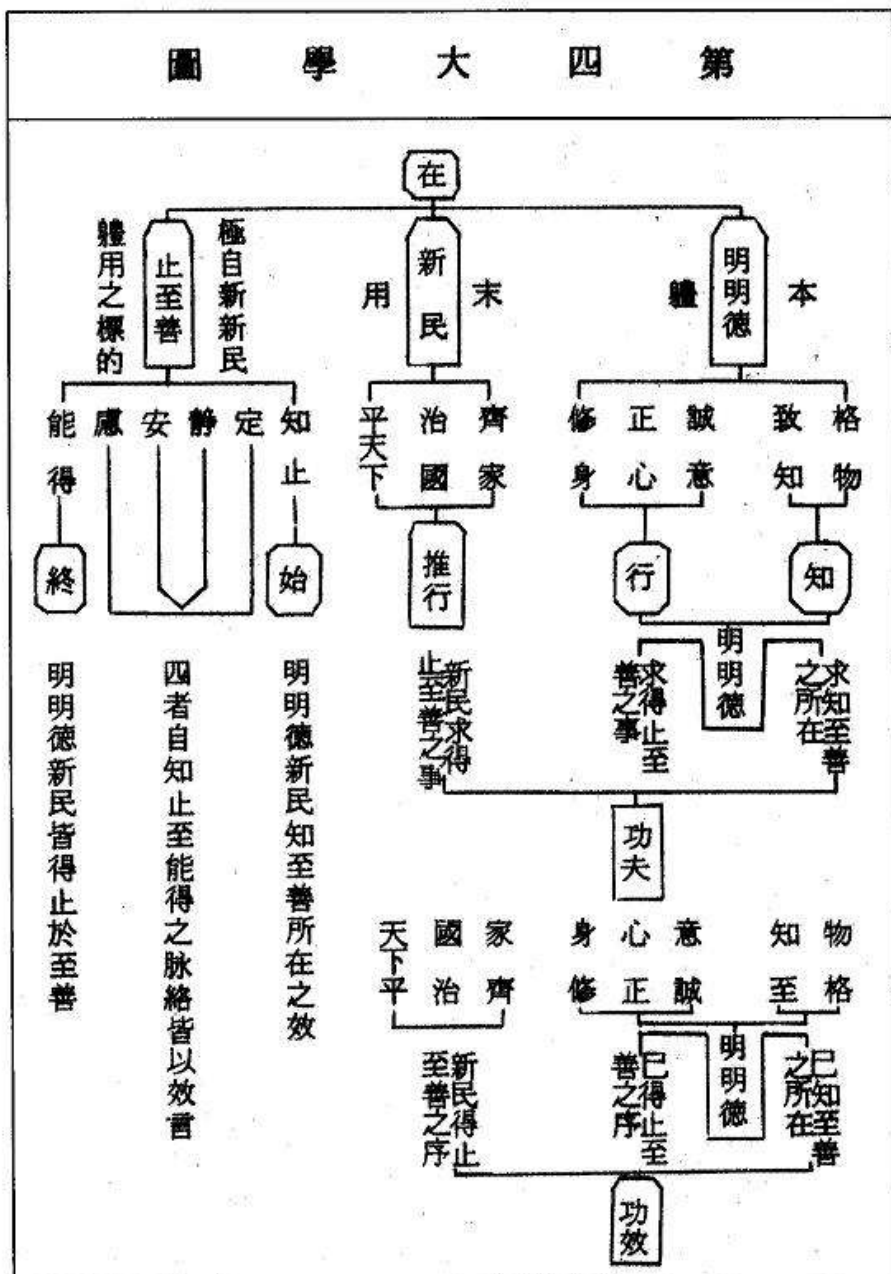
유교의 사서(四書) 가운데 하나인 『대학』(大學)에는, “물유본말(物有本末)하고 사유종시(事有終始)하니 지소선후(知所先後)면 즉근도의(則近道矣)”라는 말이 있다.⁵⁵⁾ ‘만물에는 근본과 끝이 있고 일에는 마침과 시작이 있으니,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안다면 도(道)에 가깝게 된다’라는 뜻이다. 모든 사물에는 질서가 있음을 이르는 말로 나는 이해한다.

이를 유아교육의 관점에서 본다면 물유본말의 본(本)에 해당하는 것이 학(學)이며 그 의미는 배우며 알아간다는 의미이다. 말(末)의 뜻은 내가 학(學)을 통해 이미 알고 있다.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어서 결국 내 몸이 하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 그러므로 유아교육에서의 본질은 학(學)의 핵심인 논리를 챙겨보는 것이 된다.

조부모는 아이를 키우는 학(學)의 논리를 체험으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다. 이미 자녀를 키워보셨기 때문에 이런 한 논리를 몸소 챙기신 조부모는 손자녀들이 다 때가 되면 할 일을 한다는 자명한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부모는 손자녀를 대함에 있어서 부모보다 조급해하거나 억지시킴이 적을 수밖에 없다. 더 넓은 시각으로 손자녀의 미래를 위하여 부모보다 더 인내하고 칭찬하며 기분을 북돋아 주는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아이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조부모들은 아이를 편안하게 돌봐 주신다.

55) 『대학』, 「경 1장」: 物有本末.

[그림 7] 제4 대학도



KBS 인간극장에서 방송된 ‘치매 어머니와 7남매 이야기’ 편을 시청하였다.⁵⁶⁾ 방송에서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가 되신 어머니는 경동시장 안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며 7남매를 길러냈다. 고생만 하신 82세의 어머니는 안타깝게도 치매 상태였다. 방송에서는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를 돌보는 자식들의 효심 깊은 이야기와 형제간의 사랑이 아름답게 그려졌다. 치매 어머니의 자녀들은 가업을 이어받아 열심히 일하여 반찬 공장까지 운영할 만큼 성공한 모습이었다. 어머니는 그런 모습에 흐뭇해하신다.

치매 어머니와 자녀들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한식당을 연 막내아들을 위해 비행기를 타는 모습이 그려졌다. 치매 어머니는 막내아들의 식당 개업 고사를 준비하기 위한 물품까지도 손수 챙기셨다. 치매 어머니는 막내아들이 개업한 가게 곳곳에 정성껏 두 손을 모아 기도하며 고수레하였다. 치매를 앓고 있음에도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정성은 변함이 없었다. 치매이신 어머니는 방금 있었던 일도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 하신다. 조금만 있으면 같은 말을 다시 묻고 또 묻는다. 막내아들의 이야기에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들은 이렇게 어머니에게 감사한 수많은 날 중에 오늘 하루를 잤다.

“제 아들이 이제 4살인데, 수없이 엄마, 아빠를 불러대요. 제가 저 나이에 얼마나 많이 우리 엄마를 불러댔겠어요. 그래도 귀찮다고 하시지 않고 들어주신 우리 어머니예요. 지금 아들아, 딸아 수없이 부르시는 거 짜증 내지 말고 들어드려야지요.”

‘효녀시네요.’ 90세 노모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내가 종종 듣게 되는 말이다. 나에게서는 정말 가당치 않은 말이다. 내 엄마이고 같이 살 수 있으니 함께 지내지만, 특별히 잘해드리는 거 하나 없는 노모의 막내딸은 늘 반성의 하루하루를 보낸다. 귀가 잘 안 들리시니 영똥한 말씀도 하시고, 재차 묻는 일이 많아지니 어떨 때는 짜증도 난다. 그런데도 ‘엄마’를 떠올

56) KBS 1TV , 인간극장 : ‘잊지 말아요. 엄마’

릴 때마다 나는 가슴이 먹먹해진다. 지난 추석에는 캐나다의 작은 언니 집에 다녀왔다. 엄마가 언제 또 캐나다에 가실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터라 가신 김에 언니 가족들과 로키산맥을 여행하기로 하였다. 로키산맥 기슭의 벤프라는 지역을 다녀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잘 다녀가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시는데, 나는 어머니의 공허한 눈빛을 옆에서 보니, 갑자기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안 계시는 날이 올까 봐, ‘잘 헤드려야지’ 수없이 다짐하면서도 오늘도 나는 또 반성할 일을 만들고는 한다.

내가 몹시 피곤하던 어느 날이었다. 피곤한 몸을 일으켜 나가보니, 어머니께서 목욕 중이셨다. 나는 내친김에 어머니의 길어진 머리카락을 다듬어 드리고, 비누에 거품을 내어 사해 소금을 섞어 온몸을 문질러 드리며 몸에 뭍은 각질을 제거해 드렸다. 어머니는 ‘지난달 병원 이후 처음 목욕하는 거야. 간지러워 죽을 뻔 했어’라고 말씀하시며 좋아하신다. 난 잠은 설쳤지만, 엄마 덕분에 몸을 씻더니 잡념이 사라지고 머리는 오히려 개운해졌다. 오래전 어머니도 나를 수없이 씻겨 주시며 개운해 웃는 어린 나를 보며 지금의 나처럼 기분이 좋아지셨을 것이다.

이처럼 인간 극장에서의 치매 어머니의 막내아들 식당 개업 사연과 나와 어머니의 목욕 이야기처럼 격대교육에서도 어린이와 시니어 선생님 간의 멋진 하모니가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들과 시니어 선생님의 격대교육에서도 물유본말의 질서를 체험하게 된다.

4. “다 좋은 세상”

성학십도의 제5도 백록동규도(西銘圖)를 공부하면서 궁리지요(窮理之要)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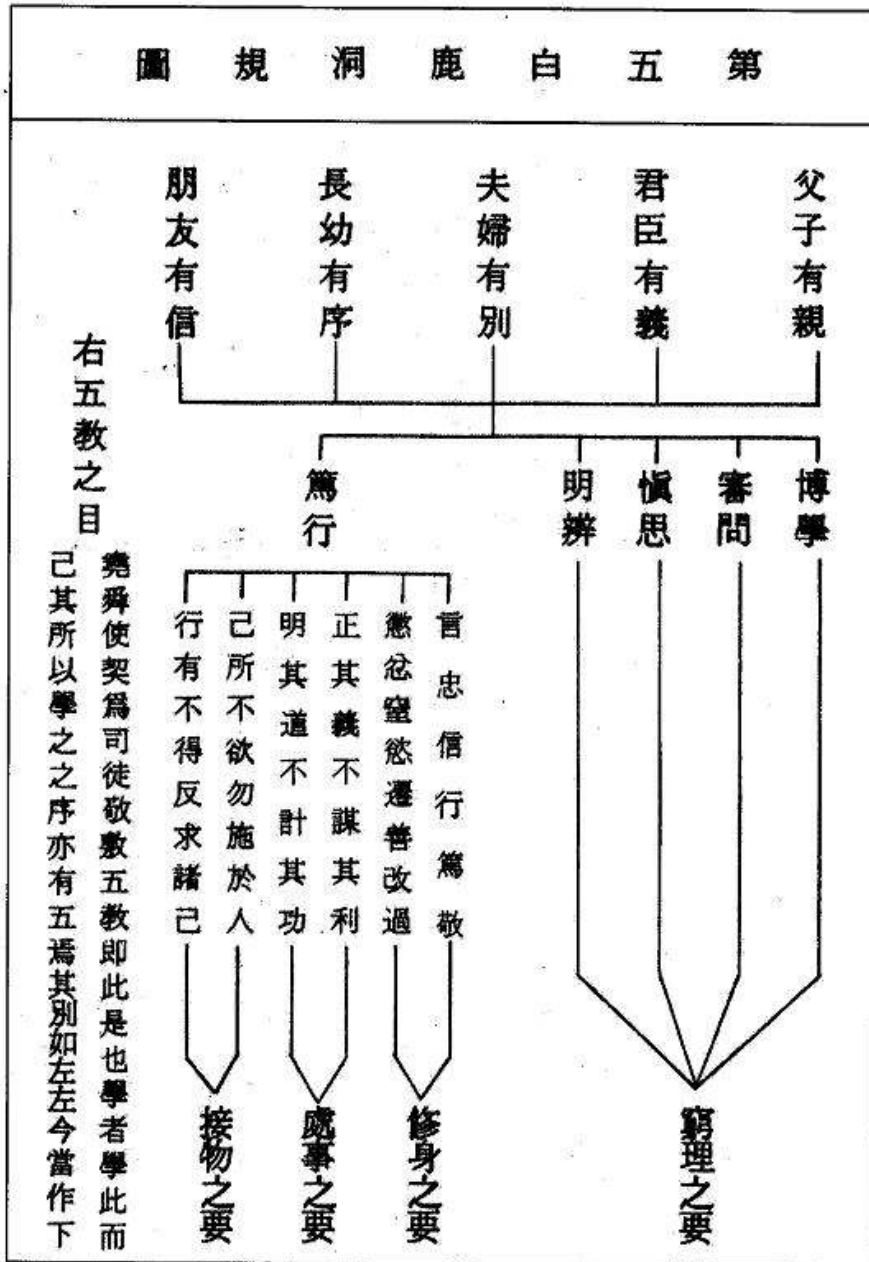
단풍이 절정인 2016년 시월에 나는 ‘소수서원’에 갔다. 고즈넉한 소수서원의 풍경은 마치 어디에선가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세상의

소음과는 단절된 산새 소리와 바람 소리, 그리고 예쁜 낙엽이 살짝 띄어진 시냇물 소리에 절로 마음이 평온해졌다.

현대의 무한경쟁 사회는 사람의 됴됨이보다 소위 잘난 사람이 쓰임 받고 대접받는 구조이다. 결과만을 중하게 여기는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서는 어느 순간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밀려나는 소외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무한경쟁과 결과 중심의 사회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병폐 현상이다. 21세기가 들어서면서 세계가 바라는 인재의 기준이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대입을 위한 수능이나 취업만을 위한 스펙 쌓기에 몰두하는 사람을 원하는 세상이 아니다. 직장 문화에서도 혼자만이 아닌 주변 동료들과의 소통과 협업을 중시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업무 능력에서도 조직적이고 수직적인 위계질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인의 창의성과 동료와의 공유 능력을 중요시하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개인의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 평가의 중요한 역량으로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과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을 수도 있어야 한다. 더하여 기본적인 윤리 의식이 있어야만 인재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나는 종갓집 막내로 태어났다. 여느 집처럼 내가 자랐던 우리 집은 어머니가 아버지를 하늘처럼 공경하는 가부장적인 분위기였다. 어머니는 육남매의 자식들에게도 예의범절을 엄하게 가르치셨고 막내라고 해서 나를 특별히 살갑게 대해주시지는 않았던 것 같다. 집안의 장남이셨던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는 만머느리로서 집안의 대소사를 책임지셨다. 매년 기제사에 명절 차례까지 더해진 공식 의례 행사만 12번이었다. 매달에 한 번은 친인척들로 우리 집은 늘 떠들썩하였다. 서울에 살면서 마당에 한쪽에 가마솥을 걸어놓고 탕국을 끓여 냈던 제사의 기억이 아직도 나는 생생하다.

[그림 8] 제5 백록동규도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집 제삿날이 종종 구경거리가 되고는 하였다. 최근에는 집안 행사에 잠시 잠깐 들어서 얼굴만 보고 헤어지는 것이 다반사이지만, 예전에 우리 집은 지방에 사는 친인척분들이 한 번 오시면 며칠씩 머물러 가시는 숙소이기도 했다. 친인척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였기 때문에 어린 시절 내 방까지 내주는 일이 많았었다. 이처럼 나는 늘 사람들과 함께 비비면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정(情)을 나누며 지내는 일이 여전히 참 좋다.

한국인 남편과 독일인 아내가 강원도 산골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어느 날 방송에서 시청하였다. 남편은 독일 유학 시절에 친절하게 다가온 독일 여인과 결혼하였다.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이주해 온 독일인 아내는 한동안 한국에서 대학교수로 재직했다. 그러나 자신을 돌볼 틈 없이 매일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도시 생활에 염증을 느끼게 되었고 고민 끝에 사표를 내고 지금의 삶을 선택했다고 하였다. 부부는 주중에 강릉 시내의 독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 주말이면 강원도 산골의 산채로 들어와 자연 속의 삶을 체험하고 있었다. 영상을 통해 본 산골의 산채는 너무나 아름다웠다.

독일인 아내는 ‘자연이 우리에게 내어준 게 정말 많은데 사람이 가꾸지 않는다면 자연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요.’라고 말했다. 풍경만큼이나 아름다운 마음씨이다. 처음에는 산골에 들어와서 산다는 말에 남편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다고 한다. ‘동생네가 이곳에 자리를 잡은 덕분에 가족들이 자주 모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곳에 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동생 내외에게 고마워요.’라고 남편의 형제들이 이야기했다. 마치 이솝우화의 ‘해와 구름’ 이야기처럼 해님의 역할을 한 이들 부부의 선한 실천이 집안의 중심점이 되어 이들 가족을 모이게 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인(仁)하고 경(敬)한 삶의 모습이었다.

방송 끝에 독일인 아내가 한 말이 나에게도 참 인상적이었다.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산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 열심히 산다는 말은 잘못된 것 같아요.’라고 말하였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맞다’라고 공감을 하였다. 독일인 아내의 말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근면 성실하다. 그러나 무엇이든 빨리 빨리에 대한 급한 성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국민성 덕분에 우리나라는 IT 강국이 되었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모습은 국제적으로 높은 위상을 갖는 경제 강국인 것이다. 외국에 나가 보아도 한국에 대해서 친근함을 표시하며 한국을 알고 있다는 그 나라의 사람들을 쉽게 접하게 된다. 한국에 여행을 다녀온 사람과 유학을 다녀왔다는 사람도 만날 수 있다. 심지어는 몇 년간 살다가 왔다는 사람도 만날 수 있었다. 이럴 때마다 나는 한국인임이 자랑스럽고 ‘어디서 왔어요’라는 그들의 질문에 ‘한국이요’라고 자랑스럽게 대답한다.

우리의 조상들은 박학(博學)⁵⁷⁾과 자세히 따져서 묻는 심문(審問) 그리고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는 신사(愼思)와 명백히 말하는 명변(明辯)의 이치를 깨닫고 있었다. 나는 이러한 우리의 조상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제는 우리도 빨리빨리 문화에서 벗어나 조금은 천천히 내 삶의 가치를 생각할 때가 되었다. 나의 후손은 더 행복한 나라에서 제 모습 귀히 여기며 여유롭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격대교육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격대교육은 현재의 부모 세대 교육과는 다르게 시니어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여유와 타고난 본성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격대교육은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실천하는 일이다. 부모보다는 조부모의 지혜로움으로 인하여 손자녀는 칭찬과 격려 속에서 자기의 순수지선 본연의 모습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57) 박학(博學)이란 배운 것이 많고 학식이 넓음 또는 그 학식을 의미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8. 연구자는 삶의 시작은 모르는 것을 접하면서, 두루두루 넓게 배우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5. “괜찮아요”

『성학십도』 「제6도 심통성정도」의 적연부동(寂然不動)은 마음의 다스림을 강조하고 있다. 격대교육에서도 적연부동의 마음은 중요하다. 격대교육을 담당하게 되는 조부모는 마음이 고요한 가운데 순수지선의 본성이 드러나고, 사물과 정(情)이 통하여 희노애구애오욕(喜怒哀懼愛惡欲)의 감정이 드러나더라도 악(惡)이 아닌 선(善)의 감정으로 내 감정을 올바르게 챙길 수 있다. 이것이 격대교육이 갖는 장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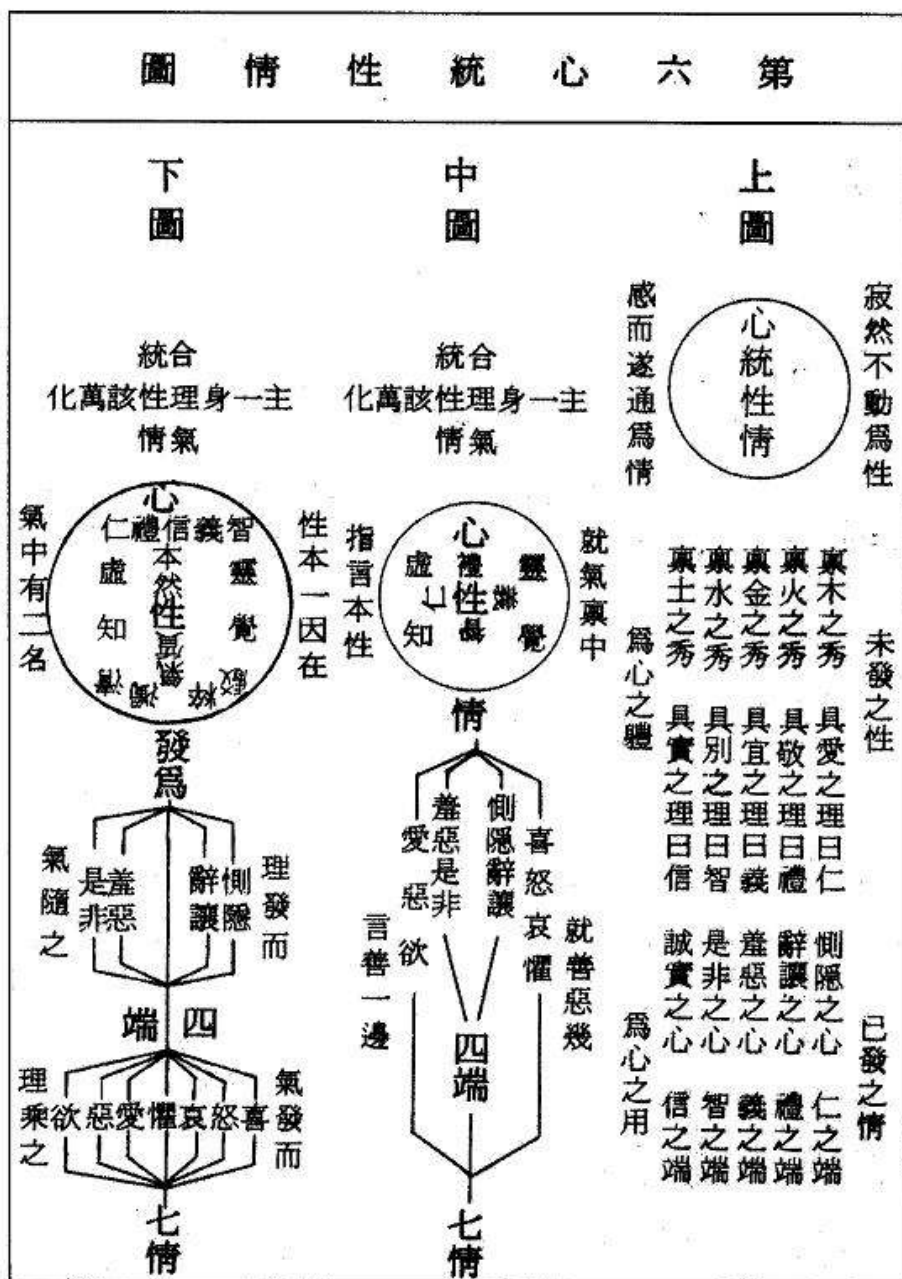
인간의 본성은 사물을 접하면서 드러나는 자연적인 감정인 칠정(七情) 가운데 하나이다.⁵⁸⁾ 다른 사람과 재물을 비교하거나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기는 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갖게 되는 보통의 마음이다. 이러한 욕심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 자신의 본연(本然)을 챙기게 되는 것이 진정한 앎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퇴계 선생은 말한다.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의 성(性)과 정(情)을 따르는 행동이다.

‘언제가 가장 행복하세요’라고 묻자, ‘바로 지금’이라고 주저 없이 말하는 부부가 있었다. 나의 고향이기도 한 청주시 시골 마을 ‘꼭대기 집’에서 황혼을 살아가는 할아버지(87)와 할머니(84) 부부 이야기이다. 아주 오래 전 중매를 통해서 얼굴도 모르고 결혼했지만 늘 같이 늙어갈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라고 하시는 부부이다. KBS 인간극장의 한 장면이다.

노부부가 함께 살아온 65년의 세월은 ‘소’와 함께 한 삶이었다. 먹고 사는 것이 녹록하지 않았던 시절에 아들 셋을 키워야 했던 부부의 이야기이다. 이 노부부에게 소는 삼 형제를 키워낸 일등 공신이었고 특히 할아버지에게는 지금껏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준 가족과 같은 존재이다. 할아버지는 구순이 가까운 나이임에도 자식을 돌보듯 매일매일 소의 사료를 챙기고 축사를 청소했다.

58) 칠정(七情)이란 사람의 일곱 가지 감정. 기쁨(喜)·노여움(怒)·슬픔(哀)·즐거움(樂)·사랑(愛)·미움(惡)·욕심(欲), 또는 기쁨(喜)·노여움(怒)·근심(憂)·생각(思)·슬픔(悲)·놀람(驚)·두려움(恐)을 이른다.

[그림 9] 제6 심통성정도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하셨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가족의 부양을 위해 한평생 최선을 다해 소를 키우셨다. 이러한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할머니이다. 할머니는 자나 깨나 할아버지 생각뿐이다. 쇠똥이 묻은 할아버지의 옷을 손수 빨아주고, 밥상에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이 빠지는 법이 없다. 60여 년 동안 ‘꼭대기집’에서 함께 살아온 시간만큼 부부는 변함없이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고 있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인생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이 그대로 얼굴에 새겨진다고 한다. 노부부의 웃음꽃 활짝 핀 얼굴은 오랜 세월 서로 사랑하며 함께 인내하고 지내온 삶의 행복을 나에게 그대로 전해주었다. “그냥 웃으면 되는 거” 라고 말씀하시는 할아버지의 표정과 그것을 바라보시며 늘 곁을 지키는 할머니의 모습은 마치 아름다운 성인(聖人)의 모습이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모습에서 나는 양수리의 ‘두물머리’가 생각났다. 두 개의 물줄기가 맞대듯이 만나는 지점인 두물머리의 모습은 마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사시는 모습과도 같았다. 각각의 한줄기 물이 흐르다 두 개의 물줄기가 만나 부딪히는 순간 거친 소용돌이가 생기며 요란한 소리를 동반하지만, 그 강의 하류를 살펴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요하기만 하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인생도 그러했을 것이다. 두 분이 만나서 하나가 된 듯한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점점의 시간을 잘 견뎌내고 나니 찾아오는 것은 평온이다. 술성지위도(率性之謂道)의 의미처럼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서로 교차함(交)으로 자연스럽게 노부부의 세상을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많은 조부모와 부모는 아이들의 양육에 있어서 서로 잘 가르쳐보고 싶은 욕심이 앞선 나머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여기서 정작 중요한 점은 아이들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조부모나 부모가 각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자녀가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귀한 것이라는 본질을 깨닫게 된다면 이러한 갈등은 사라지게 된다. 아이들이 하늘 몸(天之命)이라는 자명한 사실 안에서 그 태어난 본성(本

性)대로 살아간다. 이러한 삶을 깨닫게 되는 순간 조부모와 부모 사이에서 아이의 양육에 대한 갈등과 감정의 소용돌이는 잦아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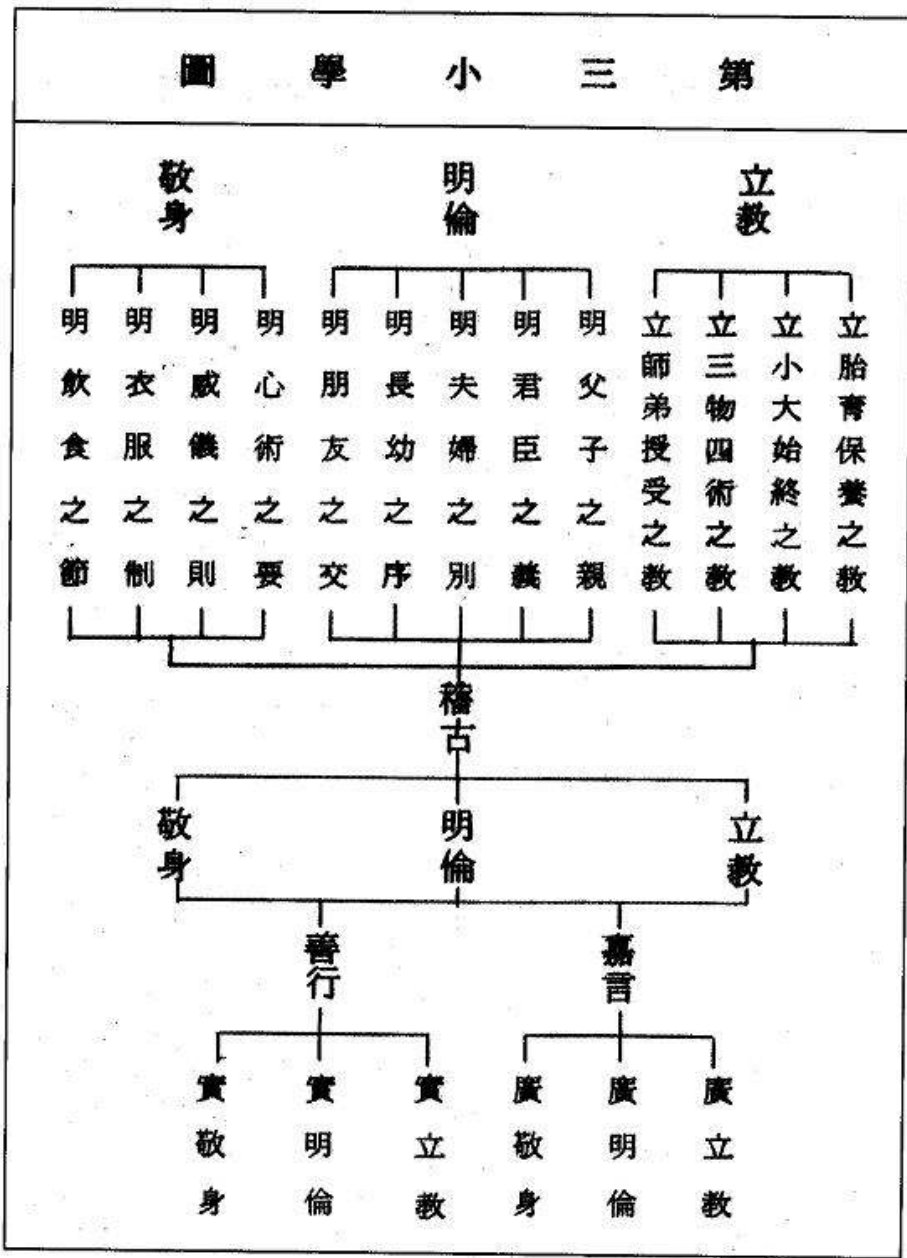
조부모와 부모는 서로 소통할 수 없는 양극(兩極)의 변민 사이가 아니다. 아이를 위한다는 공통된 마음이 서로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부와 손자녀의 관계 또한 격대교육 관계에서도 양극의 등점이 아니다. 서로 교차라서 행복한 평화일 수밖에 없는 관계이다.

6. “마음은 청춘”

소학제사(小學題辭)에 이배기근 이달기지(以培其根 以達其枝)라는 말이 있다. ‘그 뿌리를 북돋아 주면 그 가지가 자연적으로 번성 된다.’는 뜻이다. 유순무강(有順無疆)이란 선하게 태어난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것은 인간이 베풀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원래 가진 것을 억지로가 아닌 자연의 순리와 타고난 천성대로 사는 것을 말한다. 즉, 사람은 생긴 대로 놀 수밖에 없다.

성학십도의 제3도 소학을 공부하니 나의 어린 시절이 생각났다. 유치원장인 나는 정작 유치원은 가본 적 없이 곧바로 초등학교 입학하였다. 그 시절에는 혼한 일이었다. 일반적으로 형제들이 많은 시대였기에 나의 또래들은 특별한 체험이나 선행공부를 받은 적이 매우 드물었다. 나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어린 시절에는 동네 친구들과 소꿉놀이와 역할놀이, 공기놀이 등 지금의 유치원에서 배우는 놀이를 대부분 동네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면서 해보았었다. 막내였던 나는 언니와 오빠들이 이전부터 놀던 방식을 스스로 눈치껏 따라 해보며 친구들과 놀아 보았다. 또한 그 시절에 부모님들은 대부분 엄격했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다 보니 당시의 부모는 자식들에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

[그림 10] 제3소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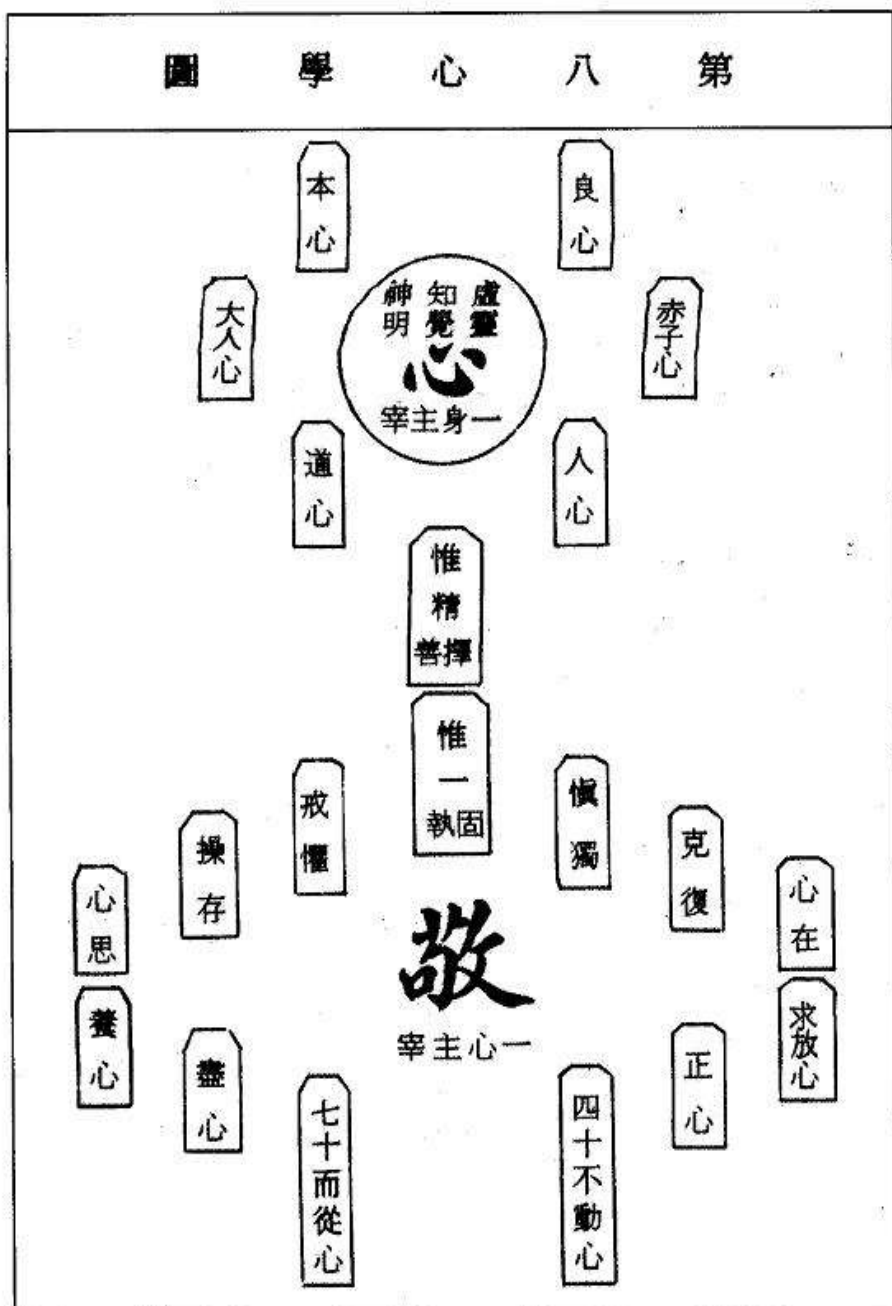
우리 집 역시 어머니 혼자서 여러 자녀를 가르치려다 보니 훈육 차원에서 엄하게 나를 대하신 것 같았다. 육 남매 중의 막내인 나는 언니와 오빠들이 많다 보니 가정환경이 곧 산 교육장이나 다름이 없었다.

부모님이 일부러 가르치지 않아도 나는 보는 것이 많으니 배움에 있어 눈치는 빨라지고 요령도 많아졌다. 막내인 나를 부모 형제들은 늘 아기처럼 생각하였다. 막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식의 특별한 기대감이나 욕심을 나에게 바라지 않았다. 어린 시절 매일 아침이면 잠을 깨우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맑은 공기에 정신을 가다듬고 하루를 시작해야 해’라고 하시며 형제들을 채근하셨다. 밥상머리에서도 엄마의 가정교육은 계속되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간에 사이좋게 지내야 하며, 학교에 가서는 친구 간에 서로 양보하여 사이좋게 지내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는 당부를 매일 우리 형제들에게 하신다. 이렇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엄마의 당부를 듣고 자랐으니 나는 의식하지 않아도 그 가르침이 생활의 습관이 되었다. 성학십도 제3도 소학의 쇄소응대(灑掃應對), 입교(立敎), 명륜(明倫), 경신(敬身)을 어린 시절의 일상생활과 엄마의 가르침 속에서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 것 같다.

현대 사회는 그 모든 것을 책에서 배운다고 이야기하니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아이들은 귀로 듣는 것보다는 눈으로 본 것을 오래 기억하고, 본 것보다는 체험을 더 오래 기억한다. 이처럼 체험을 통해 지혜를 터득하면 몸으로 터득한 지혜로 인하여 삶의 여유가 생기고 일에서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러나 자신의 체험 없이 감각에만 의지한 채 살아가는 삶은 평상시에는 탈이 없이 지낼 수 있지만 힘든 일 생기면 자신감이 저하되고 불안해지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면 감각에 의지하는 생활을 반복하게 된다.

공자는 『논어』 「위정편」 15장에서 학이불사즉망(學而不思則罔), 사이불학즉태(思而不學則殆)라고 하였다.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몸에 감각으로만 행동하면 위태롭다는 의미이다. 사람은 생각을 잘하기보다는 감각에 의존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니 당연히 곤란을 겪게 될 수 있다.

[그림 11] 제8 심학도



학이불사(學而不思)면 사이불학(思而不學)이라고 공부하면서 생각을 해야 하고, 생각한다면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나는 성학십도를 만나기 전까지 공경하는 마음은 나 아닌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마음인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사랑받고 자란 사람이 사랑도 베풀 줄 아는 것처럼 나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나 아닌 다른 사람도 공경할 수 있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므로 서로 공경(敬)하는 삶이야말로 나와 너 우리가 모두 다 좋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성학(聖學)에서 경(敬)을 한결같이 강조하는 까닭이다.

나는 27년 동안 유치원을 운영하였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의 체험을 통해 희로애락의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내 감정(情)을 잘 챙겨볼 기회가 있었다. 이것은 곧 다른 사람의 감정도 소중하여 잘 챙겨주는 것과 같다. 나보다 더 세상을 많이 살아오신 시니어 선생님의 지혜가 유아 교육의 현장에 더해진다면 아이들이 더욱 행복해질 것이라 확신한다. 이것이 내가 격대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적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중요한 요인으로 인간의 본성을 꼽고 있다고 한다. 누구나 가고 싶은 기업이라는 ‘구글’의 구호가 ‘Don’t be Evil! (올바르게 하자)’인 것처럼 이제 세상은 지원자의 윤리 의식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는 매우 반가운 현상이다. 기존의 학연과 지연 그리고 학력 위주의 인사 평가를 탈피하여 소중한 내 몸(性)의 이치에 따라 살아가려 하고(道), 내 몸의 본성(本性)을 깨닫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사람을 뽑으려 한다.

이처럼 이제 아이들의 교육에서도 본성에 충실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부모가 조급한 마음으로 조장(助長)하기보다는 아이 스스로 자신이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도와주어야 한다. 격대교육을 통하여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도움을 줄 방법이 시니어 선생님을 통한 격대교육이다.

제3절 ‘안도에게 보낸다.’ 문헌연구를 통해 본 격대교육

1. 퇴계 선생의 교육철학과 가학전통

1) 퇴계 선생의 교육철학

퇴계 선생은 아들 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손자 이름을 안도(安道)라 이름 짓고 그 의미를 풀이해주었다. ‘도(道)’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먹는 음식과 입는 옷과 같아서 잠시라도 없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도는 일상의 도리이고 오직 학문에 힘을 쏟은 뒤에야 그 의미를 알게 된다고 말하였다. 퇴계 선생은 이러한 도리를 탐구해서 실천한 사람을 성현이라 하며 만손자 안도가 자신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서 큰 인물이 되기를 바란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때문에 손자가 성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안도’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손자의 교육에 퇴계 선생은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안도가 다섯 살이 되는 해에 천자문을 직접 써서 가르치는 것을 시작으로 책을 읽기 시작하는 손자의 성장 과정에 맞춰 학습 진도를 체계적으로 계획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퇴계 선생은 성학십도에 제3도 소학도의 그림을 직접 그려 넣었다.

소학의 방법인 채소(灑掃)하고 응대(應對)하란 뜻은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어릴 적부터 그 배움을 첫 번째로 하여 익힌 후에, 그 배움은 집안에서 효도하고 남을 공경하며 자신의 행동이 법도를 어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실천하고 남은 힘이 있으면 시를 외우고 책을 읽으며 노래하고 춤추어 생각이 혹 도리를 넘어섬이 없게 하고자 하였다.⁵⁹⁾ 즉 퇴계 선생은 모든 생각이 지나침이 없어야 함⁶⁰⁾을 손자 안도

59) 『역주와 해설 성학십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 사상연구소, 2011년, 72쪽

60) 『성학십도』, 「제3 소학도」: 小學之方 灑掃應對 入孝出恭 動罔或悖

行有餘力 誦詩讀書 詠歌舞蹈 思罔或逾.

에게 가르쳤다.

퇴계 선생은 손자 안도에게 좋은 벼들과 함께 학문하기를 권면하였다. 그의 학문하는 요령은 아래와 같다.

‘진실로 깊이 체득해서 힘써 실행하지 않으면, 비록 격언(格言)과 지론(至論)을 날마다 앞에 펼쳐 놓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글 한 편을 다 읽기도 전에 졸려서 하품하며 책을 서가에 얹어두고 먼지가 쌓이고 종이 슬게 하는 경우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느냐.’⁶¹⁾

또한 퇴계 선생은 모든 생명의 근원인 인(仁)을 추구하였다. 천지 만물이 본래 나와 일체라는 것을 알며 학문을 통한 자기 성찰을 통해 인(仁)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 퇴계 선생 자신도 평생을 마음과 몸을 바르게 하고 겸허한 자세를 생활화하고자 하였다. 그는 사물의 이치를 깊이 파고들어 정확하게 앎을 챙기려 하였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삶을 추구하였다. 퇴계 선생은 스스로 성인에 이르는 본보기를 후손들에게 보여주었다.

2) 퇴계 선생의 가학전통

가학(家學)이란 ‘집에서 익힌 학문’이라는 뜻이다. 퇴계 선생은 가문의 전통과 학문을 계승하는 것을 중히 여겨 손자 안도가 온전히 이어받기를 원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안도에게 일일이 집안 대소사와 형제들을 비롯한 종숙부, 서숙, 서숙모, 외숙부에 이르기까지 집안 어른들의 안부를 일일이 알려주었다. 또한 안도가 학문을 게을리 하여 동학들 보다 뒤처지지

61) 『안도에게 보낸다』, 83쪽.

않을까 걱정하여 때로는 노골적인 표현으로 안도를 엄중하게 꾸짖기도 하였다.

어느 날 손자 안도가 용수사에 가서 글을 읽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퇴계 선생은 매우 기뻐하였다. 그 소식을 접한 퇴계 선생은 젊은 시절 숙부와 함께 용수사에서 글을 읽었었던 때를 회상하였다. 당시의 퇴계 선생은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지어 보내주신 시를 음미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퇴계 선생이 안도에게 보낸 시는 마치 과거 아버지의 시에 아들인 이황이 답을 하는 형식이었다. 이것은 손자인 안도가 오랜 집안의 가르침에 대한 유래를 알게 하고 스스로 전통을 이어받아 학문에 힘쓰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세월은 하도 빨라 어느덧 선달이라,
눈 덮인 산 깊이깊이 절 문을 에워쌌네.
쓸쓸한 창문 아래 애쓰는 너희 모습,
때때로 맑은 꿈이 책상 가에 이르노라.⁶²⁾

아래의 시는 퇴계 선생의 셋째 형님과 넷째 형님이 젊어서 용수사에서 글을 읽을 적에 숙부께서 보내 주었던 글이다.

푸른 산은 병풍 되고 누각에는 눈 뿌릴 때,
법당이라 깊은 곳엔 등 밝히기 마땅하니.
새 해라 겨울 동안 삼다(三多)를 족히 하고,
만사를 관통하는 도리를 찾아야지.
벼슬자리 경전 속에 갖춰 있다 말을 말고,
훌륭하게 되려면 학문을 닦아야지.
예로부터 좋은 일 일찍 이뤄내야 하니,
과거시험 앞에 두고 세월은 빨리 간다.⁶³⁾

62) 『안도에게 보낸다』, 141쪽.

퇴계 선생은 안도가 용수사에서 글을 읽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쁜 마음에 자신의 아버지와 숙부의 시를 소개하였다. 퇴계 선생 부친의 시를 살펴보면, 추운 날씨에도 공부에 전념하는 두 자녀를 향한 애뜻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때때로 맑은 꿈이 책상 가에 이르노라’라고 쓴 구절에서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바라는 성학(聖學) 공부의 참된 핵심이라고 보인다.

다음 숙부의 시에서는 조카들이 주변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참다운 공부에 매진하여 천 리를 관통하는 도리(道理)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전해져 온다. 아버지와 숙부의 시 모두 후손들이 훌륭한 인간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과 올바른 학문의 길에 매진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보인다.

퇴계 선생은 안도에게 다음과 같은 시 두 수를 지어서 보냈다.

-첫수 -

선달이라 눈보라 속 산방(山房)에 갇든 너는,
선대 일을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해라.
되풀이해 음미하는 두 분 시의 무궁한 뜻,
꿈꾸고 깨는 사이 밤도 이미 깊었구나.

소녀 시절 용수사를 서재로 생각하며,
기름 대신 관솔불을 얼마나 밝혔던고.
집안의 가르침 그날 경계 잊으랴 만,
이(理)의 근원 알지 못해 지금도 찾고 있네.
늙은 마음 네게 빈다. 조상 은덕 이어받고,
충고하는 벗 힘입어 큰 계획을 도모하라.
눈 덮인 산 절 문 둘러 인적이 고요하니,
한 치의 광음도 허송 말기 바라노라.⁶⁴⁾

63) 『안도에게 보낸다』, 141~142쪽.

퇴계 선생(退溪)의 시에서는 자신이 어릴 적 용수사에서 공부하던 때를 회상하며 당시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지만, 아직도 이(理)의 근원을 이해하지 못해 지금도 찾고 있다고 겸손하게 말한다. 더하여 선대(先代)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학업에 정진하고 좋은 벗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여 큰 계획을 도모하라고 당부를 하였다.

퇴계 선생은 손자 안도가 성학(聖學)에 정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며 세심하면서도 직설적인 표현으로 손자의 교육에 대해 관여를 하였다.

퇴계 선생은 손자가 어디서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어떤 책을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읽어야 하는지 등 학습 진도를 세심하게 챙겨주었다. 그리고 안도가 다섯 살이 되는 해에는 손수 천자문(千字文)을 직접 써서 손자를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안도를 어릴 적부터 체계적으로 지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퇴계 선생과 몽재 연표」⁶⁵⁾에서는 아래와 같이 안도의 학습 진도가 연대별로 나와 있다.

- 1545(乙巳)년 (5세) 천자문
- 1548(戊申)년 (8세) 효경
- 1552(壬子)년 (12세) 고문진보
- 1553(癸丑)년 (13세) 사략
- 1554(甲寅)년 (14세) 사서
- 1555(乙卯)년 (15세) 논어
- 1556(丙辰)년 (16세) 소학, 중용, 대학
- 1558(戊午)년 (18세) 맹자, 시전
- 1564(甲子)년 (24세) 춘추집해, 주자
- 1565(乙丑)년 (25세) 주역, 역학계몽
- 1570(庚午)년 (30세) 역학계몽, 심경

64) 『안도에게 보낸다』, 142쪽.

65) 『안도에게 보낸다』, 308쪽

- 둘째 수 -

읽고 외는 공부야 어릴 때 할 것이고,
이제부터는 깊은 도리 탐구를 하여야지.
온 힘을 다 쏟아서 학문에 매진할 뿐,
옛 성현을 따르기가 어렵다고 하지 말라.⁶⁶⁾

위의 시에서처럼 퇴계 선생은 어릴 적에는 문장을 익히는 책을 공부하는 것이고, 16세가 되어서는 「대학(大學)」을 읽고 격물치지(格物致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퇴계 선생은 주역(周易)에 대해서는 깊은 학문적 탐구를 권면하였다. 여기서 권면(勸勉)이란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한다는 의미이다.

퇴계 선생은 편지에서 ‘생원 조목(趙穆)은 이제 막 주역을 읽기 시작하였으므로, 네가 일찍 돌아와 학문에 매진하면 크게 뒤쳐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며 안도를 독려하였고, ‘주역은 쉽게 읽을 책이 아니니 대충대충 지나치지 마라. 깨끗하고 정밀한 이치, 근원을 탐구해야지 강론하는 자리에서 대답할 거리만 찾지 마라’라고 하시며 주역의 공부 방법에 대해 세세한 당부를 하였다. 퇴계 선생은 안도가 학문에 정진하여 모든 일을 관통하는 하늘의 이치를 찾아서 성학의 높은 수준에 오르기를 원하였다.

퇴계 선생의 이러한 손자에 대한 사랑과 애정은 편지로 전해져오지만, 안도의 답신은 전해오지 않고 있다. 할아버지 퇴계 선생의 가르침에 손자 안도가 어떻게 반응하며 답장을 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아쉽다. 현재의 연구자들은 퇴계 선생의 편지글과 「해설」 편, 그리고 「몽재집」을 통하여 안도가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공손하게 받아들이고 학문에 매진하였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안도는 손자로서 퇴계 선생에 대한 존경과 자부심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철학과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퇴계 선생 자신도 병약했던 아들 준 보다는 손자 안도의 학문적 역량을 인정하

66) 『안도에게 보낸다』, 8쪽

고 신뢰한 듯하다. 안도에게 성학십도에서 제8 심학도의 내용을 정리하는 일을 맡겼었다. 이렇듯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퇴계 선생은 손자 안도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으며, 누구보다도 안도는 퇴계 선생의 참 뜻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 퇴계 선생과 안도의 격대교육 핵심 내용

1) 좋은 벗과의 교제.

‘충고하는 벗에 힘입어 큰 계획을 도모하라’라는 편지의 구절처럼 퇴계 선생은 손자 안도가 누구와 더불어 어디에서 공부하는지 궁금해하였다. 퇴계 선생의 병인(丙寅) 년(1566년) 12월 편지에서도 ‘제군들과 문회(文會)를 갖는다고 하니 즐겁겠구나’ 하며 좋은 벗과 함께 공부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잘한 일이라고 기뻐하였다.

퇴계 선생은 을축(乙丑) 년(1565년) 8월, 김성일과 우성전이 「역학계몽」을 읽으려고 한다고 손자에게 전하였다. 손자에게 「주역」을 다 읽지 못하였더라도 「역학계몽」은 읽지 않을 수가 없으니 일단 주역을 중단하고 이들과 함께 「역학계몽」을 읽었으면 좋겠다고 조언하였다. 퇴계 선생은 ‘우성전과 김성일을 살펴보니, 두 사람이 목표하는 것에 다다르기 위하여 오로지 올바른 학문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안도에게 전하였다. 이들을 좋은 벗으로 삼아 함께 공부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전한 것이다. 손자가 동학들보다 학문적으로 뒤처지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담겨 있는 편지의 구절이다.

퇴계 선생이 을축(乙丑) 년(1565년) 7월에 안도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김전이 찾아와서 김성일과 함께 계제에서 「통감」을 읽고 있다’라고 적고 있다. 같은 해 11월의 편지에서는 ‘김성일과 우성전 두 사람은 다시 「역학계몽」을 읽기 시작해서 이미 다 마쳤다’라고 전하였다. 이것은 안

도가 함께 계제에서 공부하며 읽기를 못 하는 것에 대한 퇴계 선생의 아쉬움에 대한 표현으로 보인다. 더하여 퇴계 선생은 ‘김명일 · 이봉춘 · 정사성 등이 도산서당에 거처하면서 때때로 찾아와 「논어」와 「맹자」 등을 내게 배우고 있다’는 소식을 안도에게 전해주었다. 이 역시 안도의 학문적 열의를 북돋아 주는 퇴계 선생 마음의 표현이다.

퇴계 선생은 기사(己巳) 년(1569년) 6월에 안도가 서강의 정자에서 벗들과 모임을 만들어 공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참 잘한 일이다’라고 칭찬을 하였다. 이처럼 퇴계 선생은 손자의 교우 관계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 좋은 벗들과 함께 학문에 매진하는 것이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큰 성취와 배움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 예절(禮節)과 도리(道理)에 맞는 행동

퇴계 선생은 일생을 거경궁리(居敬窮理)의 삶을 살았다.⁶⁷⁾ 그는 항상 몸과 마음을 삼가 바르게 가지는 거경의 자세를 유지하고자 하였고 늘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정확한 지식을 탐구하는 궁리의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는 엄격했지만, 타인에게는 너그러운 가운데 논리를 쟁기고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퇴계 선생은 손자 안도 역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사물의 이치를 깨우치는 진정한 성학에 매진하기를 원하였다. 경신(庚申)년(1560년) 9월에 퇴계 선생은 성인이 되어 혼례를 치른 안도에게 편지를 보냈다.

‘부부란 인륜의 시작이고 만복의 근원이므로 비록 지극히 친밀

67) 거경궁리(居敬窮理)란 주자학에서 중시하는, 학문 수양의 두 가지 방법을 말한다. 거경은 내적 수양법으로 항상 몸과 마음을 삼가서 바르게 가지는 일이고, 궁리는 외적 수양법으로 널리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정확한 지식을 얻는 일을 의미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8. 연구자는 거경은 나를 존중함으로써 남도 존중하는 것이고, 궁리는 나는 물론이고 남도 살리는 이치를 깨닫는 것이라고 본다.

한 사이이기는 하나, 지극히 바르게 하고 지극히 조심해야 할 처지이기도 하다.’

‘군자의 도는 부부에서부터 시작된다.’⁶⁸⁾

퇴계 선생은 안도에게 당부하였다. 가까운 부부간일수록 서로 예를 갖추고 공경해야 함을 잊지 말고 부부간에 서로 예를 갖추어 공경하라 하였다. 친밀한 부부간이라도 두 사람 사이의 예(禮)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부부 사이에 예를 지키는 것이 군자의 삶의 한 부분이며 그것이 도의 시작임을 안도에게 일러주었다.

신유(辛酉) 년(1561년) 10월 안도는 생원 과거시험에 합격하였다. 합격의 축하연에 참석하는 손자에게 퇴계 선생은 매사 특히 조심하여 행동하라고 당부하였다.

‘연회에서 너무 기빠한 나머지 분별이 없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선배들이 시키는 것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책망만 면할 만큼만 행동하고 웃음거리나 제공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내가 보기에 후생들이 아주 작은 이름을 얻게 되면 스스로 일생의 큰일을 해냈다는 생각에 제정신을 잃어버린 채 행동을 하니, 너무도 딱하다. 너는 어른을 모시고 참석하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조심해야 한다.’⁶⁹⁾

경오(庚午) 년(1570년) 1월에 안도는 다음 과거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2차 과거 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성균관 앞에 셋방을 얻어 이희와 함께 공부하였다. 퇴계 선생은 과거를 준비 중이던 안도에게 편지를 보냈다.

68) 『안도에게 보낸다』, 17~18쪽

69) 『안도에게 보낸다』, 40~41쪽

‘너는 어른들 앞에서는 나서지 말고 여러 의견을 듣고 살펴서 그중 나은 것을 따라 좋은 점을 취하면 된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주장하느라 입에서 나오는 대로 큰 소리로 마구 떠들어 어른들께 우(愚)를 범하고 말았으니 어찌면 좋으냐. 설사 네 말이 이치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큰 소리로 네 생각만을 떠들어댄 무례를 저지르고 만 것이다. 이것은 배우는 사람으로서 태도가 아니다. 더구나 제멋대로 보고 잘못 들었는데도 이처럼 한다면 되겠냐. 속히 고치도록 해라’⁷⁰⁾

퇴계 선생은 어른들 앞에서 자신의 주장만 내세웠다는 안도의 잘못된 태도를 전해 듣고는 이에 대한 우려를 편지로 전하고 있다. 아직 학문을 배우는 중인 안도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였다는 것에 퇴계 선생은 우려를 보낸 것이다. 아직 더 배워야 할 학문이 많이 남아있는 손자에게 퇴계 선생은 배우는 사람의 자세를 지적하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꾸짖었다.

이처럼 퇴계 선생은 손자인 안도를 걱정하며 여러 편지를 보냈었다. 경신(庚申) 년(1560년) 12월의 편지에서는 ‘김취려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니 글씨를 날려서 마구 써놓았더구나. 거칠고 분별이 없는 행동을 즐기지 말기를 바란다.’라고 하여 단정하지 않은 글씨체는 분별없는 행동을 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신유(辛酉) 년(1561년) 1월의 편지에서는 ‘네 편지에서 문장의 끝에 ‘뿐입니다’라는 이(耳) 글자를 썼는데 이는 어른들께 올리는 편지에서는 공손하지 않기 때문에 쓰면 안 되니 그리 알 거라’라고 하며 예의 바른 문체를 사용하기를 당부하였다.

임술(壬戌) 년(1562년) 12월에는 ‘네 편지에서 “아버지는 10일에 길을 떠나십니까?”라는 문구를 지적’하였다. 퇴계 선생은 부정발어십일야(父定發於十日耶)라는 문구에서 묻는 말의 끝 자는 “야(耶)”자가 아닌 “부(否)”

70) 『안도에게 보낸다』, 271쪽.

를 사용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야(耶)”자와 “부(否)”자는 모두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이지만, 윗사람을 두고 여쭙 때는 반드시 “부”자를 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퇴계 선생은 젊은 손자가 서편을 쓸 때 놓치기 쉬운 예법을 자상하게 바로잡아주었다.

경오(庚午)년 4월 5일의 편지에서는 대학자 퇴계 선생의 인간적인 고뇌가 가장 크게 엿보이는 대목이 있다. 손자 안도와 손부(孫婦)의 아들인 퇴계 선생의 증손자 창양이 태어났다. 그러나 아이는 손부인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 모유가 부족하여 육아에 지장이 많았다. 수유 부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아들을 위해 안도는 시골에 있는 여종을 불러 유모로 삼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여종 학덕은 출산한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전해들은 퇴계 선생은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 남의 자식을 죽이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하다.’라며 안타깝지만, 천륜의 도를 안도에게 전하였다. 이후 결국 몸이 약했던 증손자 창양은 사망하였다.

퇴계 선생이 증손자를 생각하면 여종을 안도에게 올려 보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여종과 그녀의 아이를 생각한다면 차마 떨어뜨려 엄마만을 올려 보낼 수 없는 딱한 사정이었다. 이는 퇴계 선생에게 천륜을 어기는 일이었다. 자신의 손자만을 생각하지 않고 식솔과 노비까지 모두 한 사람의 소중한 인간으로 대하였던 그의 성품이 드러나는 일화이다. 그 후 퇴계 선생이 ‘어찌면 좋으냐’라고 편지에서 말한 의미는 진퇴양난(進退兩難) 속에 고뇌하였던 그의 심정을 절실하게 표현하는 구절이었다고 본다. 이처럼 퇴계 선생은 손자 안도가 어른들께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인륜(人倫)의 덕(德)을 겸비한 올곧은 성품의 훌륭한 인간이 되기를 원하였다.

3. 퇴계 선생의 격대교육과 내가 체험한 격대교육

「안도에게 보낸다」 문헌연구를 통해 퇴계 선생의 교육철학과 삶의 태

도 그리고 손자에게 전하는 당부를 통해서 조선 시대 격대교육의 한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 서책에는 퇴계 선생의 교육철학뿐만 아니라 조선 시대 선비들의 생활풍습과 학문의 힘든 과정에 대한 모습들이 담겨 있어 후세의 연구자에 많은 정보와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높게만 느껴졌던 대학자 퇴계 선생이 소박하고 인간적인 삶의 모습과 55세에서 70세까지 퇴계 선생 노년의 행적을 엿볼 수 있어서 무척이나 흥미로웠다.

조선 시대 성리학자로 높은 학식과 덕망으로 정치적 입지가 굳건하였던 퇴계 선생은 손자 안도에게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이러한 손자에게 일상생활에서의 예의범절을 비롯하여 학문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일러주는 퇴계 선생의 자상한 가르침과 애정이 담긴 섬세한 글을 통해 조선 시대 양반가 격대교육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나의 어린 시절 외할머니의 무릎 안은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내는 실타래와도 같았다. 외할머니는 심술쟁이 놀부, 착한 심청이, 피 많은 여우, 무서운 호랑이 이야기 등 끝없이 이어지는 재미나는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셨다. 외할머니 덕분에 나는 상상력도 향상되고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며 남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게 되었다.

우리 외할머니는 남매들 사이에서 내가 잘못된 일이 생기거나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머뭇거릴 때 나의 등을 토닥이며 ‘괜찮아’라고 위로를 해주셨다.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도록 손수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익숙해질 때까지 나의 걸을 지켜주셨다. 나는 외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면 늘 마음이 든든하였다. 외할머니는 나에게 늘 당부하셨다. 손잡고 나들이를 하러 갈 때면 차 많은 도로에서 뛰어다니면 위험 이유를 알려주셨고,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에는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셨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입안에 음식물이 들어 있을 때 말을 하면 음식물이 밖으로 나올 수 있으니 다 먹고 이야기하라고 일러주셨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외할머니의 자상했던 가르침은 잊히지 않고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 올바른 격대교육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따뜻한 가르침과 사랑으로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퇴계 선생과 마찬가지로 우리 외할머니께서도 손녀가 남에게 불편하게 하거나 버릇없는 아이로 비치진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예의범절을 가르치셨다. 외할머니는 사랑하는 손녀인 내가 예의 바르고 올곧은 성품을 지닌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셨던 것 같다.

유치원에는 이야기 할머니가 아이들 교육을 위해 오신다. 나는 이야기 할머니를 뵈는 때마다 어릴 적 외할머니와의 살가웠던 추억이 되살아난다.

우리 유치원 아이들은 내가 어릴 적 그랬던 것처럼 이야기 할머니 주변으로 재미있는 옛날이야기를 듣기 위해 옹기종기 모여든다. 이야기 할머니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내내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할머니도 신이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신다. 할머니들은 당신들의 이야기에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수록 더 신명이 나고 즐거우신 표정이었다. 아이와 할머니 모두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모습으로 격대교육의 장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핵가족화로 인하여 가정의 전통적인 인성교육 기능이 약화해있다고 본다. 이러한 시대에 세대를 뛰어넘는 정서적 교감으로 단절된 조손(祖孫) 간 이해와 소통을 가능하게 했던 할머니들의 따뜻한 무릎 교육이 부활하였다. 2009년 한국국학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현대적 교육의 한 방식으로 부활을 시킨 것이다. 어르신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를 통해 유아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 교육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선현들의 미담·귀감이 되는 이야기를 이야기 할머니들이 들려주는 교육 사업이다. 이야기 할머니의 말과 행동이 그대로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가치관과 생활습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아들의 인성을 함양하고 우리 민족문화를 계승하는데 이 사업의 뜻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 사회체험이나 자격증, 학력과 같은 소위 스펙을 떠나서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열의가 있으신 분을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로 선발하고 교육기관에 파견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야기 할머니의 지원 자격은 직업이 없는 여성 어르신으로 만 56세(1958년생)에서 만 70세(1944년생)까지의 연령으로 제한하고

기본적인 인성과 소양을 갖추고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진 분이
면 된다고 한다.⁷¹⁾

이 사업은 학습에 의존하여 정돈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이야기
할머니의 삶 속에서 지혜를 찾을 수 있는 체험 속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를 위해 특별히 연세가 지긋
한 여성 인력을 선발해 인성교육과 이야기 구연 능력을 겸비한 전문적인
이야기 할머니로 양성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교육적 성과이다. 손자·손
녀를 돌본다는 마음으로 사랑을 전해주는 이야기 할머니의 감정이 교감
되는 교육은 핵가족 세대 어린이들에게 교육적으로 효과가 매우 클 것이
기 때문이다. 이야기 할머니들의 자애롭고 훈훈한 이미지와 친근함을 아
이들의 인성함양으로 연결한 적절한 교육사업이다.

실제로 우리 유치원에 오시는 이야기 할머니는 일할 수 있다는 사실만
으로도 감사해하신다. 이야기 할머니가 되신 계기로 자신의 삶 전체에 활
력이 생겼다면 즐거워하신다. 물론 아이들과의 수업 준비도 최선을 다
하고 이야기 연습도 열심히 하신 후 아이들을 만난다고 한다. 아이들 또
한 이야기 할머니의 옛날이야기 듣기를 재미있어하고, 집중하여 경청한
다. 아이들은 세대 간의 차이를 느끼기보다는 이야기 할머니의 따뜻한 표
정과 친근함으로 한결 편안해 보인다. 이처럼 격대교육을 통하여 어르신
과 아이들이 옛날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
은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현재에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격대교육의 유일한 과정은 이야기 할머
니의 옛날이야기 교육뿐이다. 내가 기억하는 무릎 교육의 전통이 아름다
운 이야기 할머니들 교육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새롭게 되살아났다.
아이들이 나와 같은 추억을 가질 수 있게 되어 무척이나 다행스럽고 안심
이 되었다.

71) 이야기 할머니의 선발 과정은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예비 이야기
할머니는 2박 3일 과정의 신규 교육(한국과학진흥원, 경북 안동)과 월례교육(서울, 대
구, 부산, 대전, 광주 등)을 포함하여 연간 70여 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한다. 이수 과정을 마치고 나면 거주 지역 인근의 유아교육 기관에서 본격적으로 활동
을 시작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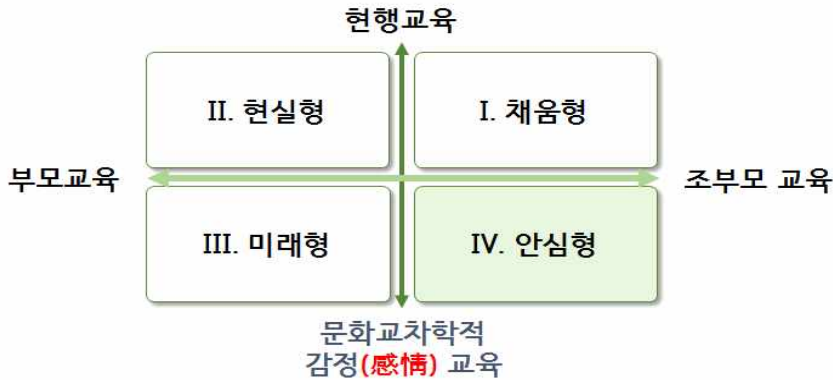
제4절 격대교육의 논리 분석

1. 현행 교육과 격대교육의 비교 방식

격대교육은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유아교육과는 다른 여러 장점이 있는 교육 방식이다.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이었기 때문에 실제 교육 현장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다. 더하여 문화교차학적 감정의 교육이 추가된다면 교육의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연구자는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격대교육을 더욱 명확히 설명하고 새로운 교육 방식의 하나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 방식과 비교를 하고, 문화교차학적 감정 교육을 더 하는 방법에 관해서 연구해 보고자 한다. 격대교육에 대한 보다 쉬운 설명과 장점과 보완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연구자는 유아교육 현장의 오랜 체험을 바탕으로 분석 틀을 만들어 보았다.

1. 세로축은 현재의 교육 방식을 구분하였다. 위쪽이 현행 교육 과정을 의미하며 아래쪽이 문화 교차 감정교육을 의미한다.
2. 가로축은 부모와 조부모 세대 교육을 구분하였다. 왼쪽이 부모세대 교육을 의미하며 오른쪽이 조부모 세대 교육을 의미한다.
3. 이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4가지 유치원 교육 유형을 구분해 보았다.

이를 통해서 연구자는 격대교육과 관련한 교육을 4가지 유형으로 분석하였고, 유형별로 I은 채움형, II는 현실형, III은 미래형, IV는 안심형이라고 칭한다, 연구자가 정한 유형의 이름을 본 논문에서 사용하기로 한다.



- I ‘채움형’은 조부모 교육과 현행 교육이 중심이 된 유형이다.
- II ‘현실형’은 부모교육과 현행 교육이 중심이 된 유형이다.
- III ‘미래형’은 부모교육과 문화교차학적 감정교육이 중심이 된 유형이다.
- IV ‘안심형’은 조부모 교육과 문화교차학적 감정교육이 중심이 된 유형이다.

1. 현행 교육이란 문화교차학적 감정의 교육이 배제된 현재의 교육을 의미한다. 현 수능시험 제도를 보더라도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결과 중심의 과정으로 누구에게나 획일적인 교육만이 요구되고 있다. 부모 또한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목표이다 보니 학력과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아기인 아이들조차 충분히 놀이하고 스스로 체험하며 공유와 순서를 익히며 자라나야 할 시기에 학원을 전전하며 수많은 과목을 배워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으며 무엇을 잘하는지에 관심보다는 남들이 하는 교육에 편승하여 획일적인 교육에 몰두하고 있다.

2. 문화 교차 감정교육이란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태어난 아이들이 이미 가진 좋은 본성을 바탕으로 기질에 따른 특수성이 발현되도록 하는 교육이다. 다 때가 되면 이미 가지고 있는 기질들이 자동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이해한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자기감정

을 소중히 하며 인간다운 인간 전인적 인간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여유 있게 기다려 주는 교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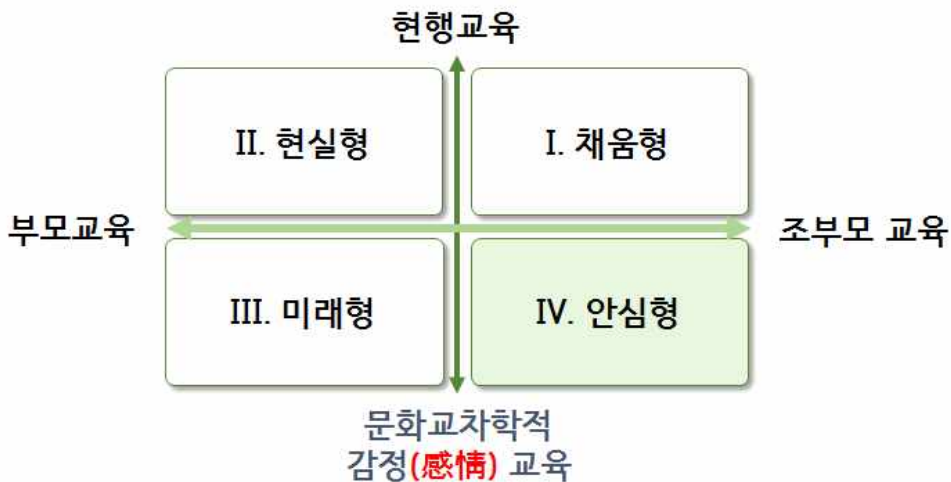
3. 부모 세대 교육이란 가족의 형태가 핵가족으로 변모하면서 부모는 바깥일과 집안일 그리고 아이들 양육까지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도 교육 열이 높은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바쁜 와중에도 제 자식 교육에만큼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현행 입시제도 여파로 인하여 유아기 때부터 무엇이든 가르쳐야 한다는 의식으로 학원을 전전하며 배우기를 계속한다. 정작 내 아이에게 맞는 교육이 무엇인지, 내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어떤 것인지를 관찰하기보다는, 남들이 다 하는 교육에 편승한다. 내 아이만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이 유아기 때부터 학원으로 내모는 형국이 되는 것이다.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이 없다 보니 자녀의 교육에도 신념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수없이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그렇지만 결국 자녀가 ‘때가 되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체험을 통해 깨닫게 된다.

4. 조부모 세대 교육이란 이미 부모 세대를 겪어본 조부모는 체험을 통해 ‘아이들은 때가 되면 다 한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연구에서 의미하는 조부모 세대 교육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과보다는 애정과 관용으로 아이들을 이해한다. 둘째,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하나씩 앎을 쌓기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게 된다. 셋째, 인생을 살아오신 지혜로 인하여 더 넓은 시각에서 부모보다 좀 더 인내하고 아이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한다. 넷째, 새로운 체험이나 낯선 도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흥미롭게 느낄 수 있도록 장려하며,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게 한다. 다섯째, 결과와 상관없이 아이들의 도전에 의미를 두고 격려와 칭찬으로 기분을 북돋아 줄 수 있다.

2. 교육의 유형별 분석

현행 교육과 문화교차학적 감정교육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부모 세대 교육과 조부모 세대 교육의 장점과 보완점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그림 12] 유형별 분석표



본 연구의 핵심은 격대교육의 장점을 알리는 것이다. 격대교육이란 연구자가 교육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안심형’에 해당한다. 조부모 세대의 교육과 문화 교차 감정 교육이 함께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더하여 연구자는 아이들을 위한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으로 ‘미래형’의 가정이 늘어나기를 바란다. ‘미래형’은 부모 세대 교육과 문화 교차 감정 교육이 함께 하는 유형이다. 부모세대가 격대교육의 논리와 장점을 인지하여 문화 교차 감정교육을 실천하고, 조부모 세대의 지혜를 더하여 이를 교육에 접목할 수 있다면 IV ‘안심형’과 함께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이 될 것이다. 다만, 바쁜 부모 세대가 자녀와 함께 지금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이 가능할 때 ‘미래형’의 유형은 늘어날 것으로 본다.

Ⅲ ‘미래형’과 Ⅳ ‘안심형’은 교육자의 주체가 부모인지, 조부모인지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였으나, 소중하고 귀한 아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감정의 논리는 하나로 통한다. 이렇게 때문에 보다 확대된 문화 교차 감정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다음은 유형별 분석 결과이다.

I 형은 현행 교육과 조부모 세대 교육이 합쳐진 유형이다. 연구자는 이를 “채움형”이라 칭한다. 부모와 조부모가 함께 사는 아이의 가정을 뜻한다. 도시화가 진행되기 전의 1960년대까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가족 형태에서 나타나는 유형이다. 연구자인 나도 채움형의 교육을 받고 자랐다고 볼 수 있다. 채움형의 장점으로 조부모 세대의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이 나름의 정서적 안정을 체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급속히 경제가 발전하던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부모의 관심은 적게 받고 자랐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애정 결핍과 형제들 간에 감정의 이해가 부족하여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II 형은 현행 교육과 부모 세대 교육이 합쳐진 유형이다. 연구자는 이를 “현실형”이라 칭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이 있는 유형으로서 엄마 아빠와 함께 사는 핵가족 형태의 가정을 뜻한다. 특히 요즘에는 자녀가 외동인 경우가 더 늘어나는 추세이다. 현실형의 장점은 아이에게 전폭적인 부모의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환경에 익숙한 나머지 개인적인 성향이 두드러져서 공유와 소통에 대한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III 형은 문화 교차 감정 교육과 부모 세대 교육이 합쳐진 유형이다. 연구자는 이를 “미래형”이라 칭한다. 연구자가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추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형이다. 이미 핵가족화가 이루어졌고

감정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던 부모 세대가 존재하는 현실이다. 이에 대한 실질적 보완을 위해서는 부모가 문화교차학적 감정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하며, 조부모의 지혜가 함께할 때 더 좋은 유형이다. 미래형의 장점은 핵가족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전폭적인 관심과 애정을 듬뿍 쏟아 키울 수 있어서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본다. 더하여 문화교차학적 감정교육이 선행되어 아이와 부모 서로 자신의 감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하여 정서적 안정과 지혜의 삶을 추구할 수 있다.

IV 형은 문화 교차 감정 교육과 조부모 세대 교육이 합쳐진 유형이다. 연구자는 이를 “안심형”이라 칭한다. 퇴계 선생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보았듯이 우리의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아이들의 교육을 하였던 유형이다. 이처럼 문화교차학적 감정에 대한 이해를 체험을 통해 알고 있었던 조부모에 의한 교육 방식이었다. 연구자는 문화교차학적 감정 이해의 방식을 현재의 유아교육에 적용하여 더욱더 쉽게 아이들이 접할 수 있도록 유로 복합시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유로 복합시설의 건립이 격대교육을 활성화하고 문화교차학적 감정 이해의 학습을 더욱더 빠르게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안심형의 장점은 핵가족화된 현재에도 유로 복합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세대 간의 만남과 격대교육을 통한 소통하는 안심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심형의 보완점은 문화교차학적 감정 교육에 대한 시니어 선생님들의 재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3. 격대교육의 장점과 함께, 4. 시니어 선생님을 위한 문화교차학적 감정교육에 대한 교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미 체험을 통해서 감정에 대해 이해를 하고 계신 시니어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교육의 기간은 짧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유형별 장단점

유 형	교육 방식	장 점	보완점
I.채움형	현행교육+조부모	정서적 안정	부모의 애정결핍
II.현실형	현행교육+부모	애정의 집중	공유와 소통의 어려움
III.미래형	문화교차학적 감정교육+부모	자존감 향상	부모 감정교육 필요
IV.안심형	문화교차학적 감정교육+조부모	소통력 강화	시니어 선생님 감정교육 필요

3. 격대교육의 장점

격대교육은 전통사회의 대가족 안에서 자녀교육의 한 방식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자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일상생활을 통해 가르치는 교육이다. 부모는 조부모보다 자식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어떻게 하던 잘 가르치고 싶은 욕심이 앞선 나머지 조장을 하게 된다. 또한 자녀가 기대한 만큼 따라주지 않으면 다그치거나 화를 내게 되어 자녀는 주눅이 들 수밖에 없다. 오히려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 제대로 될까 염려가 된다. 고전에서도 자식 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논리를 확인해볼 수 있다.

「맹자」에서는 ‘자식을 서로 바꾸어 가르친다.’⁷²⁾라고 했으며, 공자는 「논어」에서 ‘군자는 자기 아들을 멀리한다.’⁷³⁾고 했다.

이처럼 감정의 자기 이해가 아직 안 된 부모보다는 체험을 통해 지혜를 갖춘 시니어 선생님은 원하는 대로 해도 탈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감정을 자유롭게 통제하며 여유롭게 아이들을 대할 수 있으니, 격대교육을 하기에는 안성맞춤이라고 본다. 시니어 선생님은 세상사를 여유롭게 바라볼

72) 『맹자』, 「공손추 上」 : 易子教之

73) 『논어』, 「계씨(季氏)」 : 聞君子之遠其子也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이들을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아이들의 생각과 원하는 바를 귀담아들어 주는 여유를 갖는다. 또한 시니어 선생님들은 감정의 자유로움 안에서 아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기분을 북돋아 줄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억지로가 아닌 저절로 교육이 되는 것이다.

2012년 SBS 스페셜 ‘그들에겐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방송은 나와 여러 사람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특히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의 관심이 커서 방영되었던 내용이 2013년 9월에 책으로 발간되었다. 이 책의 내용은 격대 육아를 체험한 아이들의 생생한 이야기이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통한 육아의 지혜가 과학적인 힘으로 속속 입증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한 주립대학에서 대만의 중학교를 분석한 사례가 있었다. 그 결과 조부모와 부모가 함께 사는 중학생들이 핵가족 가정의 중학생들보다 월등하게 인지능력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더 놀라운 사실은 조부모와 부모가 함께 살아가는 기간이 길수록 인지능력 점수도 비례해서 높게 나타났다.⁷⁴⁾ 이와 같은 결과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이들은 핵가족 그룹보다 졸업률도 높았고, 핵가족 가정의 아이들보다 약물과 알코올 의존도가 낮았으며, 졸업 성적 또한 월등히 높았다.⁷⁵⁾

이처럼 격대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격대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들보다 학업성적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에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례에서 나타났다. 격대교육이 실제로 아이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과 실제 교육적 측면에서의 결과도 좋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나는 격대교육은 문화교차학적 감정교육이라고 본다. 시니어 선생님의 체험 지혜가 빛이 나고, 감정의 자기 이해가 갖춰진 그들을 통해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펼치는 것이며 교육을 올바르게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이다.

74) SBS 스페셜 제작팀, 『격대 육아법의 비밀』, 경향 미디어, 2013, 13~14쪽.

75) 위의 책, 18쪽.

4. 시니어 선생을 위한 문화교차학적 감정교육

1) ‘나’를 사랑하기.

주제	‘나’를 사랑하기	차시	1차시
대상	시니어 선생님	지도교사	
학습목표	‘나’를 되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바쁘게 살아온 자신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나의 노년의 삶을 이해한다.		

단계	수업 활동 및 내용	교수 - 학 습 활 동		수업자료 및 유의점
		교사 활동	학습자 활동	
시 작 하 기	인사	인사한다.	함께 인사한다.	
	교사 소개	진행교사와 보조 교사 소개		
	‘나’를 소개해요	참여자의 성장 과정이 담긴 개인 사진을 영상에 미리 담아놓는다. 준비한 사진을 보며 ‘나’의 살아온 시간을 회상해 본다. 현재 자신 노년의 삶을 이해한다.	수업에 참여한 시니어 선생님들이 소감을 발표하고, 자신 노년의 삶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시청각 자료
알 아 가 기	‘물’붓기 감정교육	차례로 한 사람씩 나와서 물을 부으며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한다. 평소 담아두었던 속 깊은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물 붓기 활동을 통해, 나를 성찰하고 시니어 선생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한다.	‘물’붓기 체험준비
	나무	‘나’의 재능에 대하여 알아보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재능을 나누기 전에 ‘나’를 사랑하기가 먼저임을 알고, 실천을 위해 마음이 중요함을 깨닫는다.	재능 나무
	재능 그림 찾기	여러 그림을 보여주고 나의 재능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질문한다.	그림을 보며 재능을 실천하는 그림인지 아닌지 맞히어 본다.	재능 그림
마 무 리 하 기	재능 실천 약속하기	재능 나뭇잎을 나누어 준다. 재능 나뭇잎에 이름을 쓰고, 나누고 싶은 재능을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재능 나뭇잎에 이름을 쓰고, 나누고 싶은 재능을 적어본다.	재능 나뭇잎 & 싸인펜
	인사하기	인사한다.	인사한다.	

2) ‘나’와 달라요.

주제	‘나’와 달라요	차시	2차시
대상	시니어 선생님	지도교사	
학습목표	우리는 소중한 존재로 보편성의 바탕으로 특수성이 발현된다. 각각의 특수성은 나와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이해한다.		

단계	수업 활동 및 내용	교수 - 학 습 활 동		수업자료 및 유의점
		교사 활동	학습자 활동	
시작하기	인사	인사한다.	함께 인사한다.	
	교사 소개	진행 교사와 보조 교사 소개		
	우리는 소중해요	참여자의 가계도를 그려보는 시간을 준비한다. 자연의 사계절 변화를 보며 인간의 삶 이치와 같음을 이해한다.	시니어 선생님들의 자신과 가족을 소개하고,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의 이치를 깨닫는다.	시청각 자료
알아가기	나와 달라요	차례로 한 사람씩 나와서 자신의 잘하는 점과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하여 발표한다. 나와 다름은 틀림이 아님을 알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다.	발표하기 활동을 통해 나와 서로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서로가 존중해야 함을 안다.	발표하기
	나의 강점과 보완할 점	준비한 강점 카드와 보완 카드에 나의 강점을 적어보고, 보완해야 할 점을 적는다.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나의 강점과 보완할 점에 대하여 적어보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특성에 대하여 안다.	카드
	분류하기	참여자의 강점 카드와 보완 카드를 분류하여 개인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강점과 보완점을 알아본다.	분류한 카드를 통해 참여자들의 강점과 보완할 점을 알고, 강점을 중심으로 실천한다.	분류 틀
마무리하기	강점 실천 약속하기	자신의 강점 카드를 나누어 준다. 강점 카드 중에 실천하고 싶은 순서대로 번호를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강점 카드에 실천하고 싶은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본다.	강점카드
	인사하기	인사한다.	인사한다.	

3) 할 수 있어요.

주제	할 수 있어요	차시	3차시
대상	시니어 선생님	지도교사	
학습목표	시니어 선생님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탈이 없다.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가 있기 때문임을 안다.		

단계	수업 활동 및 내용	교수 - 학 습 활 동		수업자료 및 유의점
		교사 활동	학습자 활동	
시 작 하 기	인사	인사한다.	함께 인사한다.	
	교사 소개	진행 교사와 보조 교사 소개		
	나는 지혜자.	성장기의 기억을 통해 조부모의 역할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현재 노년이 된 나와 조부모의 모습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성장기의 기억을 통해 자신의 조부모 지혜를 되새겨 본다. 조부모가 된 현재 나의 모습을 안다.	시청각 자료
알 아 가 기	나는 좋은 사람	자신의 선한 삶에 대한 자존감을 느끼게 하고, 현재 가정 내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차례로 한 사람씩 나와서 발표한다.	선한 삶을 통해 자존감을 갖고, 가정 내에서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발표하기
	감정 이해	체험을 통해 지혜를 챙기신 참여자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탈이 없다. 감정의 자기 이해가 된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있음을 안다.	감정의 자기 이해가 된 참여자는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한다. 그러기 때문에 여유로운 가운데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다.	사례 탐구
	나는 잘할 수 있어	나의 재능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게 한다. 사회참여로 인해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할 일이 있음을 알고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느낀다.	분류표
마 무 리 하 기	마음으로 안아 주기	살아온 체험을 통해, 아이들은 ‘때가 되면 다 한다.’라는 자명한 사실을 알고 있기에 여유롭게 기다려줘야 하며, 격려와 칭찬으로 기분을 북돋아 준다.	‘나’의 소중함을 알고, 나의 재능을 존중하며, 나와 내가 다름이 아니고 하나라는 자명한 사실을 안다. 여유롭게 기다려주면 자연스럽게 보편성을 바탕으로 특수성이 발현될 수 있다.	안심카드
	인사하기	인사한다.	인사한다.	

제3장 한국사회의 현실과 격대교육의 필요성

제1절 새로운 대안, 격대교육

1. 교육환경의 변화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단기간의 경제적 발전과 함께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돼 왔다. 이에 따라 가족 제도에 있어서도 핵가족화가 진행되었고 조부모 세대와의 단절된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가정 내에서 세대 간의 만남의 기회마저 줄어들어 현실에서 유아와 조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문화적 공유를 위한 여유를 잃어버린 지 오래다. 궁극적으로 세대 간의 감정의 이해와 정(情)을 나누는 여유마저 없어진 것 같아 연구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사회적 변화와 함께 오늘날 유아교육은 전통적인 ‘무릎 학교’⁷⁶⁾방식의 의미보다는 서양의 교육방식을 우선시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서구의 교육 프로그램이 최고의 교육방식이라는 사고가 지배적이다. 아이들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돕는 방식보다는 서양의 계몽주의와 개인주의적 사고 중심의 접근방식을 따르는 것이다. 합리성과 논리성을 중시하는 서양의 교육방식이 그동안 현장에서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끊임없는 경쟁 구도 속에 직면하고 있다.

미래학자 후쿠야마는 “근대교육은 상대주의 경향을 자극하는 것이다. 상대주의란 모든 틀과 가치체계가 그 시대와 장소와 상관관계가 있고, 진실이란 무엇 하나 존재하지 않으며 가치체계는 모두 그것을 제창한 사람들의 편견과 이해관계의 반영에 지나지 않는다.”⁷⁷⁾라는 비판을 하고 있

76) 유안진,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285~286쪽 및 323~324쪽

77) 프랜시스 후쿠야마, 이상훈 옮김(1992), 『역사의 종말』, 한마음사.

다. 이는 그동안 비판 없이 수용되고 있던 서양 근대교육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비판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소홀히 하여왔던 우리 전통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다시 전통적 교육, 특히 격대교육의 적용 가능성과 그 중요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우리의 전통 교육은 인간의 본성인 선(善)함을 중시하였다. 부모는 자손의 착한 성품(善性)이 그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참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해왔다. 이러한 교육 사상은 자손을 도덕적이며 예(禮)를 갖춘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이 되었다.

논어(論語)의 “군자는 그릇처럼 국한되지 않는다.”⁷⁸⁾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어릴 적 전인교육을 통하여 자손의 소중한 본성과 다양한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 있는 교육 사상을 강조하였다.

율곡은 격몽요결(擊蒙要訣)⁷⁹⁾에서 뜻을 세움(立志), 구습을 뛰어넘음(超舊習), 몸을 지킴(持身), 독서(讀書), 아버지를 섬김(事親), 상례(喪制), 제사(祭禮), 집의 예절(居家), 사람을 대함(接人), 세상을 살아감(處世) 등을 거론하여 단순한 지식과 인성의 결합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수신(修身)과 그 실천을 강조하였다.

전통적 교육방식을 발전적으로 수용하는 격대교육은 결코 유교적 전통 사회에 필요한 고전적 인간 양육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세상에 필요한 ‘일상적 창의성(everyday creativity)⁸⁰⁾’을 갖춘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간을 기르는 새로운 세대 간 협력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파비엔 구-보디망(Fabienne Goux-Baudiment)은 미래 교육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로 “정보에 대한 비판 능력, 역사 조망 능력, 휴머니즘에 바탕을 둔 공공 도덕의식”⁸¹⁾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의 실정에 맞는

78) 『논어』, 「위정」 제12장 : “子曰, 君子不器.”

79) 율곡 이이 저, 김원중 역 (2015), 『격몽요결』, 민음사.

80) 손병욱(2009), 『한국의 미래비전과 인성교육(1)』, 선비문화. 16권, 남명 학 연구원, 80쪽.

81) 신지은·박정훈 외 3인(2008), 『세계적 미래학자 10인이 말하는 미래 혁명』, 일소 포켓북, 131쪽.

새로운 교육 방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여 사회적 화합과 공유의 활성화를 통해 세대 간의 격차를 넘어서야 한다. 새로운 교육 방식에서는 사회적 공유와 소통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2. 현대적 격대교육의 필요성

우리의 전통적 삶의 방식은 자연에 순응하며 그 섭리를 존중하는 천지인(天地人) 합일 사상의 추구였다. 공자도 인간의 본성과 교육에 대하여 「論語」에서 ‘性은 서로 비슷하지만, 습관에 의하여 서로 멀어진다.’⁸²⁾라고 말하며 타고난 본성의 발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습관화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급격한 현대화의 진행에 따른 핵가족화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자녀 양육방식의 재고와 함께 노인세대와의 연계방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격대교육(隔代教育)은 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손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교육하는 것으로 우리의 선조의 지혜가 담긴 전통교육으로 전 세대의 풍부한 지혜와 체험을 대물림하는 교육방법이다.⁸³⁾

격대교육(Grandparenting) 또는 세대통합(Generation Integration)이란 세대간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진 조화로운 모습으로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화목하게 서로 어우러져 화합이 잘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⁸⁴⁾ ‘세대공동체(Community of generations)’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 세대 혹은 다양한 연령집단이 함께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세대통합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⁸⁵⁾

82) 『논어』, 「양화」 제17 : 子曰, 性相近也, 習相遠也

83) EBS 역사 채널©, 국사편찬위원회 (2013). 『역사 e: 세상을 깨우는 시대의 기록』. 서울: 북하우스.

84) 허우정·하은옥·김은주·조민영·임부연·황해익.2006.“유아교육기관에서의노인-아동 세대통합프로그램의 의미와 효과.”『유아교육학 논집』 10(4):331-35

체험과 지혜의 노인세대와 유아 세대가 상호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1·3세대 통합 교육은 사회의 유지 존속이란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격대교육은 노인들의 지혜를 유아 세대에게 전수한다는 측면에서 유아들에게는 체험을 통한 지혜와 지식을 전수하고, 노인들에게는 가정에서의 역할과 교육 참여의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상호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겠다.

격대교육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오늘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정란(2001)은 세대 간 통합 프로그램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 이유로 고령화와 세대 간의 갈등, 핵가족화와 세대 간 접촉의 부재, 전통문화의 전수와 정신문화의 위기를 언급하고 있다.⁸⁵⁾

첫째, 고령화와 세대 간 갈등의 문제이다.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세대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세대들 간의 의미 있는 만남과 접촉을 통하여 상호 간의 오해와 편견을 적극적으로 줄이고 이해의 폭을 넓히려는 세대 공동체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핵가족화와 세대 간 접촉의 부재에서 오는 세대 단절의 문제이다. 과거 3대 이상이 한 지붕 아래서 거주하던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노인이 손자녀와 접촉하고 교류하면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오늘날 우리의 생활방식은 더는 과거와 같은 기회와 공간이 제공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에 의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비동거 자녀가 일주일 1회 이상의 왕래를 하는 경우는 전체의 38%로 나타났으나 손자녀의 경우 14%로 나타나 차세대와의 단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유추되고 있다. 따라서 세대 간 접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기회와 공간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즉, 격대교육 및 유로(幼老)복합시설을 통하여 서로 다

85) 최은진 (2013), “세대통합 집단사회복지실천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86) 한정란 (2001), “노인교육과 세대통합: 세대공동체 교육” 한국성인 교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23-34.

른 세대들이 상호 교류하고 작용하면서 서로 간의 이해와 배움을 통해서 세대 간의 간격을 메우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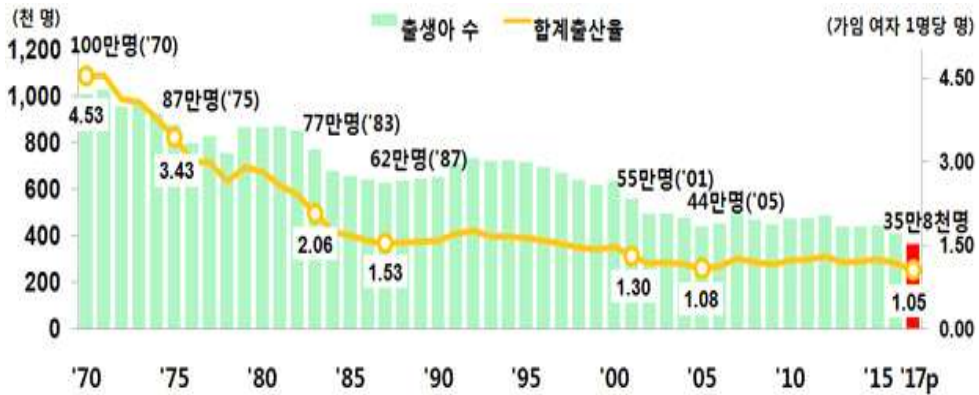
셋째, 전통문화의 전수와 정신문화의 위기 문제이다. 전통적인 가족 구성 하에서는 가족 내 생활이 바로 집안의 전통과 가치관을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핵가족화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전통과 가치관의 전달이 현실적으로 단절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체험과 지혜의 교류가 단절되고 사회적 전통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격대교육은 단순히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손자와 손녀들에게 밥상머리 교육을 하는 개인적 수준이 아니라 사회적 화합과 전통계승이라는 측면에서도 접근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노년은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다. 노년의 삶이 단지 늙어간다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격리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과 같다.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노인 문제를 더는 미루어 두기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제2절 인구·환경적 변화

1. 출생 인구와 취원 아동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대 6명대에서 70년대 3명 수준으로, 80년대 초 2명을 웃돌다가 후반기에 2명을 밑도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90년대 합계출산율은 1.5명의 수준을 보이다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결국 2017년 역대 최저치인 1.05명으로 떨어져 OECD 국가 중 최저의 수준을 보이며 향후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오고 있다.

[그림 13] 국내 출산아 수 및 합계출산율 변화



출처 : 한겨레, ‘초저출산’ 늪에 깊이 빠진 한국, 미래가 두렵다, 2018. 02.28

저출산의 요인으로서는 인구학적으로는 임신이 가능한 연령대의 인구감소, 만혼과 초산 연령의 상승, 기혼 가구의 평균 출생아 수 감소와 함께 결혼 연령층의 혼인을 감소도 그 하나의 원인이다. 환경적인 요인으로 국회예산정책처⁸⁷⁾는 보육 시설의 공급이 임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서 그간 출산율을 높이고 보육환경을 개선하는데

87) 국회 예산정책 처,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2018. 10.

정책의 중점을 두었다가 이제는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 삶의 질을 개선하고 비혼 출생 등 모든 출생이 존중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쪽으로 옮기고 있다. 이제는 보육환경의 단순한 양적 개선에서 질적인 개선과 확충을 통하여 양질의 보육환경을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표 2] 공·사립 유치원 원아 수

구 분	만 3세 이하	만 4세	만 5세	만 6세	합계
공립	2,935	5,373	6,693	2	15,003
사립	19,749	27,613	26,618	4	73,984

출처 : 2017 교육통계연보 (단위 : 명)

국내 유아시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 8,987개 (2016년 기준)의 유치원에 약 8만 9천 명의 유아가 취원하고 있으며, 어린이 집의 경우 전국 41,084개소에 234,867명이 취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3] 어린이집 운영 형태 별 이용률

구 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	법인·단 체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합계
정원	81,612	2,266	6,366	112,384	46,895	928	17,649	268,100
현원	74,098	1,878	5,337	97,215	42,804	795	12,740	234,867
이용률	90.8	82.9	83.8	86.5	91.3	85.7	72.2	87.6

출처 : 2017년 보육통계 (단위 : 명)

2. 노인 인구의 변화

출생률의 감소와 함께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 중요성이 국가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1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의 13.8%이며, 이러한 노인 인구의 규모는 2025년이 되면 1,000만 명을 넘고 2035년이 되면 약 1,500만 명에 달하며 노인 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약 3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인구 비중의 증대는 노인에 대한 관심과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표 4] 인구고령화 추이

	2017	2020	2025	2030	2035
총인구(천명)	51,446	51,974	52,610	52,941	52,834
65세 이상 노인(천명)	7,076	8,134	10,508	12,955	15,176
노인 인구 구성비(%)	13.8	15.6	20.8	24.5	28.7
노년 부양비	18.8	21.8	29.4	38.2	47.9
노령화 지수	104.8	123.7	165.6	212.1	253.7

출처: 2016 장래인구추계,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주: 1) 노년 부양비: (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으로 산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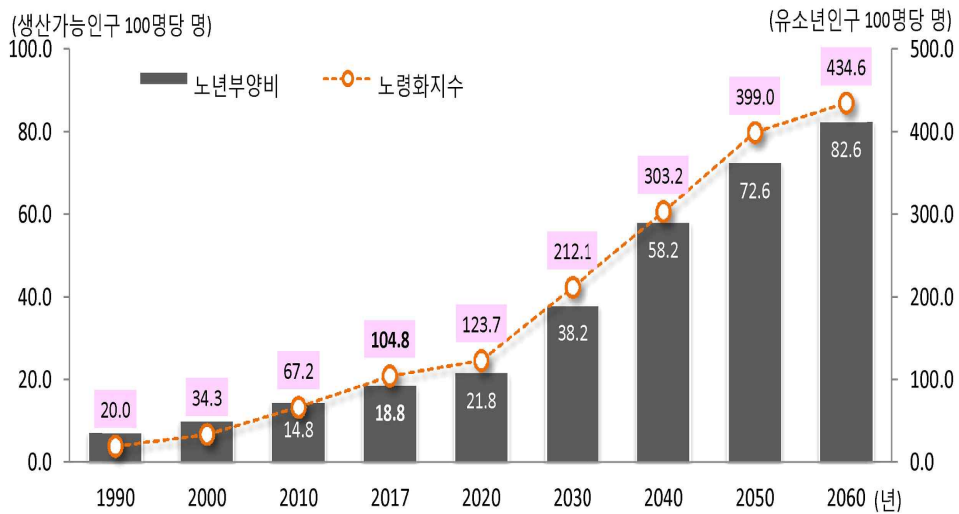
2) 노령화지수는 유소년(0~14세) 인구 100명에 대한 65세이상 고령 인구의 비임.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의 고령화 지수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노년부양비가 급증할 것으로 통계청을 추계하고 있다. 2017년 기준 노년부양비는 18.8명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고령자 1명 기준 생산가능 인구 5.3명이 부양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50년 노년부양비는 72.6명, 고령자 1명당 생산가능 인구는 1.4명으로 증가해서 거의 4배 수준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2017년 처음으로 만 65세 이상 비율이 14%를 넘기며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에게 더욱 문제가 되는 고령화의 진행 속도에 있다.

프랑스는 고령사회 진입에 115년, 미국이 73년, 독일 40년, 일본 24년이 걸렸던 것에 비하여 우리의 경우 단지 17년이 소요되었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 고령 사회로의 진입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인 9년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39년, 독일 37년, 미국 21년, 일본 12년에 대비하여 9년이라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초 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림 14] 고령화 지수의 변화



자료: 통계청, 2017 고령자 통계

주 : 1)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 × 100

2)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 × 100

3) 고령자 1명당 생산가능인구 = 15~64세 인구 / 65세 이상 인구

한편, 2017년 고령자 가구는⁸⁸⁾ 399만 9천 가구로 전체 인구의 20.5%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이 비중은 지속해서 확대되어 2030년 33.9%, 2040년 44.3%로 증가하고, 2045년에는 2017년 대비 2.7배가 늘어난 10,653가구에 달해 전체 가구의 47.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88) 고령자 가구란 가구주 연령 평균이 65세 이상을 의미한다.

[그림 15] 주요국 고령화 속도 비교



출처: 임도원, 일본 24년 걸린 '고령사회'. 한국, 17년밖에 안 걸렸다, 한국경제, 2018.08.27.

고령자 가구의 유형별 구성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33.4%이고, 다음으로서는 부부, 부부+자녀 그리고 부(모)+자녀 유형의 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고령자 가구 추이

				고령자 가구 유형 및 구성비2)			
	총가구	고령자 가구	비중	부부	부부+ 자녀	모+자녀	1인가구
2000	14,507	1,734	11.9	33.1	10.6	4.5	31.4
2005	16,039	2,350	14.7	33.9	10.3	4.9	31.7
2010	17,495	2,923	16.7	33.7	9.8	5.1	33.9
2017	19,524	3,999	20.5	32.7	9.8	5.5	33.4
2020	20,174	4,607	22.8	32.4	9.8	5.5	33.8
2025	21,014	5,944	28.3	31.9	10.0	5.5	33.5
2030	21,641	7,336	33.9	31.8	10.0	5.4	33.9
2035	22,067	8,656	39.2	31.3	9.7	5.2	34.7
2040	22,306	9,890	44.3	30.3	9.5	5.0	35.0
2045	22,318	10,653	47.7	29.1	9.2	4.8	34.9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17. 4.

통계청 장래 가구 추계에 따르면 2045년에는 이러한 고령자 가구 유형 중 “1인 가구”가 3,719가구로 전체 고령자 가구의 34.9%로 지속해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고령자 가구의 비중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1인 노령자 가구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3. 노인의 경제활동

2017년 고령자(55~79세) 중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62.4%로 전년보다 1.2% 증가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자는 성별에 상관없이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지속해서 20% 이상 취업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6] 취업의사 및 취업희망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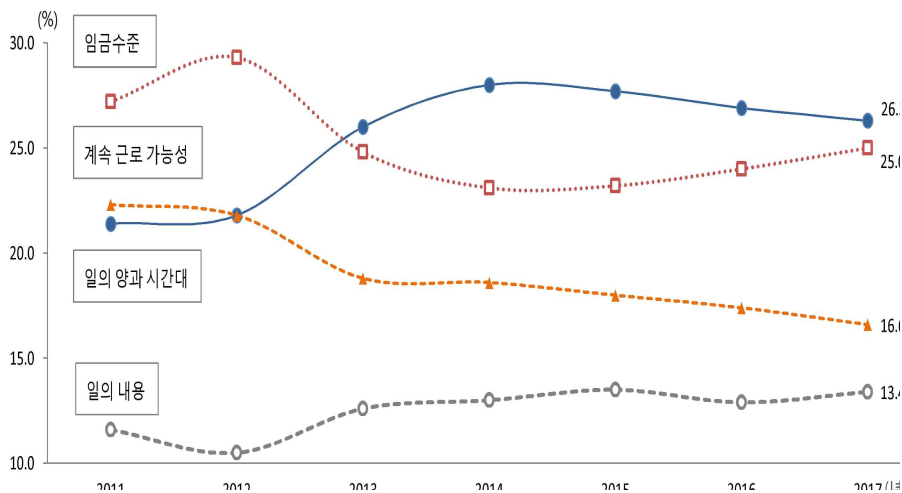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2017년 기준, 고령자들이 일하기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생활비 보탬”이 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하는 즐거움 (34%),” “무료해서 (3%),” “사회가 필요로 함(2%)” 그리고 “건강 유지(2%)”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중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일자리 선택 기준으로는 “일의 양과 시간대(26.3%)”를 가장 높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임금 수준(25.0%)”, “계속 근로 가능성(1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남자는 “임금 수준”, 여자는 “일의 양과 시간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학력이 높을수록 “일의 양과 시간대”보다 “일의 내용”, “과거 취업 체험 연관성” 등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7] 고령자의 일자리 선택기준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따라 건강하고 경제력 있는 노년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노인의 사회 활동은 향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젊은 세대의 부양의식 감소로 인해 노인들도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자립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노인들은 여가를 이용하고, 자기계발을 추구하여, 무력감과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급속하게 변해가는 사회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여가활동, 교육, 자원봉사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회적 참여 활동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는 노인의 사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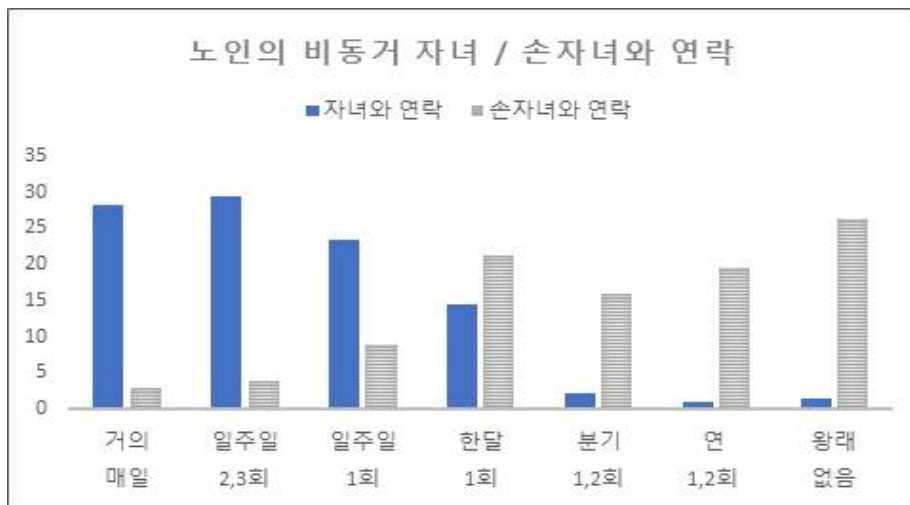
증진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노인의 사회적 참여 기회를 높이려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4) 세대 간 왕래 빈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의 약 30%가 비동거 자녀들과 거의 매일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주일 1회 이상의 연락하는 경우는 전체의 81%이며 한 달에 한 번 이상이면 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자녀와의 연락을 일주일에 1회 이상 하는 경우는 전체의 16%이며 한 달에 한 번 이상이면 37%인 것으로 나왔으며, 63%의 손자녀의 경우 한 달 1회 미만으로 노인들과 연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대비 손자녀와 연락하는 경우는 그 빈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8] 노인과 비동거 자녀 및 손자녀와의 연락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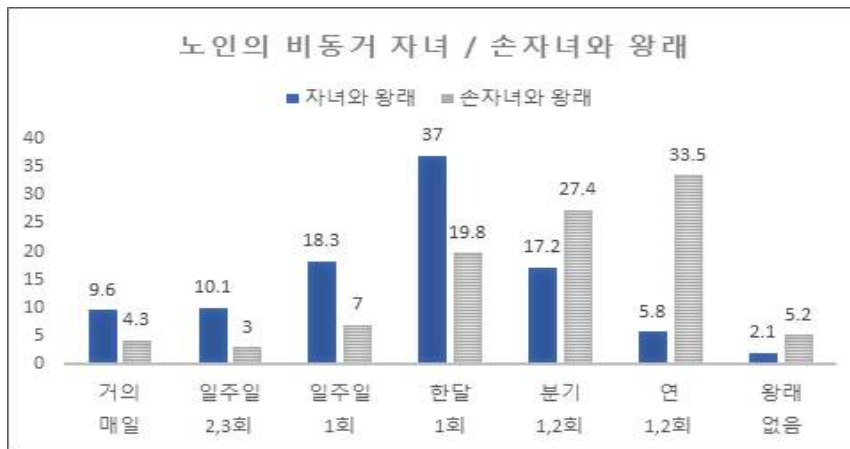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약 10%만이 비동거 자녀들과 거의 매일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주일 1회 이상의 왕래를 하는 경우는 전체의 38%이며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7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25%의 경우 분기 1, 2회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 노인들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손자녀와 왕래의 경우, 일주일 1회 이상이면 전체의 14%이며 한 달에 한 번 이상이면 34%인 것으로 나타나, 66%의 손자녀의 경우 한 달 1회 이하의 경우로 노인들과 접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9] 노인과 비동거 자녀 및 손자녀와의 왕래 빈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와의 왕래 대비 노인과 손자녀의 왕래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손자녀와 노인과 느슨한 관계는 결국 세대 간의 이해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절 노인복지시설 현황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들의 복지 필요에 따라 주거, 의료, 여가, 재가, 보호 그리고 일자리로 구분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크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 노인 여가, 재가 노인복지시설과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의 6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첫째,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구성되어 주로 노인들의 주거와 급식을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둘째,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 증상을 보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이다.

셋째,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 교실로 구성되어 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경로당과 노인 교실은 친목 도모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넷째, 재가 노인복지시설은 주로 장기요양 수급자나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노령자를 위한 방문 요양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째,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학대를 받는 노인을 위한 상담, 보호, 예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은 노인의 일자리 개발, 지원, 육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표 6]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종 류	시 설	설 치 목 적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인공동 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 인 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요양 시 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 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 인 복 지 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경 로 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
재가노인 복지시설	방문요양 서 비 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주·야간 보 호 서 비 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단기보호 서 비 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방문목욕 서 비 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교육 및 각종 서비스
노인보호 전문기관		시·도지사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운영, 노인학대 신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간 신고·상담용 긴급전화(1577-1389) 운영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출처: 보건복지부, 2018 노인복지시설 현황, 2017.12.31.일 현재기준

이상 6가지 종류의 노인복지시설 중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관만이 노인들의 여가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교양·취미생활과 사회참여 활동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와 세대 간 교류와 협업을 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노인복지시설 현황

노인복지시설 중 2016년 기준 가장 시설 수가 많은 시설은 경로당으로 전국 65,044개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노인 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3,136개),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2,027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 전국 노인복지시설 연도별 시설 수 및 입소정원

시설 종 류		2016		2015		2014		2013	
		시설 수	입소 정원	시설 수	입소 정원	시설 수	입소 정원	시설 수	입소 정원
합 계		75,708	212,601	75,029	201,648	73,774	190,162	72,860	174,592
노인주거복지시설		425	19,993	427	19,909	443	20,110	435	18,592
노인의료복지시설		5,163	167,899	5,063	160,115	4,841	151,200	4,585	139,939
노인여가복지시설		66,787	0	66,292	0	65,665	0	64,983	0
	노인복지관	350	0	347	0	344	0	319	0
	경로당	65,044	0	64,568	0	63,960	0	63,251	0
	노인교실	1,393	0	1,377	0	1,361	0	1,413	0
	노인휴양소	0	0	0	0	0	0	0	0
재가노인 복지시설		3,168	24,709	3,089	21,624	2,797	18,852	2,832	16,061
노인보호전문기관		29	0	29	0	28	0	25	0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36	0	129	0	0	0	0	0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통계정보 보고서, 2017. 12.에서 발췌

또한, 전국적으로 국내의 노인복지시설 수의 2012년 대비 2016년 가중 평균 성장률은 1.3%로 나타났다. 동 기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시설은 재가 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 보호 서비스(6.6%)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재가 노인복지시설 중 재가 지원 서비스(4.8%), 노인 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4.7%)과 노인 요양 공공생활가정(3.9%) 그리고 노인복지관(3.9%)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노인복지시설 중에 성장률이 높고 시설 이용자들의 신체적 활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사회활동 참여가 가능한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노인복지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격대교육의 출발점으로 노인복지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연계점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3. 노인복지관 운영현황

1) 노인복지관의 발전과 역할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제1항 1호에 따르면 “노인복지관이란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과 소득보장’ 재가 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 정의하고 있다. 노인복지관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고, 1982년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노인복지회관의 운영근거가 마련된 이후 1989년 노인복지법 1차 개정 시 노인 여가시설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되었으며 노인복지관이 오늘날과 같은 운영 기준을 갖게 된 것은 2004년 노인복지관 운영지침이 마련되고, 노인복지관의 기능이 처음으로 규정됨에 따른 것이었다. 한편, 2007년 노인복지법 개정 과정에서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이 “노인복지관”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1989년 5월 시범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시립 노원 노인종합복지관과 시립 관악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이 시작되었다. 상담사업, 사회교육사업, 재가 복지사업을 시행하였고, 이후 고령자 취업 알선센터 개설(1992.10), 치매 주간보호소 개설(1992.12), 가정봉사원 위탁 교육 시행(1995.9), 치매 단기 보호 사업 시작(1996년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중풍 주간보호소 개설(1998.10, 노원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사업(2000년 노원, 관악) 등 사업을 확장하면서 노인종합복지관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 최초로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침을 마련하였고, 13개의 노인복지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였다.⁸⁹⁾

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사회의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로 이용자를 제한하는 개념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과 지역사회의 일반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종합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이다. 따라서 노인복지관은 건강한 노인들의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노화 예방과 건강 증진을 돕는 역할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불편한 노인들에게도 재활을 돕는 역할을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 보건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노인복지관의 운영 목표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첫째, 건강한 노후를 위한 예방과 취약 노인 보살핌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확충이다. 둘째, 활동적인 노후를 위한 사회참여 여건을 조성하고 활성화하고자 한다. 셋째, 안정적 노후를 위해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화와 실제 가능한 사례 발굴을 통해 성공적인 노후를 보장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의 중심적 역할 수행으로 정의하고 있다.⁹⁰⁾

임병우(2007)⁹¹⁾는 노인종합복지관의 그 존재 이유라 할 수 있는 미션(Mission)으로 “성공적인 노후(Healthy, Active, Productive Ageing)”를 제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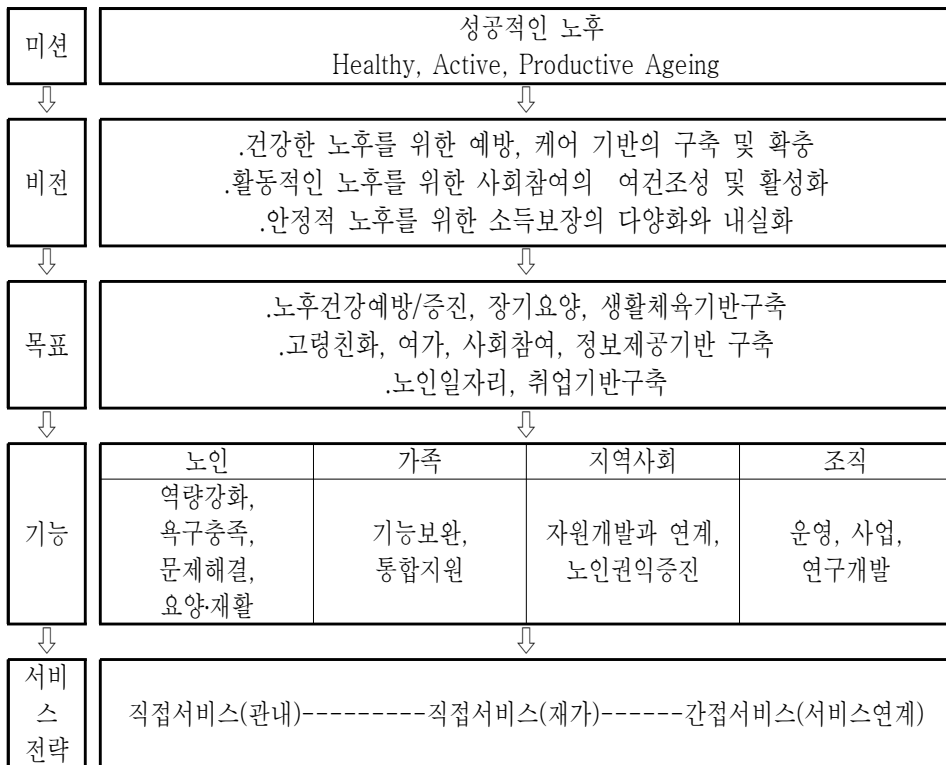
89)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홈페이지(<http://www.kaswcs.or.kr/>)

90) 보건복지부, 2018 노인 보건복지사업 안내(II), p.102

91) 임병우, 노인복지관의 기능 재정립에 대한 연구, 보건복지부 수탁과제, 2007. 12. 31. p.92

이에 따라 미션 및 비전 실현을 위한 복지관의 발전전략 목표를 세웠다.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노후건강 예방 및 증진, 장기요양, 생활 체육 기반 구축, 사회적 활동을 위한 여가, 사회참여, 고령 친화, 정보제공 기반 구축 그리고 경제적 여유를 위한 노인 일자리 및 취업기반 구축이라는 영역에서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표 8] 노인종합복지관의 미션, 비전 및 서비스 전략 체계



출처: 임병우, 노인복지관의 기능 재정립에 대한 연구, 보건복지부 수탁과제, 2007. 12. 31. p.92

노인종합복지관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로는 노인과 그 가족 그리고 노인이 속해있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운영 주체는 노인종합복지관 자체의 조직을 포함하고 있다. 노인종합복지관의 역할로는, 첫째 노인의 건전한 생활을 위하여 소득과 고용, 주거, 건강생활, 평생교육 지원,

그리고 취미와 여가, 사회참여, 정서 생활 지원에 목적을 둔 서비스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노인의 가족과 관련하여 부양가족의 부양 부담을 낮추고 가족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가족 기능을 지원하고 가족통합지원에 목적을 둔 서비스를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노인이 속한 지역사회와의 관계 강화를 위하여 지역 복지연계, 지역 자원개발, 노인권익증진의 서비스 기능이 수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운영관리, 사업관리,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해야만 한다.

2) 기본사업 및 복지운영 프로그램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 목표 달성을 위하여 재가 복지사업, 사회교육사업, 기능 회복사업, 복리후생 사업, 상담사업, 지역복지 협동사업 등의 기본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경로당 활성화 사업, 단기 보호 사업, 고령자취업 알선사업 등의 별도 단위사업이 있다.

서울시 소재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를 보면, 기본사업으로 상담, 재가복지, 사회교육, 기능 회복, 지역복지 협동 그리고 복리후생의 6가지 영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⁹²⁾

권중돈(2003)은 노인복지시설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교육, 재활, 건강, 여가·취미, 경제·소득, 봉사, 문화 활동·사회 참여, 종교, 특별행사 등 9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⁹³⁾ 서울시 노인복지관에서 향후 확장 가능한 영역은 봉사, 사회참여, 종교, 특별행사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노인들의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는 노인의 자기 만족감 제고와 함께 사회 공헌이라는 점에서 성취감과 지역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이 증대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하겠다.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기본사업의 구체 내용은 다음과

92) 서울복지재단, 『재가 노인복지 프로그램 매뉴얼』, 2006년 9월

93) 권중돈. 노인복지시설 현장에서의 프로그램 계획과 진행.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2203년도 전국 노인 양로시설 신규생활 지도원연수회 자료집. 147-170.

같다.

[표 9]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의 기본사업

사업구분	사업내용
상담	.이용상담, 생활상담, 법률상담, 전문상담, 인간관계 훈련 프로그램 등
재가복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재가노인 지원사업 : 주건환경개선서비스, 방문간호 사업, 건강영양식 배달사업, 재활기구지원사업, 밀반찬배달서비스, 도시락배달 서비스, 재가대상노인 사례관리 .주간보호사업 : 중풍, 치매어르신 보호 및 기능강화 훈련
사회교육	.교양교육 : 서예, 한글, 영어, 일어, 컴퓨터교실, 교양강좌 등 .건강증진 : 건강체조, 에어로빅, 요가, 수지침, 스포츠댄스, 생활체조, 탁구교실, 발건강교실, 건강강좌 등 .취미여가 : 포크댄스, 레크레이션, 가요교실, 합창반, 한국무용, 민요교실, 장고교실, 종이접기, 포켓볼, 오색점토, 신문지공예, 한지공예
기능회복	.물리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 .진료실 : 전문의 진료, 건강체크, 보건교육, 치매검사, 건강교실
지역복지협동	.자원봉사자 모집, 관리 및 육성 .홍보사업 / 결연, 후원사업 / 조사연구사업 .Food Bank지원사업 / 공동작업장 운영
복리후생	.경로식당 운영 / 이미용실 운영 / 목욕서비스 지원 .세탁서비스 /셔틀버스 운행

자료: 서울복지재단, 재가노인복지 프로그램 매뉴얼, 2006년 9월

기본사업 이외에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경로당 활성화사업, 고령자취업 알선센터, 단기보호사업, 노인그룹홈, 장례지원 서비스, 치매주간보호사업, 치매노인상담사업 등을 지역적 상황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3) 노인복지관의 기능 강화 필요 영역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기능과 서비스를 평가하고 향후 강화되어야 할 기능을 분석함으로써 노인들의 사회참여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연계의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임병우(2007)는 노인복지관의 기능과 서비스를 평가하고 앞으로 강화되어야 할 서비스 및 기능에 대한 평가를 도출하기 위하여 전국 140개소의 노인복지관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노인복지관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운영되고 있는 기능은 노인을 위한 취미와 여가, 평생교육, 건강생활이었으며,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기능은 조직 연구개발, 가족통합지원, 주거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0] 노인복지관 기능평가 및 향후 필요 기능

기능 및 서비스	현재 기능평가		향후 필요성		Gap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사회참여지원	121	4	158	1	3
지역자원개발	60	9	152	2	7
소득지원	71	7	126	3	4
지역복지연계	76	6	109	4	2
건강생활지원	192	3	103	5	-2
고용지원	78	5	95	6	-1
평생교육지원	207	2	91	7	-5
취미여가지원	286	1	85	8	-7
정서생활지원	62	8	66	9	-1
조직 운영관리	58	10	66	10	0
노인권익증진	14	13	62	11	2
가족기능지원	30	12	57	12	0
조직 연구개발	6	16	52	13	3
가족통합지원	7	15	44	14	1
조직 사업관리	45	11	38	15	-4
주거지원	9	14	26	16	-2

자료: 임병우, 노인복지관의 기능 재정립에 대한 연구, 보건복지부 수탁과제, 2007.12.31. pp.80~82, 내용 재정리 및 분석 (점수는 1순위는 5점, 2순위는 4점, 3순위는 3점, 4순위는 2점, 5순위는 1점을 부여하여 합산한 점수이며, 순위는 합산점수에 근거하여 설정함)

반면, 앞으로 강화되어야 할 기능 영역으로는 사회참여 지원, 지역 자원 개발, 소득지원, 지역 복지연계, 건강생활 지원 기능으로 나타났으며 주거 지원, 조직 사업 지원, 가족통합 기능 등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현재의 노인복지관 기능과 향후 필요성을 순위로 비교 평가한 결과, 현재보다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기능은 지역 자원개발, 소득지원, 사회참여 지원 그리고 조직 연구개발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조정

이 필요한 기능으로는 취미와 여가 지원, 평생교육지원, 조직 사업관리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은 현재의 취미와 여가, 평생교육 그리고 건강생활 중심의 기능을 바탕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향후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들이 요구하는 사회참여와 지역자원 개발 그리고 소득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4절 노인관련 공공정책

1. 노인관련 예산 및 지원 사업

2000년 이후 노인복지 예산은 지속해서 증가해 왔다. 특히 2014년 기초연금 도입 이후에는 기초연금액의 지속적인 인상과 수급자의 빠른 증가로 인해 예산액 또한 증가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 그런데도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8.6%로 OECD 평균(12.4%)의 4배에 달한다. 한국을 포함하여 호주 35.5%, 일본 19.4%, 그리스 15.8%, 미국 14.6% 등 5개 국가만이 OECD 평균을 상회(上廻)하는데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압도적으로 높다.⁹⁴⁾

노인 빈곤의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 문재인 정부는 사회의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하여 ‘사람 중심 경제’라는 비전을 세우고 관련 복지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있다. 그런데도 노인의 삶의 질과 빈곤에 대한 사회적 문제는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노인 계층의 상대 빈곤율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 노인복지 사업안내」⁹⁵⁾에 따르면 2018년 예산 총액은 2조 규모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7년 1.5조 대비 약 35%가

94) 이투데이, 한국, 노인 빈곤율 세계 최고...“연금청 설치해야!” 2018년 10월 25일

95) 보건복지부, 「2018년 노인복지 사업안내」

증액된 규모이다. 노인 관련 예산 중 그 규모가 가장 큰 것은 기초 연금적인 성격을 지닌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이며, 다음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 돌봄 서비스, 치매 관리체계 구축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대비 가장 예산 증액률이 높은 항목은 치매관리체계 구축과 노인요양시설 확충으로 나타났으며, 장사시설 확충은 감액하고, 노인 관련 기관지원과 양로시설 운영지원 및 노인 돌봄 서비스는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보건복지부 노인관련 예산 현황

구분	17년 예산	18년 예산	증액률
총계 (단위: 백만원)	1,489,132	2,011,590	35%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668,868	805,832	2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466,360	634,932	36%
노인돌봄서비스	166,762	193,850	16%
치매관리체계 구축	15,405	145,731	846%
노인요양시설 확충	21,841	86,412	296%
노인관련기관지원	48,693	49,871	2%
양로시설 운영지원	30,662	34,483	12%
장사시설 확충	31,806	21,352	-33%
기타	38,735	39,127	1%

자료: 보건복지부, 「2018년 노인복지 사업안내」, 노인 정책관실 주요사업 예산현황 재정리, p. 94

2. 노인복지사업의 내용

보건복지부의 노인 보건사업은 크게 노인을 위한 건강보장, 소득보장, 주거 보장,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구분된다.⁹⁶⁾

이중 노인성 질병 및 치매 환자 그리고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대상으

96) 보건복지부, 「2018년 노인복지 사업안내」

로 하는 건강보험은 주로 노인의 기본적인 건강 및 의료 보조를 위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 노인복지사업, 치매안심센터, 치매 검진, 치매 치료관리비 등으로 구성된다.

일상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대상의 주거 보장은 노인복지시설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제공의 목적으로는 노인 돌봄 서비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을 포함하는 노인 여가 복지서비스 그리고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사업이 있다.

다양한 정부의 노인복지사업 중 격대교육과 관련이 높은 사업으로는 노인의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과 관련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과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영역으로 판단된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지원 사업은 노인의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공익활동과 재능 나눔 활동과 노인 일자리, 인력파견, 시니어 인턴십, 기업 연계형 등의 취업과 창업을 통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노인의 지혜를 사회에 구성원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인 자원봉사회를 활성화하여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노인의 풍부한 인적 자원 활용을 극대화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노인들에게 합당한 봉사활동 개발을 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노인의 지식, 체험, 기술을 지역 내 사회복지 자원으로 유도하도록 한다. 또한, 노인 스스로 자립하고, 존경받으며 사회에 공헌하는 지혜로운 노인으로서의 새로운 노년 상을 제시하는 것을 그 세부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내용으로는 노인 자원봉사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봉사단을 구성하고 치매 예방, 노인건강증진, 노인 우울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연합회 지역 운영본부 단

위에서 이루어지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사업이 진행된다.

3. 노인 공공정책의 개선방향

국내 노인 관련 공공정책 및 예산은 대부분 노인의 질병 및 치매 환자에 대한 요양보호와 저소득 취약계층인 기초생활 수급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 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노인계층의 빈곤 해소 및 노후소득 강화라는 정책 효과 달성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할 것으로 예측되어서 근본적인 원인을 재검토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매년 큰 규모로 증가할 기초 연금 지급액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함께 향후 바람직한 제도 운용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노인 관련 예산 규모의 확대와 함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노인 관련 사업의 성격이다. 노인 관련 정책은 노인을 사회의 여러 세대와 함께 끊임없이 소통하고 접촉하는 계층으로 보기보다는 노인이라는 독자적이고 단절된 계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향후 세대 간 교류나 세대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만을 위한 노인들의 프로그램 운영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세대와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다세대 간의 교류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 효과를 측정하고 우리 전통문화와 가치에 부합하는 교육방식 및 세대공동체 운영 방식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중심의 거점에서 벗어나 대학의 연구자와 유치원·어린이집 그리고 민간단체와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세대 간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자는 격대교육과 이를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유로(幼老) 복합시설은 현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제도로써 선택이 아닌 필연이라고 본다.

제4장 격대교육을 위한 유로(幼老) 복합시설

제1절 해외 유로(幼老) 복합시설 및 격대교육

선진국들이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해온 유로(幼老)복합시설과 격대교육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고령화와 신생아 감소, 핵가족화를 체험한 일본과 미국, 호주의 사례들이다. 그리고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의 수용 가능성과 발전 방향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선진국들은 노인계층의 사회적 고립과 세대 간의 단절이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한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은 일찍이 1965년 정부 차원에서 세대교류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양조부모프로그램(Foster Grandparents Program)’을 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다양한 세대교류 활동이 퍼지었고 1999년 오하이오주 핀들 레이 대학에서 처음으로 ‘세대교류학(Intergenerational Studies)’이라는 과정이 개설되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2004년 5월 ‘일본 세대 간 교류협회’를 창립하고 세대 간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⁹⁷⁾

1. 일본의 유로(幼老)복합 프로그램

1) 일본의 유로(幼老)복합 시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고령 인구 급증으로 인하여 노인복지의 방향을 기존 시설중심에서 재택이나 지역복지 활동으로 전환하였다. 더불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자녀 양육 지원 시설이 다수 설립되면서 노인시설

97) 안태운, 서해정, 박혜선, 김명일, 세대교류를 위한 「3세대 이음 터」 운영모델 개발, (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1

과 유아시설을 합축 또는 병설하여 통합적으로 돌봄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세대 간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노인복지시설에서 다른 세대와의 교류를 시도하려는 복합시설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수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유로(幼老) 복합시설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국적인 상황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도쿄 도내의 노인과 아동 혹은 주민과의 복합시설에서 각각의 시설 복합화 형태와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⁹⁸⁾ 도쿄 노인·아동 복합시설의 개요

[표 12] 도쿄 노인·아동 복합시설의 개요

시설명	소재지	운영 주체	운영 형태	건물 형태	병설 시설	설립시기
고토엔	도쿄 에도가와구	사회복지 법인	사설	同棟 병렬형	특별양호노인홈, 양호노인홈, 데이스비스센터, 보육시설	1962년 10월
케어홈 니시오오이 고호엔	도쿄 시나가와구	사회복지 법인	공설민영	同棟 적층형	고령자임대주택 보육시설	2009년 3월
닛포리 커뮤니티	도쿄 아라카와구	민간기업, 보육원	구청이 토지구매, 복합경영	同棟 적층형	유로(幼老)노인홈, 보육원 집합주택	2003년 6월
시바우라 아일랜드 아동·고령자 교류플라자	도쿄 미나토구	재단법인 도쿄YMC A	공설민영	同棟 혼재 적층형	아동고령자교류플라자 보육원, 학동클럽	2007년 4월
신주쿠 고고 카라광장	도쿄 신주쿠구	사회복지 법인	구청이 토지대여, 민영과 구직영	別棟 통로없음	특별양호, 데이스비스센터, 보육원, 학동클럽, 다목적운동장, 구민농원 등	10년 5월 (특별양호 노인) 11년 4월 (아동가정 총합센터)

98) 전개서, pp.68~69

2) 고토엔(江東園)

일본의 유로(幼老)복합시설 중 선구적인 위상을 지니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연구되고 있는 고토엔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고토엔(江東園)은 1987년 아동과 노인 시설을 복합화한 매우 선구적인 곳이며, 일본에서의 세대교류 발전과정의 성격과 특징을 대표하는 곳이다. 사회복지법인 고토엔⁹⁹⁾은 1962년 양호 노인 홈을 설립하고, 1976년 동일 대지 내에 어린이집을 설립하였다. 1987년 행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낡은 시설을 개축하며 기존 시설에 특별 양호 노인 홈과 고령자 택배 서비스센터를 추가하여 노유복합시설로 합축하였다. 이후 1995년 다시 관계 공무원의 반대를 설득하여 지역 초등학교에 자원봉사를 요청하고 자원자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림 20] 일본 고토엔



고토엔의 운영목표는 첫째, 핵가족화에 따른 세대교류가 소멸하고 있으므로 노인과 어린이가 접촉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적인 감성을 키운다. 둘째, 다방면의 사람들과 접촉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인식할 수 있도록 대가족방식에 의한 성과를 지향함이다. 따라서 고토엔은 복합시설의 이점을 살려 상호교류를 촉진하고, 가족적이며 서로 배려하는

99) 고토엔(江東園) <http://www.kotoen.or.jp/>

명량한 시설을 지향하고 있다.

세대교류 프로그램을 고토엔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매일 아침 원아와 노인이 참여하는 합동 체조, 원아가 노인시설을 방문하여 휠체어 밀기, 대화 나누기 등의 활동을 하는 거실 방문, 노인이 낮잠 시간 원아의 잠옷을 갈아입기 도움, 마당 청소 등의 보육교류 활동, 생일잔치, 운동회 등의 계절 행사 교류, 그리고 지역교류공간을 이용한 지역사회교류 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림 21] 고토엔의 프로그램 사진



2. 미국의 Neighbors Growing Together

버지니아 공대(Virginia Tech University)에서 주관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인 Neighbors Growing Together(NGT)¹⁰⁰⁾는 아동과 노인, 두 집단

100) 미국 버지니아 공대 세대통합 프로그램.

<http://www.humandevlopment.vt.edu/ADS/adsIGprogram.html>

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두고 시작되었다. 아동과 노인세대가 더욱 효과적으로 상호 연계하는 체험을 하려면 아동 보육 및 노인학 분야 모두를 훈련받은 전문가와 어린이가 노인세대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돕고, 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 NGT 프로그램의 전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탄생한 프로그램이 바로 NGT인 것이다.

NGT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교육, 연구, 제반 활동을 포괄하는 다양한 세대 간 협동 프로젝트를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아울러 사회구성원들이 모든 세대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었다.¹⁰¹⁾

버지니아 공대의 교양학부(Liberal Arts and Human Sciences)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 학과 노인 분야에서 운영되었던 프로그램인 Adult Day Services(ADS)가 있다. 버지니아 공대는 이와 더불어 지역과 국가수준의 아동에 관한 교육 연구 및 서비스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학습 및 연구를 위한 아동발달센터(Child Development Center for Learning and Research, CDCLR)’간의 협업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하여 공동체 형성 프로젝트, 세대 통합교육, 아동-성인 상호작용 연구 등을 보다 활발하게 수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NGT 프로그램은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협동심 증진, 운동과 창의성 향상은 물론 집중력과 자아 존중감을 제고시키는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NGT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사회 유아와 노인 참여자들은 다양한 활동의 체험을 통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기회를 통하여 상호 간 공유의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NGT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현재 주로 유아와 노인 등 두 세대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여기에 더하여 대학교의 자원을 활용할 경우 자연스럽게 20대 젊은이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되어 좀 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01) 홍영란,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의 역할 : 해외 우수사례 분석 및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2014.

3. 호주 Kids Interacting with The Elderly¹⁰²⁾

성 미카엘 대학(St. Michael's Collegiate School)의 영·유아학습센터가 주관하는 Kids Interacting with The Elderly(KITE) 프로그램은 오스트레일리아연방에 속한 태즈메이니아 섬 킹스턴에 위치한 노인시설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KITE 프로그램은 학교와 노인시설의 협력, 그리고 민간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세대통합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KITE 프로그램은 그 명칭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프로그램 자체가 세대통합에 초점을 두고 고안된 것으로 “세대통합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행복감과 인류애를 증진하고,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에 대한 상호 존중을 증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만 5세 이하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KITE 프로그램은 주로 독서, 블록 쌓기, 공 던지기, 비눗방울 놀이, 점토 만들기 등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가 주를 이루며, 어린이와 노인세대가 함께 활동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돌봄을 받는 즐거운 체험을 하게 된다.

KITE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와 노인세대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행복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센터 입장에서든 긍정적인 다양한 성과를 얻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어린 세대의 경우에는 노인세대에 대한 이해 수준이 깊어지면서 어린이들은 노인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즐거워하게 되었다고 한다. 타인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놀이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가 강화되며, 특히 노인들에게는 질병과 죽음의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노인세대의 입장에서는 노년의 외로움이 많이 감소하였고 자신에 대한 존재감과 자존감이 증진되었다고 한다. 노인들의 삶에 대한 동기도 강화되었고 자신이 지니고 있는 기술과 지식 그리고 능력을 아이들과 공유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보람과 함께 젊은 세대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된다는 효과가 있었다.

102)호주 Kids Interacting with The Elderly 홈페이지 <http://www.kite.org.au/>

제2절 국내 세대 간 협력 프로그램

노인들이 요구하는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인복지관의 다양한 시도들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새로운 전환점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전국 노인복지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시도 중 우수 프로그램으로 평가되고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이상(理想)한 실험실의 상상 II”과 신평 사랑채 노인복지관의 “느끼고 나누고 소통하고”라는 세대 간 협력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격대교육에 대한 사례로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1. 서울노인복지센터 ‘이상(理想)한 실험실의 상상 II’

1) 프로그램 개요 및 목적

본 프로그램은 탐골 미술관에서 지역 사회 어린이들과 어르신이 문화 예술 활동을 매개로 세대 간 소통과 교류의 폭을 넓히고, 노인 전문 자원봉사 영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사회 어린이들과 어르신 예술 나눔 활동가 간의 세대 통합을 추구한다. 2015년에 이어 연속 사업으로 수행한 탐골 미술관의 “이상(理想)한 실험실”¹⁰³⁾은 지역 사회 어린이들과 어르신 자원봉사자가 함께 탐골 미술관의 전시를 관람하고, 전시와 관련된 문화 예술 활동을 체험함으로써 1·3세대 간 교류의 장을 지속해서 확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프로젝트는 어린이와 노인에게 새로운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세대 간 교류를 확대하고, 어린이에 대한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상호 작용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세대 통합의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한 것이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 아동 협의체와의 연계

103) 삼성복지재단, 『2016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지원 우수사례집』, “사례 4 지역 사회 아동과 어르신 예술 나눔 활동가 간의 세대 통합 프로젝트 탐골미술관 “이상(理想)한 실험실의 상상 II” 서울노인복지센터, pp.36~45

및 어르신 예술 나눔 활동단의 주체적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미술관의 문화 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노인 전문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여 1·3세대 교류의 장을 확대하고자 한 것이다.

2) 프로그램 진행 내용

이상(理想)한 실험실의 상상 프로그램은 3월부터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위한 준비부터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및 프로그램 준비 그리고 세대 통합 실천 활동까지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이상(理想)한 실험실의 상상 II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13] 이상(理想)한 실험실의 상상 II 프로그램

프로그램		일정	횟수	수행방법
지역 사회 연계 강화	지역 아동 기관 협의체 협약	3~4 월	3회	전화, 공문, 기관 방문을 통한 모집·홍보 “이상한 실험실” 성과와 사업 취지 소개, 사업 일정, 협약 내용 안내 지역 사회 아동 기관 협의체 협약 체결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종로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협의체 산하 아동 기관 연계	3~5 월	5회	협약을 체결한 아동 기관 협의체를 통해 “이상한 실험실” 참여 아동 기관 모집·홍보 아동 기관 협의체 산하 아동 기관 연계 낙산어린이집, 창일어린이집 연계 우리어린이집 연계 짐랜트어린이집 연계 청암지역아동센터 연계
	협약 기관 정기 간담회	5, 12월	2회	“이상한실험실” 협약기관 정기간담회 실시 5/26, 12/6(총 2회, 10명 참여) 프로그램 성과 공유 및 평가, 협력 사항 점검, 향후 진행 일정 안내 등
	전문가 자문단	3~1 1월	9회	전문가자문단위촉: 3/16,10/18(총2회,6명) 자문위원: 전시해설, 체험, 아동보육, 사회복지 전문가 자문단 통합 자문회의 실험주제 설정의 필요성(지역아동센터로의 활동기반확대, 아동의 연령층 다양화), 다양한 통합방법모색 (세대통합,계층통합), 활동에대한 의미부여 및 설명, 본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위한 평가시간 정례화 매달 전시해설 및 체험자문 실시 3~11월(총7회,7명) 전시관련문화예술활동기획및프로그램내실화도모
예술 나눔 활동의 주체 활동 역량 및 자조 모임 강화	예술 나눔 활동단	2월	1회	관내게시물, 기관지, SNS를 통한 참여자 모집 및 사업홍보 “이상한 실험실” 사업 설명회 실시: 사업 취지 소개, 사업수행 일정, 예술 나눔 활동가의 역할 안내 등 예술 나눔 활동가 총 26명 선발 선정 기준 : 예술나눔 활동 경력이 있는 어르신, 미술·공예 등 문화 예술 활동이나 아동 대상 활동에 관심 있는 어르신
	자조 모임	2~1 1월	20회	예술 나눔 활동가 자조 모임 2~11월(총 20회, 348명)/ 격주 1회 진행, 1회 세대 통합 실천 활동 팀별 기획 및 준비, 활동 평가, 그룹 스터디 등 팀별로 세대 통합 실천 활동을 기획, 준비함으로써 예술 나눔 활동가의 주체적 활동 역량 강화 자조 모임 종료 후 예술 나눔 활동가 실천 노트에 활동 내용, 소감 및 평가 등 기록. 활동과 관련해 담당자와 수시로 소통. 예술 나눔 활동가 미술 체험 예술 나눔 활동가 그룹 스터디의 일환으로, 실크 스카프 만들기를 체험함. 예술 나눔 활동가 문화 체험 경기도자박물관 전시 관람, 곤지암 화담숲 산책길 걷기 등 문화 체험 장소 선정에서부터 체험 프로그램 내용, 사전 답사까지의 전 과정을 예술 나눔 활동가가 주체적으로 기획하여 진행함.

예술 나눔 단의 주체 적 활동 역량 및 자조 모임 강화	활동 역량 강화 교육	소양 교육	8월	1회	아동에 대한 이해와 의사 소통 교육 세대 통합 실천 활동 관련 사전 질문지를 자체 제작하는 등 교육 기대감이 높았음.
		활동 교육	3~ 10월	10회	월별 세대 통합 실천 활동을 위한 사전 활동 역량 강화 교육 전시 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 사전 실습
	예술 나눔 활동가 정기 간담회		5, 11월	2회	주요 의제 예술 나눔 활동 건의, 애로사항 수렴 예술 나눔 활동 평가 미술 체험·문화 체험 내용 논의 향후 활동 방안 논의
세대 통합 실천 활동	찾아오는 미술관		3~1 1월	32회	아동 눈높이에 맞는 전시 해설과 전시 내용에 맞는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함. 어린이집 아동이 탐골미술관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 (총 32회, 어린이집 아동 657명 참여) 월별 프로그램 3월 : “어르신과 디자이너의 콜라보”전 관람, 짚으로 태피스트리 만들기 체험 4월 : 나눔의 등 축제 “달아 달아 마음 달아” 관람, 한지 열기구 등 만들기 체험 5월 : 하지권 사진전 “절집, 두 번째 이야기” 관람, 6월 : “삶의 예술-The Fashion, 내 삶의 한 자락” 관람 7월 : “꽃신, 아름다운 발걸음”전 관람, 8월 : 여주장복 수채화반 전시 “여름, 그리고 꿈” 관람, 9월 : 신인 작가 지원 사업 단체전 “도약의 단초2” 10월 : “이상한 실험실” 세대 통합 전시 관람,

3) 프로그램 운영 성과

‘이상한 실험실’의 프로그램은 미술과 공예 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다. 자체 설문 조사 결과, 프로그램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보람 있는 여가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55%)”를 프로그램 참여 이유로 들고 있으며, 대부분의 프로그램 참여자가 사회 참여 활동을 보람 있는 여가 생활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기 효능감, 노인 역량 강화, 아동에 대한 태도가 변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이미 격대교육이 실행되고 있는 시점에 본 프로그램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노인세대와 소통할 기회를 제공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닌 미술관에서 그림을 읽어주고 재미있는 체험을 함께하는 시니어 선생님으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제시한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지역 사회에서 참여자들의 재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생산적인 존재로서 새로운 노인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이러한 봉사를 하였다는 면에서 환영할 만하다.

나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영국의 대영박물관 등을 방문하였을 때, 유치원생을 포함한 학생들이 시니어 선생님들과 그림을 감상하고 설명을 듣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목격하면서 매우 부러워했던 적이 있었다.

위와 같은 격대교육의 우수사례는 연구자가 교육의 유형을 4가지로 분석한 유형 중 ‘안심형’에 해당하며, 문화 교차 감정교육과 시니어 선생님이 융합하여 교육하는 형태이다. 젊은 부모세대가 문화 교차 감정교육을 선행과제로 이행하는 ‘미래형’이 함께 한다면 안심 교육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 이를 계기로 정부가 다양한 문화공간에서 소외된 계층이 없이 자연스럽게 정(情)을 나누고 어울릴 수 있는 유로(幼老)복합시설의 건립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2. 신평 사랑채 노인복지관

1) 프로그램 개요 및 목적

오늘날의 노인들은 과거와 달리 신체적·정신적으로 더욱 건강한 노년을 보내면서 자아실현을 위한 사회 참여 기회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경제적·신체적 건강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고립과 소외감 등 사회에서의 역할 상실에서 오는 심리적 이슈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하여 대인관계를 증진하고 자아실현이 가능한 대안으로 3세대와의 통합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성공적으로 실현한 것이 “옥상 텃밭 강사 양성을 통한 노인 역량 강화와 아동 먹거리의 소중함 인식을 함께한 1·3세대 소통 프로그램”¹⁰⁴⁾이다. 본 프로그램은 세대 간의 소통과 상호 이해의 능력인 세대 공감 능력을 적극적으로 함양하고 이를 통하여 1·3세대 세대가 서로 협동하고 공동의 의식을 공유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서 옥상 텃밭 동아리 회원을 대상으로 옥상 텃밭 강사를 양성하여 옥상 텃밭 운영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아동은 건강한 먹거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연에 대한 이해를 높여 1·3세대 통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목적이었다.

2) 프로그램 진행내용

“느끼고 나누고 소통하고” 프로그램은 그 참여대상을 텃밭 가꾸기에 관심이 있고, 옥상 텃밭 강사 양성 과정에 참여한 노인 10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1·3세대 텃밭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

104) 삼성복지재단, 『2016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지원 우수사례집』, “사례 5 옥상 텃밭 강사 양성을 통한 노인 역량 강화와 아동의 먹거리 소중 함 인식을 함께한 1·3세대 소통 프로그램 “느끼고 나누고 소통하고” 신평사랑채노인복지관, pp.46~49

5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세부 내용 및 수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15] 느끼고 나누고 소통하고 프로그램

프로그램	일정	횟수	세부 내용	수행 방법
사업 설명회	1월	1회	·옥상 텃밭 강사 양성 프로그램 ·1·3세대 텃밭 프로그램 안내	·관내 및 구보 홍보 ·홈페이지 홍보 ·어린이집 공문 발송
옥상 텃밭 강사 양성 교육	2~5월	20회	옥상 텃밭 강사 교육 및 프로그램 구성 안내 (직무·소양·보수 교육)	전문 강사를 활용한 교육
실습 실시	4월	1회	실제 활동 시 어려움 해소를 위한 활동 전 실습	어린이집 아동 대상으로 실습 실시
강사 수료식	5월	1회	참여자에게 소속감,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수료식 실시	수료증 및 강사증 전달
1·3세대 텃밭 프로그램	6~11월	30회	아동 대상으로 질기에 적합한 식물 및 채소 파종, 수확하기	복지관 텃밭 내 활동 실시
간담회	5, 10월	4회	·활동에 따른 건의 사항 안내 ·어린이집 교사 대상 간담회	전문 강사가 참여하는 간담회 실시로 활동 어려움 해소

3) 프로그램 운영 성과

단순한 서비스 형식으로 제공되던 기존 복지관의 프로그램과는 달리 텃밭 프로그램은 노인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여 어린이들에게 이를 가르치며 사회 참여 기회를 얻게 되고 이를 통해서 자신감이 높아지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이로써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된 것이다.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노인의 여가생활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며 세대 간 화합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세대 간에 함께할 기회가 부족한 현재 상황임을 고려할 때 세대 간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한 본 텃밭 프로그램은 세대 간 이해도를 높이고 텃밭을 매개로 한 상호 작용을 통해 1·3세대가 서로의 특성을 이해할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하겠다.

페스탈로치는 마치 정원사가 식물을 키우듯이 교사는 어린이의 세계와 발달과정을 잘 이해하여 어린이를 키워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어린이의 본성을 자연의 법칙에 맞추어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텃밭 프로그램은 자연을 매개로 하여 억지로 조장하지 않아도 자연의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을 통해 어린이들이 스스로 때가 되면 자동 발전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소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처럼 격대교육은 다양한 분야와 연령층에서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텃밭 프로그램은 기존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지속해서 배우고, 그것을 어린이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실천을 했다는 점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물론 시니어 선생들의 자존감과 성취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연구자의 분석에 따르면, 기존의 ‘채움형’ 즉, 부모세대의 부족한 부분을 조부모가 보완해주는 유형에서, 이번 사례는 ‘안심형’이라고 할 수 있다. 부족함을 단순히 보완해주는 측면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여 어린이와 공유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1·3세대 텃밭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어린이와 어르신 그 밖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봉사자들 모두 세대 간의 정(情)을 나누는 행복하고 보람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회상한다. 이는 문화 교차 감정교육의 한 모습이며 다 좋은 세상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 서대문구 “1·3세대와 함께하는 숲 체험 마당”

1) 프로그램 개요 및 목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는 2018년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서대문구에서 운영 중인 유아 숲 체험 이용기관의 유아들과 관내 경로당 어르

신들이 함께 숲 놀이를 즐기는 체험 마당을 기획하였다. 이 체험은 서대문구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1·3세대 간 협력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 1·3세대 프로그램은 전문 숲 해설사의 주도 아래 지역의 어르신과 유아가 함께 숲 체험 활동의 시간을 갖게 해주었다.

자연이 주는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 안에서 숲 해설가의 재미있는 숲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어르신과 유아는 공유의 시간을 통해 한층 더 친근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어르신과 유아가 짝을 이뤄 자연물을 이용한 목걸이 만들기, 염색하기 등 프로그램을 통한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지역사회 어르신과 유아들은 서로의 감정을 교류하며 친밀감을 나타냈다. 어르신들은 자신의 손자녀처럼 귀여워하며 유아들이 불편한 점은 없는지 따스한 눈빛으로 관찰하며 보살펴주었다. 유아들은 마치 친할머니처럼 따뜻한 보살핌에 재잘재잘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하였다. 1·3세대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노인과 유아는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고 봉사자들은 두 집단의 즐거운 표정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세대 간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한다. 서대문구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노인과 유아의 숲 체험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1·3세대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어 세대 간 나눔과 공유의 시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2) 프로그램 진행 내용

1·3세대와 함께하는 숲 체험 마당은 서대문구 관내 경로당과 유아 숲 체험원 이용 유아교육 기관이 참여를 하였다. 이를 위해서 사전에 서대문구는 진행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관계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행사는 2018년 10월 11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백련근린공원(홍은동 산11-313, 힐튼호텔 뒤)에서 진행되었다.

[표 16] 1·3세대와 함께하는 숲 체험 마당

시 간	내 용	비 고
10:30~14:40	인사말, 공원소개	
10:40~10:50	할아버지, 할머니께 꽃 전달	
10:50~11:10	가을먹쟁이 잠자기(목걸이 만들기)	
11:10~11:20	방울방울 요술방울(부들불기)	
11:20~11:50	- 스카프 가을추억만들기(꽃 물들이기) - 유아는 숲터로(자유놀이, 밭줄놀이)	
11:50~12:30	점심식사	김밥, 생수 제공
12:40~13:00	숲해설	대상 : 어르신

[그림 22] 1·3세대와 함께하는 숲 체험 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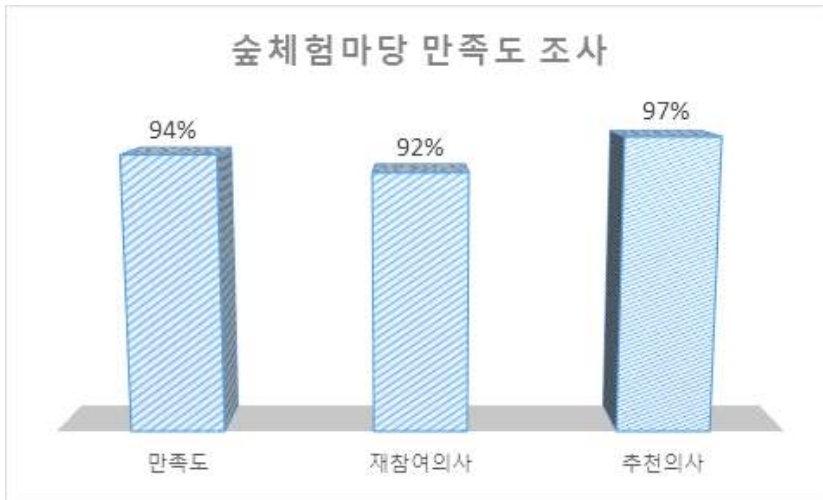


3) 프로그램 운영 성과

본 프로그램은 서대문구 관내 정원단지 경로당 26명과 논골 경로당 1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연유치원 7세 원아 45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숲 체험을 운영하기 위한 유아 숲 지도사와 보조교사 등 4명이 행사를 진행하였다.¹⁰⁵⁾

105) 자료: 서대문구 푸른 도시과, 숲 체험 마당 운영 결과 보고. 2018.

[그림 23] 숲 체험 마당 만족도 조사 결과



체험행사에 참여한 어르신 3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매우 만족 23명, 만족 11명으로 체험행사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참여 의사도 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다른 어르신에게 참여를 추천하겠다는 의사가 97%에 달해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참여 어르신들은 “내가 살아있다는 즐거움을 느꼈다,” “날이 풀리면 또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즐거웠다”는 구술 의견을 나타냈다. 본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바탕으로 서대문구에서는 격대 프로그램의 확대와 함께 어르신과 유아들의 유대 형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 핵가족의 ‘현실형’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처음 대면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낯센보다는 친근함으로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다. 지혜 자인 어르신들의 자애롭고 여유로운 품성으로 아이들을 품어주시니 본성이 자유롭게 드러나면서 아이들의 기질마다 특수성이 자동으로 발현되는 현상이었다. 아쉬운 점이라면, 1·3세대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유로(幼老) 협력프로그램

으로 발전하여 서로 충분히 사랑을 나누고 탐색하며, 체험하는 공유와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연구자가 분석한 결과 격대 교육의 ‘안심형’ 교육이다.

제3절 격대교육과 유로(幼老) 복합시설 수용방안

1. 내가 원하는 격대교육과 유로(幼老) 복합시설

일본 도쿄(東京) 에도가와(江戸川)구에 있는 사설 사회복지시설 ‘고토엔(江東園)’에서 매일 즐거운 아침체조 풍경이 펼쳐진다. ‘오지상~ 오바상~, 교모 오겡끼데스까?(할아버지 할머니, 오늘도 건강하시죠?)’ 아이들이 합창이라도 하 듯이 입을 모아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아침 인사를 한다. 이어서 스피커에서 체조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60여 명의 아이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신나는 음악과 선생님 구령에 맞춰 즐거워하며 몸을 힘차게 움직인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들도 함께 휘휘 팔을 저어 본다. 체조가 끝나자마자 아이들은 늘 그랬듯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품에 안긴다. 서로 반갑게 마주 보며 아이들이 재잘거리는 소리를 들어주신다. 분주하게 이리저리 뛰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한 분 한 분에게 큰소리로 인사하는 아이들도 있다. 거동이 불편하여 휠체어에 앉아 계신 노인들은 아이들이 달려들면 “어이쿠” 비명을 내지르지만, 어느새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진다.

아침 체조 후에는 산책이나 보드게임 등 각자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활동을 위해 헤어진다. 평일에는 어르신이 아이들에게 전래동화를 들려주는 시간도 있다. ‘대가족 같은 복지시설’ 고토엔은 말 그대로 ‘대가족’이다. 돌을 갓 지난 영아에서부터 90세의 노인들까지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모여 지낸다.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과 노인들의 간호와 요양을 위한 노인복지 시설이 하나로 결합한 제도이다. 4개 층의 시설 중 1층에는 아이들을 위한 보육 시설이 있고, 2·3층에는 노인들을 위한 요양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맨 위층인 4층은 아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차를 마시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자유공간이다.

이곳에 머무는 두 부류의 노인들이 있다. 하나는 치매나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불편해 치료가 필요한 노인들 60여 명이 있다. 다른 하나는 1인

가정으로 홀로 생활은 가능하지만, 가족이 없거나 주거지가 없는 노인들 60여 명이다. 데이케어를 이용하는 노인들은 가족들과 함께 머물면서 낮에만 이곳을 찾아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하루 평균 30~40여 명이 된다고 한다.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100여 명의 아이들은 시설 인근에 사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이다.

이 시설은 아이들과 노인들이 층을 나눠 주로 생활하지만, 실제로는 특별한 제한이 없이 모든 층을 함께 사용한다. 아이들은 1층에서 지내다가 2층에 올라가서 노인들과 함께 낮잠을 자기도 하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돕기도 한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운동회와 수영대회 등을 함께 치르고 크리스마스에는 어린이와 노인이 함께 팀을 만들어 연극도 한다.

하야시 요시토(林義人) 원장은 ‘아이들은 노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함께 공유하는 세상을 배우고, 노인들은 아이들의 존재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깨달은 논리로 인해 삶에 활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현재 ‘세대 간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복합시설을 통해 사회가 당면한 문제인 고령화와 저출산의 어려운 숙제를 풀어보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토엔과 같은 시설은 맞벌이 부부들에게 아이를 맘 놓고 맡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노인들에게는 아이를 돌보는 ‘일거리’를 마련해주는 효과적인 복지모델로 꼽히고 있다. 설립 초반에는 어르신의 질병이 어린아이들에게 옮거나, 아이들의 병이 어르신들에게 옮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으로 두 시설을 분리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일본의 보건 노동복지부와 동경 시청은 결국 ‘고토엔’의 모델을 수용했고, 현재 일본 내의 여러 지역에서 벤치마킹하는 성공적인 모델이 되었다고 한다. 복합시설은 설립 취지에 따라 양로시설은 월평균 3만 엔(약 24만 원), 보육 시설은 월 2만 엔(약 16만 원) 정도를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받는다. 나머지 운영비는 정부에서 나오는 개호보험과 도쿄도, 에도가와 구청 등의 지원으로 충당한다.

‘고토엔’에 거주하거나 케어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65세부터 102세까지

120명)은 어린아이들(1세부터 6세까지 60명)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삶에 또 다른 의미와 즐거움을 더한다. 또한 어린이 케어를 돕거나 이들의 멘토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을 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자존감과 독립심이 매우 높아진다. 동시에 아이들은 어르신들의 다정한 존재, 케어, 그리고 삶의 이야기와 체험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이는 조부모나 친척이 멀리 살거나 없는 일반적인 일본의 가정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인 일본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고토엔’은 다세대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지하여 고령사회에서 포괄적인 케어를 제공하기 희망하는 다른 나라들에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¹⁰⁶⁾

또 다른 형태는 후쿠오카현 오모타시에 있는 중증 치매 할머니들이 모여 사는 곳 ‘아오이 케어 그룹 홈’이다. 이곳에서 미용 업에 종사했던 나리 키오 할머니 방에 메이크업 도구가 한가득하다. 조금은 어눌하지만 익숙한 손놀림으로 화장을 정성 들여 한다. 주방에서는 칼을 이용해 감자를 돌려 깎고, 당근을 썰고 요리를 하시느라 할머니들의 손놀림이 분주하기만 하다. 온종일 휠체어에 앉아 있는 히데코 할머니는 깔끔한 성품답게 국 뜨는 일과 상 닦는 일을 척척 해낸다. 요시코 할머니는 오늘 주문 들어온 케이크를 만들어 데일리 케어 센터에 배달까지 한다. 장보기를 좋아하는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이용하던 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물건을 고르며 구매해 오는 일을 즐거워하신다.

“치매로 기억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일을 늘려가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룹 홈 관리자의 말이다. 유치원이 함께 있는 곳도 있어서 직장인 부

106) 에드워드 존스(Edward Johns), AARP International Affairs Department, 번역: (주) 시니어파트너즈 전해연 과장

부들이 아이들을 맡기면 친손자 손녀처럼 아이를 돌보기도 하며 치매 노인과 아이들이 일상처럼 만나고 함께 생활한다. 치매 환자라고 통제하거나 금지되는 일도 이곳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상입니다. 칼을 쓰거나 불을 쓰는 일도 거뜰히 해낸다. 일생 부엌일을 도맡아온 할머니들의 몸이 기억하는 일이다.

“거의 다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 각성을 합니다. 눈이 커지고 정신이 또렷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요양보호사는 말한다. 이곳에서 직원들의 역할은 할머니들의 끊어진 기억을 이어주는 것이다. 오후 일과로 세차를 선택하신 무라야마 씨를 포함한 다섯 분의 할아버지는 세차장으로 가는 내내 신이 난다. 치매에 걸리기 전에 자동차를 애지중지 여기며 관리 해오던 사람들이라 몸에 밴 익숙한 솜씨로 세차 일을 해낸다. 처음 3개월은 자원봉사 형식으로 일을 했지만, 이제는 능력을 인정받아 어엿한 사례도 받고 있다. 치매 환자를 불편한 존재가 아닌 함께 살아갈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 세차 일은 데이케어 관리자가 대리점 측을 일 년 반 동안 설득하여 따낸 일자리이다. 치매 노인들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처음엔 잘하실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지만, 우려와는 달리 성실하게 세차를 하셔서 이젠 정기적으로 세차 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실수도 합니다. 저희도 실수는 하죠. 인간이니깐, 예를 들어 세차를 100번 하면 한 번 정도 손상할지도 모릅니다.”

대리점 사장님은 이야기한다. 치매에 걸리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거

라는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어지셨다고 한다. 치매 환자들은 진단과 동시에 급격히 나빠지지만, 익숙한 환경에서 일상을 유지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발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치매는 악화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치매 환자들은 환경과 보살핌이 좋으면 본인의 잠재력을 발휘하거나 안정적으로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일본 후생성 치매 연구센터 부센터장은 말한다.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병의 속도가 늦춰지거나 호전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치매 환자는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시키면 격렬하게 거부하는 치매 행동 심리 증상을 보인다고 한다. 도쿄 메디컬 센터장은 말한다.

“치매 환자는 기억은 없어져도 희로애락을 느끼는 감정 중추는 살아 있습니다. 감정이 살아있다는 것은 마음이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치매 노인들도 즐겁고, 기쁘고, 슬프고, 무섭고 다 느낄 수 있으며, 특히 무섭다는 감정이 제일 강하다고 합니다.”

휴머니튜드(Humanitude) 기술(눈 맞추기, 접촉, 말하기, 걷게 하기)은 치매 환자도 감정이 살아있다는 점을 치료와 요양의 일환으로 사용합니다. 기억은 없어져도 감정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일을 시키면 병은 더 나빠지고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여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요양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일본 후생성 치매 센터 발표에 의하면 65세 노인 7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고 한다. 따라서 치매는 이제 흔한 질병이며, 치매 환자에게 불편한 사회는 일반인에게도 불편한 사회라는 것이다.

‘저는 미야 노하라 중학교 3학년 구로나 사요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누구 옷을 뜨고 있었는지 잊어버리곤 하지만 누구보다 뜨개질을 잘하십니다.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잊어버리지만 ‘고마워’라는 감사 인사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잊어버린 지식도 많지만 도움이 되는 지혜는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치매라는 병에 걸린 것은 슬프지만 그래도 저는 할머니가 정말 좋습니다.’¹⁰⁷⁾

지금은 힘없고 치매에 걸려 자기 안에 갇혀 있지만, 그들도 누구보다 치열한 삶을 살아온 과정에, 젊고 당당한 주인의 시간이 있었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월요일 새벽 우연히 시청하게 된 SBS 일요특선 다큐멘터리 ‘안녕, 우리 할머니’ 편을 시청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변화하는 세상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니 ‘참 다행이다’라는 안도감과 함께 지금 내가 맞이하는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오랜 세월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로움으로 인하여 다져진 시간의 결과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 ‘치매’는 특별한 병이 아닌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병인 동시에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다. 정부에서는 노인복지기금에서 치매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을 전년도보다 846%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다. 이는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수가 매년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이제 치매 환자들을 가두어놓고 고립된 상태에서 질병을 더 악화시키는 정책에서 벗어나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여 열린 공간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상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외면의 대상이었던 장애인에게 조금씩 너그러워지고 있다. 출생부터 장애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열심히 삶을 살다가 불의의 사고로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를 얻는 경우가 더 많은 세상이다. 이러

107) SBS 일요특선 다큐멘터리, ‘안녕 우리 할머니’편

한 현실 속에서 장애인은 특별히 경계해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서로의 감정을 챙겨보고 이해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살맛 난 세상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결과이다.

유로(幼老) 복합시설에서의 격대교육 제도로 인하여 노인과 육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과 아이들이 함께 행복한 세상의 문화를 만들고 그로 인하여 행복 추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본다. 다 좋은 세상 안에서 모두가 귀한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립과 운영의 형태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유로(幼老) 복합시설로 계획하고 그 특성에 맞게 운영체계를 구축하면 될 것으로 본다.

2. 유아 및 노인시설의 통합 공동체 적용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 전부터 ‘밥상머리 교육’, ‘무릎 교육’ 등 전통교육을 되살리는 취지의 교육방법들에 주목하고 있다. 이 시점에 ‘격대교육’이라는 조금은 생소한 이름으로 TV에서 3부작, 5부작 등 다큐멘터리¹⁰⁸⁾를 방송하면서 격대교육에 관하여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날의 인구변화와 핵가족 시대에 맞물려 시기적절한 내용의 방송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렇다면 격대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또한 만일 조부모가 계시지 않은 가정에서 격대교육을 받을 방법에는 어떠한 사례가 있겠냐는 의문을 품게 되면서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다.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해마다 인구변화를 느끼고 원아 모집 기간에 유아의 수가 줄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또한, 늘 시간에 쫓기며 생활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르신과 유아가 같은 공간 안에서 서로

108) SBS 일요특선 다큐멘터리, ‘안녕 우리 할머니’편

KBS 다큐멘터리 : 신년기획, 신 노년 시대

사랑하며 서로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을 그려보았다.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며 어르신께는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들에게는 정서적인 안정과 성장의 기쁨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유로(幼老) 복합시설’을 건립하면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결론을 실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문화교차학과에 들어와 고전을 공부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해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격대교육에 관하여 관심을 쏟게 된 계기이다. 나는 유로(幼老) 복합시설은 격대교육을 적용하기에 가장 바람직한 시설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생소하기만 한 ‘유로(幼老) 복합시설’에 관한 사람들의 이해를 구해야하며, 제도적으로도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른 시일 내에 유로(幼老) 복합시설의 건립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격대교육을 먼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아래는 연구자의 유치원에서 실시하였던 격대교육에 관한 사례이다.

우리 유치원 바로 앞에 동네 놀이터가 있다. 다른 놀이터와 달리 백련 놀이터 내에는 경로당이 같이 있어서 늘 깨끗하고 원장으로서의 안심이 되는 놀이터이다. 그렇다 보니 우리 유치원 아이들의 바깥 놀이 활동 장소로 자주 이용하는 곳이다. 아이들이 매일 드나들다 보니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과 친밀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제는 명절이면 유치원 아이들이 방문하여 노래도 불러드리고, 야유회 가시는 날에는 간식거리도 챙겨드리게 된다.

어린이날인 5월 5일을 맞이하여 우리 유치원에서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먹거리 장터와 바자회를 연다. 십여 년을 계속해 온 어린이날 행사는 어느덧 지역주민들이 함께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되었다.

우리 동네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변함없이 겹겹이 쌓여있는 보통의 동네 모습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웅기종기 모여 사는 조용한 동네인 것이다. 우리 유치원의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을 통해 지역주민들께도 미리 일

정을 알려드리고,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께 점심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인근 동네에까지 소문이 났는지, 이웃 경로당 어르신들께서도 점심을 드시러 원정을 오신다. 우리 유치원 학부모들이 요리사로 변신하여 즉석에서 직접 만든 음식으로 어르신들을 위해 점심상을 차리고, 유치원 아이들은 옆에서 심부름으로 돕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원장으로서도 너무나 고맙다.

이와 같은 교류를 통해 지역주민과도 친밀해지고,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과는 격의 없이 지내게 되어 나 자신은 물론 유치원 아이들도 어르신들께 스스럼없이 다가간다. 어르신들께서는 우리 유치원의 행사가 놀이터에서 있는 날이면 수호신처럼 놀이터의 안팎을 안전하게 관리해주신다. 그뿐만 아니라 경로당에 계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아침 놀이터를 깨끗이 청소하여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매일 하게 되는 바깥 놀이 활동을 할 때마다 늘 쾌적한 환경에서 놀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다. ‘정말 감사드려요. 어르신들 덕분에 여러모로 안심되네요.’라고 말씀드리니, ‘병아리들이 재잘재잘 되니 사람 사는 것 같아서 우리가 더 좋아.’라고 말씀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신다.

이처럼 어르신들과 특별한 계획이나 정기적인 교류는 없었지만, 오랜 세월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존중을 통해 친근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고 어르신들의 살아가는 지혜를 가까이에서 배우게 되니 감사한 마음이(仁) 자동 행동으로(義) 표현되어 서로가 기분 좋은 날을 만나게 되었다.

우리 유치원 행사를 통해 경로당 어르신들과 학부모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과 지역사회 주민들까지 남녀노소(男女老少)가 대립이 아닌 교차함(交)으로 자동 긍정이 되어 서로 배려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훈훈한 정(情)이 드러나니 더욱더 즐겁고 풍성한 체험 한마당이 되었다.

이렇듯 시작은 작지만, 세대 간의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서, 격대교육을 적용한 유로(幼老) 복합시설의 건립이 무엇보다 좋은 방안이지만, 단기간에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줄 알면서 언제까지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다. 나는 어떤 방법이 있

을까. 고민한 끝에 작은 실천에서부터 격대교육의 첫걸음을 떼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연구자가 생각하는 격대교육의 실천방안으로는 지역사회에서 가까운 거리의 노인시설과 어린이 시설이 자매 결연을 맺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본다. 그리고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여 3세대 간의 지원과 격려 속에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교류를 늘려갈 수 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의 특성에 따라 교류의 방법과 과정들이 수립될 것이고, 그러는 사이에 노인과 아이들은 서로에게 스스럼없이 다가갈 수 있는 친근한 관계가 될 수 있다. 게다가 학부모 입장에서는 노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학부모 참여를 통하여 걱정거리를 해소하고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격대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3세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역할을 활성화한다.

나는 본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고전을 통하여 내 몸 귀한 줄 알고, 논리를 챙겨 생각하며 행동하여야 한다는 삶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유로(幼老) 복합시설 내에 학부모 고전 교실을 개설하여 문화교차학적 감정에 대한 공부와 이러한 나의 체험 과정을 전할 수 있다면 격대교육의 장점을 알리기에 한결 수월하다. 이를 통하여 문화교차학적 감정 교육이 현행 교육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조부모 세대의 격대교육에 접목을 한다면 연구자가 분석한 교육 유형 중 ‘안심형’이 활성화되고 연구자가 바라는 ‘미래형’ 격대교육이 ‘안심형’과 함께 실현이 빨라질 수 있다고 본다.

제5장 결론(結論)

1. 감정이 기본 좋은 다 좋은 세상.

세월의 흐름은 인구 변화는 물론 가족의 구성원이나 역할도 변화를 시켰다.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인성교육은 약화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관에 보내는 아이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중일반 아이들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기관에서의 돌봄 서비스와 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올바른 교육의 유형을 연구하기 위하여 4가지 교육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교육의 유형을 ‘안심형’으로 보았다. 안심형이란, 조부모 세대가 문화교차학적 감정교육을 하는 것으로, 이를 격대교육의 논리로 본다. 연구자는 올바른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격대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와 노인이 함께 배우고 생활하는 유로(幼老) 복합시설 건립을 제안하였다. 또한 격대교육을 담당하게 될 시니어 선생님의 국내외 활동에 참여하고 사례를 연구하여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시니어 선생님들의 장점은 삶 속에서 지혜를 찾을 수 있는 체험 속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하여 세대를 뛰어넘는 정서적 교감으로 이해와 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더하여 시니어 선생님의 말씀과 행동이 그대로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가치관과 생활습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처럼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덕(德)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끌어 주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니 아이들은 자기감정이 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본성의 빛을 발하기 쉬워진다. 반대로 시니어 선생님도 아이들을 통해서 삶의 기쁨을 느끼게 되고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격대교육은 시니어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각각이 아닌 교차가 된다. 여기에서 교차는 각자가 아닌 둘이 또 같이, 하나임을 의미한다. 지혜롭고

인자하신 시니어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감정을 잘 챙겨 기분을 북돋아 주고, 아이들은 자유롭고 안심되는 가운데 정(情)을 나누고 다양한 감정을 표현한다. 마치 ‘뿌리를 단단히 박은 해초가 유유자적 춤을 추는 모습에서 자연은 필연으로부터¹⁰⁹⁾ 나오는 것처럼, 시니어 선생님의 다양한 체험은 지혜롭고, 완전한 사랑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게 된다. 이것은 체험 속의 성찰을 통해서 감정 배움으로 욕(欲)을 다스릴 줄 아는 시니어 선생님이 아이들의 자유로움과 제 몸 따라 놀 수 있음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느긋하게 기다려 주기 때문이다. 아이들도 행복해지고 시니어 선생님들의 삶도 여유로워진다. 이처럼 격대교육은 유로(幼老) 복합시설 안에서 활성화되어 우리 아이들은 물론 시니어 선생님의 행복한 삶과 육아 문제로 고심하는 부모에게 안심이 되는 제도가 될 것이다.

우리는 부모의 완전한 사랑(仁)으로 태어난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中)이다. 우리의 자녀들 역시 그러하기 때문에 천자(天子)로 태어난 아이들이 본성(性)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며, 자신이 완전한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배움(學)을 통해 아이들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이해하게 하고 그 감정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앎(知)을 챙겨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올바른 교육의 중심에 문화교차학적 감정교육인 격대교육이 있다고 본다.

109) 스피노자(Benedict de Spinoza:1632~1677), 『에티카』, 정리32

2. 격대교육(隔代敎育)과 유로(幼老) 복합시설에 대한 제언

내가 원하는 유로(幼老) 복합시설 안에서의 다양한 격대교육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따뜻한 햇볕이 가득한 아침, 정겨운 마당을 가운데 두고 각기 다른 특색을 가진 두 시설이 마주하고 있다. 한 건물은 유치원, 또 다른 건물은 노인시설이다. 이른 아침이지만, 출근 준비를 마친 엄마의 손을 잡고 등원하는 아이들이 줄지어 들어서고, 뒤이어 오는 아이는 시니어 선생님의 손을 잡고 캉쵡캉쵡 뛰며 등원하는 모습이 즐거워 보인다. 어느새 주차장에는 노랑 유치원 통학버스가 정차하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하차하고 있다. 시니어 선생님은 예쁜 복장을 하고, 하차하는 아이들을 순서대로 줄을 세운다. 각 교실의 담당 시니어 선생님들은 자기 반 아이들을 한 줄 기차로 줄을 세워 교실로 향한다. 마당에는 청소하시는 할아버지, 화단에 물을 주고 계시는 할머니들이 손을 들어 아이들과 인사를 나눈다. 어르신들은 자연스럽게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신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 교차 유로(幼老)복합’ 시설이다.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담임교사와 시니어 선생님이 함께 조를 이뤄 아이들을 돌본다. 자기 반 교실에 들어온 아이들은 담임선생님과 인사를 한 후에 가방과 걸옷을 벗어 개인 사물함에 정리한다. 익숙한 듯 자유 선택 활동 영역에 가서 놀이하는 동안 등원하는 아이들을 맞이하며 익숙한 숨씨로 아이들의 정리를 도와주시는 시니어 선생님의 모습이 보인다. 곧이어 담임교사의 피아노 연주에 맞춰 아이들은 이야기 나누기 자리로 모여 앉고, 담임교사는 일과를 소개하며 오늘의 활동 순서에 맞춰 놀이 수업이 시작된다. 오늘은 시니어 선생님의 재미있는 이야기 수업이 있는 날이다. 단아하게 한복을 입고 등장하신 할머니는 아이들과 이미 친숙한 듯 환하게 웃으시며 자리에 앉으신다. 옆 반에서는 시니어 할아버지의 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수업 시간이다.

다른 반의 아이들은 바깥 놀이 시간인지, 마당 한편에 있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왁자지껄하다. 별이 좋은 마당 한 편의 벤치에 서는 오순도순 어르신들이 정담을 나누며, 아이들의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곤 하신다. 오전 수업 시간을 마치고 즐거운 점심시간, 아이들은 손을 씻고 시니어 선생님들은 줄을 지어 아이들의 배식을 돕는다. 정귀반 아이들이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 통학버스 노선에 맞춰 시니어 선생님들 앞에 아이들은 줄을 선 후 안전하게 통학버스에 승차한다. 손을 흔들며 배웅하신 시니어 선생님들은 이렇게 오전 일과를 마무리한다.

곧이어 이어지는 종일반 아이들의 수업 시간에서는 영아반 아이들의 낮잠을 돕기 위해 시니어 선생님들의 손놀림이 분주하고, 아이들은 평화로운 모습으로 보살핌을 받으며 잠을 청한다. 큰 반 아이들은 시니어 선생님들의 재능에 따라 다양한 놀이 수업을 한다. 바이올린을 연주하시는 할아버지가 오셔서 아이들에게 친숙한 음악을 들려주시고, 강당에서는 요가 할머니의 지도로 어린이 요가수업이 진행 중이다.

요일별로 정해진 시니어 선생님들의 수업은 매우 다채롭다. 아이들과 시니어 선생님들의 조화로운 교류로 인하여 아이들과 시니어 선생님 간의 정(情)과 활력이 넘친다. 바깥 놀이까지 마치고 나면 오후 간식시간이다. 아이들과 시니어 선생님들이 함께 앉아 먹거리를 나누며 즐거운 수다 시간이 이어진다. 재잘재잘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사랑스러워 얼굴에 함박웃음을 머금은 채 바라보는 눈빛에 사랑이 가득하다.

이렇게 ‘문화교차 유로(幼老)복합’시설의 또 하루가 마무리된다.

본 연구에서 교육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조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인 ‘채움형’과 부모와 함께 사는 ‘현실형’이 대부분인 아이들이 받게 되는 격대교육은 인구변화나 가족해체기의 대안이 아닌 필연적으로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제도라고 본다. 양극(兩極)의 노인과 아이들이 격대(隔代) 교육 안에서 서로 간에 교차(交叉)함으로써 내 본성(本性)대로 세상을 살

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대부분의 젊은 부모세대는 마음이 조급하고 욕망(欲望)이 앞선 나머지 아이들에게 조장(助長)하게 된다. 이처럼 마음 바쁜 부모세대와는 다르게 시니어 선생님은 지혜와 절제의 자기감정뿐만 아니라 아이들 감정에 대한 이해가 체험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는 바인 욕(欲)을 올바른 사랑(仁)과 덕(德)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 따라서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어르신들의 보람된 삶과 아이들의 안정적 교육의 유형으로 ‘안심형’을 격대교육은 제공할 것이다. 또한 부모의 감정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는 ‘미래형’ 역시 조부모가 함께할 때 더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미래형’과 ‘안심형’은 논리가 하나로 통한다는 사실 확인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연구자가 제안하는 ‘유로(幼老) 복합시설’이 아직 국내에 적용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격대교육(隔代教育)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가 제도 방안을 마련하여 어린이와 노인이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되는 유로(幼老) 복합시설을 건립하고, 기존 시설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더하여 본 연구를 시작으로 격대교육의 논리가 유로(幼老) 복합시설 안에서 세대 간의 화합으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조부모 세대와 부모세대의 문화교차학적 감정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지속해야 할 것이다.

아이의 모습은 우리의 과거이고 노인은 우리 미래의 모습이다. 격대교육을 적용한 유로복합시설의 활성화를 통하여 아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역시 행복할 것이다. 나는 이것이 문화교차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단행본

『大學』 대학

『論語』 논어

『周易』 주역

『中庸』 중용

『孟子』 맹자

『退溪先生文集』 퇴계 선생선생문집

곽노의. 1996. 『프뢰벨 생애와 교육』. 양서원

곽노의. 2015. 『유아교육사조』. 문음사

국회예산정책처. 2018.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김광호, 조미진. 2012. 『오래된 미래, 전통 육아아의 비밀』. 서울:
라이온스북스.

루소 지음·정영하 옮김. 2003. 『에밀』. 서울: 연암사

성백효 옮김. 2010. 『논어집주』. 전통문화연구회

———. 2010. 『대학·중용집주』. 전통문화연구회.

———. 2010. 『맹자집주』. 전통문화연구회.

손인수. 1991. 『한국인의 가정교육』. 서울: 문음사.

신배화. 2017. 『결국 인성이 이긴다』. 인천: 오리진하우스

- 안태운, 서해정, 박혜선, 김명일. 2011. 『세대교류를 위한 「3세대 이음터」 운영모델 개발』.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유안진. 1986. 『한국의 전통교육방식』.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황 저·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엮음. 2009. 『역주와 해설 성학십도』. 서울: 예문서원.
- . 정석태 옮김. 2005. 『안도에게 보낸다』. 서울: 들녘
- 이기동 역해. 2015. 『대학·중용강설』.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이기동———. 2009. 『논어강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이기동———. 2007. 『맹자강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장윤수. 2015. 『편지를 통한 퇴계 선생의 손자교육』. 사회사상과 문화. 18(3), 69-109.
- 조중빈. 2017. 『안심 論語』. 국민대학교 출판부
- 조중빈. 2018. 『자동 中庸』. 부끄끄
- 최혜순, 양은호. 2010. 『한국의 전통육아』. 서울: 신정.
- 최효찬. 2005. 『5백년 명문가의 자녀교육』. 고양: 예담.
- 프리드리히 프뢰벨·정영근 옮김. 2015. 『인간의 교육』.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 홍승표. 2007. 『노인 혁명』. 서울: 예문서원

학술 논문

- 강순화. 2009. “幼兒教育과 保育體制의 統合 方案 研究.” 인하대학교

-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구혜진. 2017. “세대별 조부모 이미지와 손자녀 육아에 대한 연구.”
고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순미. 1984. “현대사회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아동양육방법의
문제접근.” 사회사업논집, 8(1). 93-116.
- 권혁내. 1985. “兒童의 道德性 發達과 家庭教育 : 構造的 發達論
中心.” 『춘천교육대학 논문집』, 25. 101-123.
- 김미라. 2012. “韓國 傳統 어린이 教育觀 研究.”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영. 2010. “조손 관계의 전통과 격대교육”. 『실천 민속학 연구』
제16호, 69-72쪽.
- 김영옥, 백혜리. 2000. “조선 시대 아동 양육 방법에 관한 문헌적
탐구.” 『유아교육학논집』. 4(1), 5-25.
- 박종덕. 2012. “인성교육과 가정교육”. 『도덕교육연구』. 24(3),
153-174.
- 삼성복지재단. 2017. “2016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지원 우수사례집”.
서울노인복지센터
- 서울복지재단. 2006. 『재가노인복지 프로그램 매뉴얼』
- 성동권. 2014. “孟子的 四端擴充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계학. 2000. “한국의 전통 가정교육과 종교.” 『종교교육학연구』.
10, 7-28.
- 임병우. 2017. “노인복지관의 기능 재정립에 대한 연구,” 보건복지부
수탁과제.
- 임재해. 2012. “한국 전통 육아 왜 잊혔는가?” 생태유아교육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 원고. 6쪽.

- 정아란, 김영철. 2014. “조손(祖孫)가정의 격대교육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인식”. 『한국보육학회지』, 14(2). 103-132
- 조남옥. 2016. “이퇴계 선생의 가정교육에 관한 연구.”
『퇴계선생학논총』, 27, 63-91.
- 최은진. 2013. “세대통합 집단사회복지실천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정원. 2015. “고전을 통한 자녀교육의 현대적 적용.”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정란. 2001. “노인교육과 세대통합: 세대공동체교육”
한국성인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3-34.
- 허우정 · 하은옥 · 김은주 · 조민영 · 임부연 · 황해익. 2006.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노인-아동 세대통합프로그램의 의미와
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0(4):331-35

보도자료 및 인터넷 검색

교육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index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index/index.do
보건복지데이터포털	https://data.kihasa.re.kr/index.jsp
통계청	http://kostat.go.kr/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http://www.kaswcs.or.kr/

경향신문. “美 노인학 협회 핸드릭스 회장 ‘한국 고령화 美보다 5배 빨라’ ” 2004년 9월 22일자 14면

매일신문. “할매할배가 전하는 인성교육” . 매일신문 2018년 08월 07일자

보건복지부. 2017. 『노인복지시설현황』 통계정보 보고서.

보건복지부. 2018. “2018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II)” .

보건복지부. 2018. “2018 노인복지시설 현황” . 2017.12.31.일
현재기준

한국경제. 2018. “일본 24년 걸린 '고령사회'.. 한국, 17년 밖에 안 걸렸다” , 2018년 08월 27일자

KBS 신년기획. 2018. “신 노년시대 4부작: 격대교육,” 제작팀.

MBC 스페셜. 2013. “100세 시대, 노년의 행복할 권리,” 제작팀.

SBS스페셜. 2013. “그들에겐 특별한 것이 있다: 격대교육,” 제작팀.

TV N. 2018. “황혼의 배낭여행, 꽃보다 할배,” 제작팀

<Abstract>

A Xlogical study of Grandparent Involvement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Elderly Complex Facility Development

Jung, Sukhee

Major in Cultural art

Department of X Cultural Studies

Graduate School,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The main objectives of this paper was twofold. Firstly to explore the needs and theoretical logics of the grandparent-grandchild education, Secondly, to propose and envision the child-elderly complex facility. There are various issues in present education mainly due to the performance focused education system, disconnection of traditional spiritual succession, psycho-cultural value crisis and the inter-generational confrontation. Upon current circumstan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grandparent-grandchild education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the issues.

In order to accumulate ideological foundation, it was deeply explored the Chinese and Korean classical literatures, The ten diagrams on holy me learning(聖學十圖), and Toegye(退溪)'s "Letter to Ahndo" which contains his 125 letters to his grandson Ahndo.

As a result, it was deducted that the core of grandparent-grandchild education can be defined as a complete self understanding of feelings and is acknowledgment of learning that it is designated to learn, practice and grow in a peaceful world.

The grandparent-grandchild education has not only earth up self-feelings for wisdom and control in grandchild side but also high level understanding for children's inward feelings by grandparent because the grandparent intuitive knew the virtue of self understanding through their own experiences. Therefore it is natural that their wandering desire can be induced to truthful love and goodness. Furthermore, the children could enjoy free live according to their nature and could recognize they are in perfect love. They could learn to understand their own feelings and unaffectedly reassure the betterment of life by the education. On the other hand, the grandparent also could fully blown their life by reexamine the past and realize that the origin of wisdom is self understanding of their feelings. These proposed truthful education is the grandparent-grandchild education in an aspect of Xlogical approach.

Although the research on the grandparent-grandchild education was not actively conducted in our environment, the children who were enrolled in the grandparent-grandchild education showed higher scores in areas of the cognitive ability, emotional stability and academic performance based on the study from the States. The study shown that the grandparent-grandchild education has positive effects on children's behavior and educational performance. Therefore, it is very necessary to beware more on grandparent-grandchild education not only from the professional but also from

the end consumers because of its benefits. Besides, the proposed education could contribute to the community restoration because it makes to encourage sharing and communication among the participants.

In order to explore advisable direction, socio-economic change, the elderly welfare facilities, inter-generational programs and international child-elderly complex facility cases were reviewed and analyzed. Also, for the development of the education, the educational programs for senior teachers are proposed. As the proposed education is spread through the child-elderly complex facility, more generation harmonized community could be established in our society.

To expand understand for the grandparent-grandchild education, the author visualized the framework for the education based on the long experience as a kindergarten teacher. Based on analysis, the framework divided into 4 dimensions, namely;

I. 'Fill-up type' is the type in which grandparent education and current education are central.

II. 'Phenomenon type' is the type in which parent education and current education are central.

III. 'Future type' is the type of parent education and cultural interdisciplinary feeling education are central.

IV. 'Assured type' is the type that the grandparents education and the Xlogical interdisciplinary feeling education are central.

Based on analysis, 'Assured type' is selected as an ideal type of the grandparent-grandchild education. The effects of 'Assured type education' are;

Firstly, let the children know that they are perfect love itself(仁)

and share their love(情) with others. Secondly, because the children understand their feelings they could have a peace in their mind for leisure. As a result, the children do what they want freely based on their own nature. Thirdly, Interaction with other generations makes children intuitively learn sharing and communication ability with others. Fourthly, through self-education, the children could confirm their own confidence so that he or she could understand others feelings. Finally, Senior teachers can feel the sense of accomplishment through practicing their talent to the society as a result he or she can enjoy positive old age.

On this paper, theoretical logics of the grandparent-grandchild education and the child-elderly complex facility model was proposed. It is expected to have institutional supports for the child-elderly complex facility for actual implementation and the educational program development for senior teachers based on the proposal. Of course, the author will continue to explore further on this issue for the betterment.

I believe if our child and elder who consist about half of our populations are happy then whole country will be happy. Through the grandparent- grandchild education, I firmly believe, the society could be a healthier than ever by sharing feelings without confrontation.

Key words: Xlogic, Grandparent-grandchild education, Senior teacher, Child-elderly complex facility, Assured type